금주의 법구–〈잡보장경〉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릴 줄 알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삶이다.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47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7월 1일) 2023년 8월 16일 수요일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조기 철수한 스카우트 대원들을 위해 사찰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됐다. 사진은 8월 9일 조계사를 찾은 영국 스카우트 대원들이 사찰 안내를 받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조계사

파행 잼버리 대회, 불교계 지원 더 빛났다

준비 부실, 폭염 등 악재에 졸속 운영 세계 잼버리대회
템플스테이 영외활동 '단비'
대원들 사찰서 신심 치유해
조계종 전국사찰 문호 개방
조기철수 후 문화체험 제공

신성민 · 윤호섭 기자,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실상 파행 운영된 제25회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이하 잼버리 대회)를 살린 건 불교계의 지원이었다.

8월 1일 개막한 잼버리 대회는 첫날부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속출했고, 열악한 화장실, 영지 내 물빠짐 문제, 부실 식단 등 총체적 운영 미숙이 드러났다. 결국 영국과 미국은 조기 철수를 단행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호남지역 사찰들에서 진행되는 템플스테이는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단비로 다가왔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명)과 김제 금산사(주지 일원),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 등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은 대회 기간 중인 8월 2일부터 10일간 한국의 전통과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영내외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사찰들은 기록적인 폭염에 당초 예정된 프로그램을 변경해 경내 계곡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은 잼버리 대회를 위해 전 종단적인 지원에 나섰다. 8월 5일에는 전국 사찰에 긴급 지원 지침을 시달했다. 조계종은 "긴급하게 전국 24개 교구본사와 147개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 조계종 직영 한국문화연수원 등에서 참가국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영지나 또는 숙박을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8월 7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직접 새만금 잼버리 법당 등을 찾아 대회 원만회향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대회 현장에서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으로부터 운영 상황 브리핑을 받은 진우 스님은 서울 · 경기 등에 소재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들을 개방해 숙식과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키로 했다.

대원들에 대한 격려도 이어졌다. 진우 스님은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잼버리 정신이라는 것이 있다. 어려운 환경과 난관을 극복하면 앞으로 인생의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먼 한국에 왔으니 한국의 전통문화 특히 우리 불교문화를 경험을 해보길 바란다. 한국 전통사찰의 향취를 맛보고, 자연과 문화가 주는 감동을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계종은 170개 템플스테이 사찰 전부를 대회 기간 개방한다. 많은 스카우트 대원들이 템플스테이를 경험하고 가셨으면 한다. 대회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조기 철수된 후에도 불교계의 지원은 이어졌다.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에는 일본 스카우트 단원 1600명이 입소했다. 이들은 10일까지 구인사와 단양에서 문화체험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천태종 분당 대광사에는 국내 청소년 대원 80명이 입소해 치유명상 · 고구려북명상 · 탁본체험 · 물레체험 · 타종체험 · 스님과의 차담 등을 체험했다.

조계종은 서울 시내 12개 사찰에서 한국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조계사, 봉은사, 국제선센터, 묘각사, 금선사, 진관사, 화계사 등 7개 사찰은 영어로 상시 안내 프로그램을 진행해 스카우트 대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실제 영국 스카우트 대원 40여 명은 8월 9일 조계사를 방문해 한국불교문화를 체험했으며, 봉은사에도 40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이 다도, 선명상, 템플투어, 탑돌이 등 다양한 한국불교문화를 경험했다. 또한 수국사, 봉녕사 등에도 스카우트 대원들이 방문해 한국불교문화를 체험했다.

조계종은 "잼버리 대회 종료 이후에도 독일 스카우트팀이 평창 월정사, 예산 수덕사, 경주 골굴사에서 1박2일 템플스테이를 체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회 현장 기사 5면〉

상월결사 · 동국대 '인도 감사순례' 떠난다

기본기관장 회의서 계획안 공유
내년 1월 중순경 10여 일 순례
숙영 제공 印학교에 감사 예정
MOU, 감사 공연 등 추진 계획

서울 · WISE캠 불교교양 교재
공통 발간 추진… 워크숍 개최
11월 29일 포교 주제 학술대회

상월결사(회주 자승)와 동국대(총장 윤재웅)가 '상월결사 인도순례' 1주년을 맞아 숙영지를 제공한 인도 현지 학교들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감사순례'를 떠난다.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는 8월 9일 본관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7차 건학기본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5대 공통 의제에 대한 기관별 사업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이 공유됐다.

이에 따르면 상월결사와 동국대는 내년 1월 중순경 '인도 감사순례'를 개최한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는 한국불교 중흥을 발원하며 지난 2월 9일부터 3월 23일까지 43일 동안 석가모니 부처님이 걸었던 길 1167km를 도보로 순례한 대작불사였다.

당시 순례에서 인도 현지 학교들은 순례단이 숙영할 수 있도록 부지를 제공했고, 학생과 주민들은 순례단을 환대했다. 이에 순례단 내부에서는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찾아 교류했으면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라는 명칭이 붙은 만큼 약 10여 일 동안 진행될 순례는 부지를 제공했던 학교와의 상호 교류 MOU, 감사 공연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박기련 동국대 건학위원회 사무총장은 "43일간의 인도순례에서 인도인들의 환대와 도움이 원만회향에 많은 도움이 됐다. 숙영지도 현지 교육기관을 많이 활용했다. 내년 순례에서는 해당 학교와의 자매결연 등을 추진하고 감사 인사를 전할 계획"이라며 "오는 9월 사전 답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건학이념구현 교과목 교육과정 표준화 및 고도화' 과제로 추진되는 불교교양 필수과목 '불교와 인간', '자아와 명상'의 서울 · WISE캠퍼스 공통교육 교재 발간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그간 '불교와 인간', '자아와 명상'은 통일된 교재와 커리큘럼 없이 강사의 자체 교안대로 지도돼 왔다.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서는 불교교양 필수과목의 통일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지난 6월 동국대 서울캠퍼스 불교대학과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문화대학, 교양융합교육원은 '건학이념구현 교양교과목 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합동위원회는 8월 10~11일에는 워크숍을 열고 공통교재 논의 및 윤문작업을 진행한다. 9~10월에는 교재 원고를 수정하고 보완해 내년 2월까지 출판 작업을 거쳐 1학기부터는 신규 공통교재로 수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합동위원회의 계획이다.

박기련 사무총장은 "종교계가 설립한 대학에 교육부는 종교 관련 교양필수교과목에 엄격한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동국대의 불교교양필수과목은 워크북으로 운영되고 있고, 교과과정도 다르다"면서 "교육부의 엄정한 잣대를 피해 교양필수교과목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과 과정과 교재의 통일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서는 통일된 불교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담당 기관에서는 불교교양과목 교재 발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본기관장 회의에 처음 참석한 불교학술원은 '한국불교 포교' 관련 학술대회 계획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학술대회는 '상월결사, 그리고 한국불교의 포교 여정'(가제)을 주제로 오는 11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기조발제는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이 맡을 예정이며, 상월결사 및 전법 관련 연구논문들이 발표된다.

불교학술원장 정묵 스님은 "전법과 포교는 불교중흥을 위한 과제"라며 "불교계의 싱크탱크로서 불교학술원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대학생불자 위한 진우 스님의 '안심법문'

8월 6일, 대불련 영 부디스트 캠프서 청춘강연

연기 · 인과 · 중도 교리 설명하고 학생 150명과 본격 소통 나서 "즐겁고 괴로운 감정 바라보자"

공주=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삶에서 중요한 과제를 해결했더니 다른 과제가 밀려옵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나아갈 에너지가 없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힘이 없어서 좌절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가 고갈된 지금을, 재충전을 위한 휴식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50명의 대학생불자들과 마주앉았다.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아닌 '스확행(스님이 알려주는 확실한 행복)'을 위해서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8월 6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주최한 '영 부디스트 캠프' 마지막 날 펼쳐진 진우 스님의 청춘강연이다. 현직 총무원장이 대불련 캠프에 참석해 대학생불자들과 소통의 자리를 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각박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대학생불자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불교에 무엇이 궁금한지 들어보기 위해 마련된 자리. 대부분 법상이나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아온 진우 스님은 이날만큼은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춰 앉았다. 스님은 본격적인 소통에 앞서 학생들에게 스스로 마음을 돌아보기 위한 마음가짐이자 부처님 가르침을 설명했다. 평소 법문에서도 강조해온 연기와 인과, 중도가 그것.

진우 스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자신의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이뤄진다"며 "그렇기 때문에 감정의 공식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즐거움을 느끼는 이유가 상대적 감정인 괴로움을 알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해가 뜨면 반드시 지고, 밀물이 들어온 뒤엔 썰물이 돼 나가는 현상과 같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진우 스님은 "근본적으로 괴로움이 없으면 즐겁다 할 것도 없다"며 "사람은 탓을 많이 하는데, 탓하는 대상은 연기에 따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그걸 보고 기분이 나쁘거나 평안해지는 것은 오로지 나 자신의 문제"라고 말했다.


대학생불자들과 소통하며 스스로 마음을 돌아보는 방법을 설명하는 진우 스님.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진우 스님은 연기와 인과에 대한 대학생불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했다. 질의응답은 강연이 열리기 전 학생들이 스님과 불교에 대한 궁금증, 개인적인 고민을 종이에 적어 제출한 것을 바탕으로 했다. 진행은 유정현 대불련 중앙회장이 맡았다.

부모님과의 갈등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워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 질문에 진우 스님은 "자기 괴로움을 잠재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좋은 스승을 만나거나 정신적으로 위로가 되는 책을 읽는 것도 방법이 된다는 진우 스님. 스님은 "진부한 얘기지만 사회 탓, 부모 탓을 해봐도 기분 나쁜 내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부모가 자식에게 잘못하기까지의 수많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보라"고 말했다.

한 학생은 진우 스님의 '인과법' 설명에 "괴로움을 느끼지 않으려면 즐거움도 느껴선 안 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스님은 "즐거움이 괴로움에서 비롯됐다는 생각을 가지면 무언가로 즐거움을 느낄 때 집착하기보다 조금씩 멀어질 수 있다는 뜻"이라며 "반대로 괴로울 때 역시 즐거움에서 온 인과의 업이라는 걸 생각하면 괴로움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젊은 혈기에 쉽진 않겠지만 즐거움을 즐기되 그것에 집착하거나 또 그렇게 해야겠다는 욕심을 버리는 쪽으로 노력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다른 학생은 행정가인 총무원장과 수행자인 스님으로서 서로 다른 역할이 충돌할 땐 어떻게 해결하는지 물었다.

이에 진우 스님은 "그럴 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답해 학생들에게 웃음을 안겼다. 스님은 이어 "슬기롭게 잘 살피겠지만 보통은 규범과 정의에 따라 선택한다"며 "무엇을 택하든 후유증은 있다. 하지만 이를 감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시간에 걸친 강연에서 연기와 인과를 이해해 대학생불자들이 지금과는 다르게 세상을 바라봤으면 한다고 밝힌 진우 스님. 스님은 끝으로 '무애자재(無碍自在)'를 강조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초기경전 〈숫타니파타〉를 인용해 "청년불자들이 불교를 접해 평안함을 얻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천태종 신임 총무부장에 동강사 주지 시용 스님



천태종 총무원 총무부장에 양구 동강사 주지 시용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천태종은 8월 8일 시용 스님에게 총무원 총무부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에 따라 시용 스님은 당연직인 금강신문(주) 사장 겸 편집인을 비롯해 종단 안팎의 주요 소임을 맡아 활동하게 된다.

시용 스님은 1984년 대충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한 뒤 천태종 총무원과 전국 주요 사찰의 주지 소임을 맡아 종단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19년 3급 중대사(重大師) 법계를 품수했다.

구인사 강원을 수료한 스님은 학업에도 매진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에서 불교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를,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 경영학 박사학위를 잇따라 취득했다. 또 불교학박사 학위과정도 수료했다.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법인사무처장, 원광대 경상대학 경영학부 강의전담교수와 겸임교수, 구미장애인종합복지관과 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 관장을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전국비구니회장 선거 9월 18일

선출위원장에 정운 스님 8월 25~27일 후보 등록

조계종 전국비구니회를 이끌어갈 차기 회장 선거가 9월 18일로 확정되면서 비구니회가 회장 선출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전국비구니회는 8월 8일 서울 일원동 전국비구니회관 2층 회의실에서 제13대 비구니회장 선출위원회의를 개최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전국비구니회는 회장선출위원회를 구성했다. 회장선출위원회는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해 집행부 3인, 운영위원회 임원 3인, 지회장 3인, 외부인사 2인으로 구성됐다. 선출위원장에는 정운 스님, 간사에는 비구니회 총무국장 설해 스님이 선임됐다.

선출위원장 정운 스님은 인사말에서 "이번 선거는 12대 집행부에서 제정한 선거법을 토대로 치르는 첫 선거로, 선거법에 따라 회장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과거 선거법이 제정되지 않아 혼란을 겪었던 만큼 이번 선거는 위원 모두 각자 역할을 인지, 공명한 선거가 정착돼 비구니 선거에 한 획을 그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집행부에는 부회장 능인 스님과 총무부장 현진 스님, 총무국장 설해 스님이, 운영위원회에는 경북1지회 임대 스님과 서울지회 정목 스님, 강원지회 재범 스님이 활동한다. 지회장에는 인천지회장 일지 스님과 충북지회장 희원 스님, 경남1지회장 도수 스님이, 외부인사로는 회칙제개정위원장 정운 스님과 원로 · 명사추대위원 계호 스님이 위원을 맡았다.

이날 선출위는 △선거 일정의 건 △선거 세부 사항의 건 △단일후보의 경우 당선인 결정의 건 △선거 당일 세부 일정의 건을 안건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선출위원회는 회의에서 8월 17일 선거공고 후 8월 25~27일 후보 등록을, 8월 31일 후보자 자격심사를 하기로 했다. 선거 운동기간은 8월 25일부터 9월 17일까지며 회장 선거일은 9월 18일이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태고종 "부산엑스포 유치 함께 기도"

총무원장 상진 스님 8월 7일 박형준 부산시장 만나 환담

부산시가 2030부산엑스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태고종이 힘을 보탤 것을 다짐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8월 7일 부산시청을 방문해 박형준 부산시장과 만나 2030부산엑스포 유치와 부산 발전을 기원했다.

이 자리에는 행정부원장 능해 스님, 총무부장 도성 스님, 사회부장 도휘 스님, 홍보부장 원심 스님, 사서실장 원오 스님 등 태고종 총무원 주요 소임자와 태고종 부산교구 종무원장 마나 스님, 부산교구 포교원장 혜공 스님, 박형준 시장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상진 스님은 무엇보다 부산 발전의 계기로 꼽히는 2030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불자들의 간절한 기원을 전했다.

상진 스님은 "전국 태고종 사찰은 현수막을 걸어 부산엑스포 유치가 이뤄지도록 사부대중이 함께 기도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며 "앞으로 부산 발전을 위해 후원과 지지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강조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비롯한 종단 스님들이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나 부산엑스포 유치에 힘 쏟을 것을 다짐했다.

상진 스님은 특히 "태고종 영산재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그 가치를 전 세계에서 인정받았고, 해마다 서울에서 문화유산의 가치를 전해왔다"며 "부산에서도 세계의 축제 속에 찬란한 불교문화의 향연을 선보이는 인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교구 종무원장 마나 스님은 "불교는 역사 속에 흥망성쇠를 함께하고 국민들의 정신적 지주로서 역할을 다해왔다"며 "이번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에서도 역사 속 불교의 역할을 다시 일깨우고 국민 행복을 위해 기도하고 힘을 쏟을 것"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무엇보다 스님과 신도들의 염원이 모여 부처님의 법력이 되고 부산엑스포 유치에 큰 힘이 되어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K-불교명상 개발 위해 국내외 명상법 전수조사

조계종 미래본부, 4개월간 추진

명상 대중화를 위해 명상 프로그램 개발과 도심 명상센터 건립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인 조계종 미래본부가 국내외 명상프로그램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계종 미래본부는 8월 2일 개최한 명상프로그램개발연구위원회 6차 회의를 통해 이 같은 사업을 추진키로 결의했다. 연구위는 명상을 현대적인 포교방법론으로 대중화하고, 사찰이 지역 명상센터로 자리 잡거나 종단 차원의 명상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국내외 명상프로그램을 전수조사 하고, 단계적으로 분류해 대중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시하겠다는 취지. 국내외 불교 명상뿐만 아니라 타종교 명상, 비종교 명상 프로그램이 모두 포함되며 각 명상센터의 위치와 시설, 종교성, 운영방식도 포함된다. 조사기간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이다. 윤호섭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제13대 회장 입후보 등록 및 임시총회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입후보 등록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에서는 제13대 회장 선출을 위하여 회장 입후보자 등록을 받고자 하오니 아래의 입후보자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기간 : 8월 25일(금)~27일(일)
▶ 자격요건 : 본회 홈페이지 참조(www.kbhiksuni.org)
▶ 구비서류
1) 수행이력서 1부
2)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각 1부
3) 반명함판 사진 3매
4) 취임 후 전국비구니회 운영계획서 1부
▶ 등록마감 : 2023년 8월 27일 17:00시 (도착분에 한함)
▶ 문 의 : 02)3411-8103~5, 010-8248-8103

전국비구니회 회장선출위원장 정운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임시총회

전국비구니회 회칙 제4장 18조에 의거, 제17차 임시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전국의 비구니스님들께서는 금번 총회에 적극 참여하시어 전국비구니회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기여해 주실 역량 있는 회장 선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회일시 : 2023년 9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전국비구니회관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31길 56)
▶ 안 건 : 제13대 전국비구니회장 선출의 건
▶ 준 비 물 : 가사, 장삼, 승려증
▶ 문 의 : 전국비구니회 종무소
☏ 02)-3411-8103~5/010-8248-8103

※ 총회 참석 시 승려증을 필히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지참시 선거에 참여하실수 없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본각

진각종, 금강원 성역화 불사 '본격화'

회당 대종사 탄생지 치유공간으로 변모 위해

8월 1일 울릉도 금강원서 봉행
명상 · 문화체험장 등 조성 계획
특별 건립 기금 전달식도 열려
"울릉도 대표 문화 공간 될 것"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진각종은 8월 1일 울릉도 금강원 내 특설무대에서 '금강원 성역화 지진불사'을 봉행했다.

진각종조 회당 대종사의 탄생 인연을 새롭게 펼치는 금강원의 성역화가 원만히 추진되길 서원하는 불사가 봉행됐다.

진각종(통리원장 도진)은 8월 1일 울릉도 금강원 내 특설무대에서 '금강원 성역화 지진불사'를 봉행했다. 행사는 통리원장 도진 정사, 종의회의장 덕운 정사, 현정원장 능원 정사, 교육원장 효명 정사, 회당학원 이사장 상명 정사 등 종단 스승과 총지종 통리원장 우인 정사, 보문종 총무원장 인구 스님, 총금강회장 정명 각자, 문화체육관광부 김대현 종무실장, 남한권 울릉군수 등 사부대중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통리원장 도진 정사는 인사말을 통해 "진각성존 회당 대종사 열반 60주년과 회당문화축제 20회가 되는 해를 맞아 명상과 문화를 아우르는 전당 건립을 포함한 금강원성역화불사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새롭게 구축될 공간은 회당문화축제를 처음 시작했던 초발심처럼 울릉군민의 쉼터이자 문화와 복지향상을 지향하는 자리이자, 불교문화와 울릉도 역사전승을 위한 유산으로 자리하는 가운데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새 터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성지조성위원장 경일 정사는 강도발원에서 "회당 대종사의 탄생성지에서 현대인들이 명상과 힐링을 쉽게 체험하면서 자신의 삶을 개혁할 수 있는 큰 복전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종단이 뜻을 세우고 종도가 받들어서 이루어지는 금강원 성역화불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부처님과 종조님의 크나큰 은혜에 보답하며 이 땅에 심인불법의 정토가 하루빨리 건설되기를 간절히 서원한다"고 발원했다.

총지종 통리원장 우인 정사는 축사를 통해 "이곳 금강원 성역화를 통해 진각의 출발점이면서도 대종사님의 숨결이 가득한 이곳에서 '대중 속의 불교', '대중과 함께하는 불교'를 강조한 대종사님의 큰 가르침이 다시 널리 퍼져 나가기를 서원한다"며 "지진불사의 인연공덕과 동참대중의 원력으로 헌공불사까지 원만히 회향되어 진각종 정신문화의 요람이자 새로운 교화의 터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발원한다"고 전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도 "울릉군수로서 울릉군에 금강원이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는다. 또한 회당문화축제가 울릉도에 끼친 공헌도 지대하다"며 "금강원 성역화불사가 원만히 성취되고, 회당문화축제의 정신 또한 꾸준히 발전시켜서 울릉도와 금강원이 함께 영원히 빛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금강원 성역화 불사의 원만회향을 서원하는 '특별 기증식'을 통해 총지종 통리원장 우인 정사가 1000만 원, 보문종 총무원장 인구 스님이 500만 원, 울릉도 여래심인당 신교도(금강회장 선정제 보살)들이 600만 원, 회당문화축제 예술감독 스태프미래 이상종 대표가 500만 원의 건립 기금을 전달했다.

한편, 울릉도 금강원은 진기 30(1976)년 제1차 금강원성역화불사를 시작으로 진기 40(1986)년 제2차 성역화불사에 이어 진기 77(2023)년 제3차 성역화불사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서원에 호응하여 거듭 변모의 과정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제3차 울릉도 금강원 성역화 불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울릉도에 시설을 개선해 수려한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명상체험, 불교문화체험, 전통문화체험 및 힐링 공간 조성으로 각종 스트레스로 지친 현대인들을 위한 치유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불사다. 또한 회당 대종사의 탄생지로서 지역인물 선양을 통해 지역 스토리를 전달하는 활동으로 지역민 자긍심 제고와 문화격차 해소의 염원을 담고 있다.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에 머리 맞댄다

8일 대학생전법위 연석회의서
9월 5~6일 워크숍 방향 논의
MZ세대, MBTI 이해 강의 등
세대 공감, 소통 강연 예정돼

대학생 전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불교 사부대중이 머리를 맞대는 워크숍이 열린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MZ세대를 이해하기 위한 전문가의 강연부터 권역별 대학생 포교 방안 논의까지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상월결사(회주 자승)는 8월 8일 동국대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대학생 전법위원회 집행위원회 · 정책기획단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연석회의에서는 9월 5~6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과 마곡사 일원에서 열리는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 워크숍' 계획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발표된 계획안에 따르면 대학생 전법위원회 워크숍은 MZ세대 · MBTI 이해 등 2030세대와의 소통과 공감을 위한 실사구시적인 전문 강의, '왜 대학생 전법인가'를 주제로 한 현재 불교 포교의 현주소와 이웃종교 사례를 분석한 강의가 진행된다.

강연 이후에는 약 400명의 전법위원들이 권역별로 대학생 불자 양성 방안을 논의하는 토크콘서트와 △대불련 지도법사 운영사례 공유 △불자교수, 대학생 소통 △이웃종교 대학생 전도 유형 등을 살피는 토론도 진행된다. 이 같은 토론을 통해 권역별로 '2023 추진 목표 및 계획안'을 발표한 뒤 워크숍은 마무리된다.

이에 앞서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회 집행위원회 · 정책기획단은 8월 24일 오전 9시 30분 동국대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예비워크숍도 진행한다. 예비워크숍을 통해서는 취합된 교구별 전법위원들의 의견들을 살피고 세부 워크숍 계획안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회 집행위원장 원명 스님은 "워크숍은 대학생 전법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현재 계획안을 교구 대중과 공유해 의견을 보내주면 취합해 더 나은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석회의에서는 각 교구별 지원 대학 선정안과 지원 계획 등이 공유되기도 했다. 금산사의 경우 전북대, 전주교대, 전주대, 원광대 등을 중심으로 전법을 추진한다. 또한 대학생 전법 예산으로 3000만 원을 조성했으며, 이를 통해 대학생 동아리에 매월 50만 원씩 활동비를 지원키로 했다.

봉선사는 권역 내 대학교의 불교 동아리가 전무해 동아리 설립을 장기 목표로 삼았다. 단기적으로는 광릉숲을 이용한 생태체험을 각 대학에게 제안해 대학생들과의 인연을 맺어나갈 계획이다. 선운사는 군산 소재 호원대에 베트남, 태국 유학생들이 많은 것을 감안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전법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청소년이 주인공"…나란다축제 9월 2일 개최

상월선원 안거 · 순례 체험부터
K-댄스 · 전통예술경연대회까지
청소년 진학 · 진로 엑스포 등
학생기획위원단 주체적 계획

상월결사 대작불사 정신이 불교계 최대 청소년 교학축제인 나란다축제로 이어진다.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조계종 포교원과 함께 9월 2일 서울 동국대 일원에서 '제15회 나란다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상월결사의 대작불사들을 서울 동국대에 구현, 청소년과 사부대중이 직접 상월결사 안거와 순례를 체험하는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8월 9일 동국대 로터스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15회 나란다축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나란다축제는 전통문화체험 '내가 K다', 진학 · 진로 엑스포 '꿈의 지도', 전통과 현대의 어울림마당, 학생기획위원단 '내 손으로 빚어낸 꿈' 등 4가지 파트로 구성된다.

'내가 K다'에서는 상월선원 정신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스님들의 청규를 경험할 상월선원 안거체험은 9월 1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서울 동국대에서 열린다. 안거체험은 전통문화의 심도 있는 체험을 통한 상월결사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축제 참여 사대부중이 모두 참여하는 상월결사 순례체험 '남산에서 인도를 걷다'는 2일 오전 10~11시 서울 동국대 및 남산 일원에서 개최된다. 묵언과 더불어 남산 일원 문화유적 탐사 및 걷기 순례체험 등으로 진행된다.

이 밖에도 중고등학생들의 진지한 교학연찬을 뽐낼 '불교교리경시대회', 어린이 천진불들의 불교겨루기 '도전! 범종을 울려라', K-명상을 비롯한 전통불교문화를 체험할 '청소년 전통문화 한마당'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 축제에서도 진행되는 진학 · 진로 엑스포 '꿈의지도'는 국내 유일 전국 청소년축제인 나란다축제에 걸맞게 청소년들이 가장 관심 있는 진학 · 진로에 대해 사회저명인사부터 2024년도 대학신입생까지 청소년의 정보갈증을 해갈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연사들을 섭외했다.

청소년들의 끼와 열정이 펼쳐질 전통과 현대의 어울림마당은 나란다축제를 통한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한류문화를 이끌 인재를 찾는 나란다 K-댄스 경연대회와 제15회 나란다축제의 피날레가 돼줄 회향한마당이 구성됐다.

특히 국악을 비롯한 전통예술에 대한 청소년들의 진지함을 엿볼 '전통예술경연대회'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침체돼 있던 전통예술을 다시 중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음악에 대한 역할과 인지도를 제고하고 전통 국악인과 국악 교육자를 양성, 전문 국악 연주자로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축제가 더욱 뜻깊은 이유는 청소년이 직접 기획, 운영하는 축제라는 점이다. 7월 모집한 학생기획위원단은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나란다축제를 청소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행사로 꾸며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통문화를 익히고 리더십을 키워 문화 및 불교를 이끌어갈 인재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집행위원장 성효 스님은 "상월결사의 또 다른 모습으로 나란다 이념이 전승되어 가는 축제로 발전했다"면서 "해가 갈수록 건강한 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동국대 개방이사에 송일호 · 김기유

8월 8일 제350회 이사회서


송일호


김기유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돈관) 개방이사에 송일호 동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김기유 동국대 이사가 선임됐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회는 8월 8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제350회 회의를 열고 임기 만료를 앞둔 김기유, 민병덕 이사 후임을 선출했다. 이날 이사회는 9월 15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기유 이사에 대해 재임을 결정했으며, 9월 24일 임기가 만료되는 민병덕 이사의 후임으로는 송일호 동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를 선임했다.

새로 이사로 선임된 송일호 명예교수는 동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텍사스 공과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5년부터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로 교편을 잡았으며, 2021년 정년퇴직했다. 동국대 불자교수회장,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을 역임하는 등 불교계 활동도 꾸준하게 해왔다.

김기유 이사는 동국대에서 학사와 석 · 박사를 취득한 동국인이다. 태광그룹 동림건설 대표이사, 대한화섬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고, 현재 태광그룹 대표이사로 활동 중이다. 신성민 기자

사단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 종도모집

귀의 삼보하옵고
새로운 불교 종지종풍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사)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의 모습을 정립하고자 하는 큰 서원과 상구보리 하화 중생의 책무로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였습니다. 본 종단과 함께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의 종도 스님을 모십니다.

총 무 원 장 연암당 덕평 스님
종 회 의 장 국 담 민호 스님

종도스님 열반시 종단에서 49재 봉행

연락처 : 총무원장 덕평 스님 010-6219-4757 / 이사장 법오 스님 010-2357-7747
주소 : 인천시 남동구 인주대로 888번길35 2동205호

우아한 한복 입고 사찰 여행 함께 하실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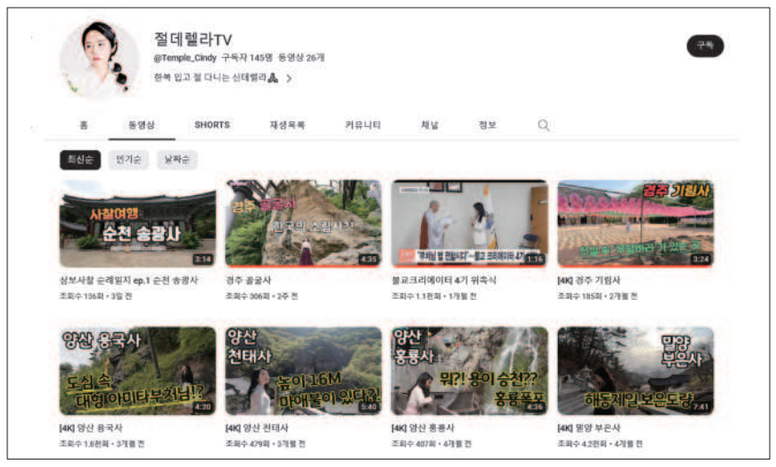
'4기 불교크리에이터'를 만나다

③ 절데렐라TV 이서윤

아름다운 자연과 사찰 멋 · 깊이
한복 입고 소개하며 감동 선사
변화 시대 활용될 콘텐츠 생산
다국적 인플루언서 협업 구상도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이서윤 불교크리에이터



한복 입고 사찰 소개에 나선 영상들이 가득한 유튜브 채널 '절데렐라TV'

"우아한 한복을 입고 사찰에 방문하는 것은 불교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또 사찰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는 불교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편 아닐까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사찰에 방문하는 영상으로 가득한 유튜브 채널 '절데렐라TV' 로 조계종 포교원 불교크리에이터 4기에 위촉된 이서윤 크리에이터의 콘텐츠에는 '겸손' 과 '아름다움' 이 강조된다. 채널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사찰의 멋과 깊이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싶다는 게 이서윤 크리에이터의 설명이다.

이서윤 크리에이터에게 자연과 조화를 느끼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찰에 가는 것은 자기 성장을 도모하는 길이다. 때문에 절데렐라TV는 '양' 보다 '질' 을 우선시한다. 많은 곳을 찾아가 영상을 생산해 내는 것이 아닌 한 개의 영상을 만들더라도 불교를 가치있게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찰 촬영 협조에 관련해 종무소에 사전 연락하지 않아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너무 부담을 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촬영 금지 구역도 무리하게 시도하지 않죠. 자연스러운 영상 연출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예요."

절데렐라TV에 대한 이서윤 크리에이터의 신념을 보여준다. 불자가 아니던 시절, 가끔 마음이 답답할 때 절에 가곤 했다는 이서윤 크리에이터는 따뜻하고 조용한 사찰에서 마음이 비워지는 느낌이 너무 좋아 자연스럽게 절을 방문하게 됐고 그렇게 불자가 됐다. 절을 자주 오가다가 사찰을 소개하는 채널에도 관심이 생겼다. 절데렐라TV를 개설하기 전 다양한 사찰 콘텐츠를 먼저 살펴봤다는 이서윤 크리에이터는 "불교만의 특유의 아름다움과 심미적 요소가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딱딱한 느낌으로 다가왔다"면서 "불교 영상미를 더하고 불교의 가치와 미의 전달을 효과적으로 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뜨거운 여름이건, 추운 겨울이건 한복을 입고 사찰을 가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다. 많은 사찰들이 깊은 산기슭에 자리 잡고 있기에 한복 치마를 잡고 돌계단을 오를 때는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짜릿한 성취감은 영상제작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된다. 사찰마다 한복 콘셉트 및 치마 색상까지 하나하나 정해 본래 분위기와 잘 어울리게 구상한다. 이 또한 손이 많이 가는 일이지만 조화로운 영상을 생각하며 고민을 거듭해가며 하나씩 결정한다.

다양한 아이디어로 똘똘 뭉친 이서윤 크리에이터는 교육학 박사과정 중임과 동시에 대구사이버대학교 인플루언서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 불교크리에이터로 위촉된 만큼 불교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 불교 가르침과 용어를 설명하는 콘텐츠부터, 불교 Q&A, 찬불가 플레이 리스트 등이 그것이다. '미디어 채널 협력' '불교 숏폼 공모전 주최' '다국적 인플루언서 협업' 등 불교계에 건의하고 싶은 사업들도 무궁무진하다.

이서윤 크리에이터는 "종교적 다양성과 개인적 신념의 자유가 중요시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20~30대 세대들이 열린 마음으로 불교를 이해하고 영감과 내면적 성장을 추구하는데 절데렐라TV 콘텐츠가 활용되길 바란다"면서 "변화하는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불교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소개해 나갈 것"고 말했다.

봉선사, '화엄종주' 월운 대강백 49재

8월 3일 경내 큰법당 앞에서 엄수
1천여 대중, 월운 스님 덕화 기려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조실 '화엄종주' 월운당 해룡 대강백의 49재가 8월 3일 봉선사 큰법당 앞에서 엄수됐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49재에는 봉선사의 가장 큰 어른인 밀운 대종사를 비롯해 조계종 원로의원 일면 대종사 등 문중스님들과 생전 월운 대강백과 인연을 맺은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 봉선사 경내를 가득 메웠다.

오전 8시부터 두 시간 넘게 진행된 영산의례는 종단의 의례를 대표하는 스님들이 도맡았다. 어산어장 동주 스님을 비롯해 어산종장 화암 스님, 법안 스님, 도피안 스님 등이 시련과 대령 · 관욕을, 동환 스님과 법천 스님이 신중작법을 맡았다. 또 꽃과 과일로 장엄된 월운 대강백의 영단에는 고려대장경 등 생전 스님이 역경한 경전들이 줄을 지어 자리 잡았다.

49재 법요식에서는 일면 대종사가 헌향을, 문도대표 철안 스님이 헌다를, 의정 대종사와 정원 대종사가 각각 헌화하며 월운 대강백의 덕화를 기렸다.

이어 밀운 대종사는 조사를 대신해 "월운 큰스님께서는 열반하시는 순간까지도 어떻게 하면 부처님 가르침을 중생이 알아들을 수 있을지 고민하셨다"며 "스님의 영결식과 49재는 문중장이 아닌 국가장으로 모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고려대장경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한글대장경으로 완간한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고 월운 대강백을 상찬했다.


조계종 원로의원 밀운 대종사가 월운 대강백 영단에 헌화한 뒤 삼배를 올리고 있다.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은 추모사에서 "스님을 모시고 살았다기보다 스님의 덕화 그늘에서 살았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며 "살아가며 여쭐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여쭐 수 있었는데 이제는 스님의 법체존안 뵙고 여쭐 수 없으니 가슴이 메인다"고 슬픔을 토해냈다.

주호영 국회정각회장은 월운 대강백의 업적을 하나씩 언급한 뒤 "화엄종주 대강백으로서 남기신 방대한 역경과 저술은 불멸의 문자사리가 돼 중생에게 영원히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줄 것"이라고 추모했다.

49재의 법어는 현 동국역경원장인 혜거 대종사가 맡았다. 혜거 대종사는 월운 대강백을 향한 헌시를 통해 "왼손에 경전을 펼쳐 드시고 설한 달변의 법문은 은하수 물결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듯 중생을 일깨웠다"고 강조했다.

연꽃유치원생부터 재가제자, 광동학원 관계자와 신도들의 헌화에 이어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은 월운 대강백의 영결식을 비롯해 49재까지 함께해준 대중에 감사를 표하고 "후학들은 월운 큰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평생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윤호섭 기자

포교원, 백제불교 · 큰스님 발자취 따라 순례길 개발

예산 경허 · 만공의 길, 서산 백제미소의 길
백중 의미 · 유래 · 실천 담은 책자 발간 배포

'지혜의 숲길' 순례프로그램 개발사업을 통해 새로운 신행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있는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이 백제불교와 큰스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순례길을 개발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8개의 순례길을 만든 포교원은 올해 〈강릉 해맞이 길〉 〈연화낭자의 길〉에 이어 〈예산 경허 · 만공의 길〉과 〈서산 백제미소의 길〉을 개발, 최근 공개했다.

이번에 개발한 〈예산 경허 · 만공의 길〉과 〈서산 백제미소의 길〉은 내포문화숲길로도 유명한 서산 · 예산의 길 가운데 불교와 관계가 깊은 길들로 선정됐다. 서산과 예산은 중국과의 문화교역 요충지이자 백제 불교의 토양이 되던 지역이며, 한국 근대 불교의 선승인 경허 스님과 만공 스님이 주석했던 선불교로 명성을 떨쳤던 곳이다.

〈예산 경허 · 만공의 길〉은 대한불교 조계종 제7교구본사인 수덕사를 출발해서 덕숭산 주변 사찰을 순례할 수 있는 '만공 스님 순례길' 과 경허 스님이 머물렀던 천장암까지 스님 발자취를 따라 걸을 수 있는 '경허 스님 순례길' 로 개발됐다. 만공 스님 순례길은 4.2Km 3시간, 경허 스님 순례길은 7.2Km 약 4시간이 소요된다.

〈서산 백제미소의 길〉은 서산 마애삼존불과 보원사, 개심사, 가야사지 등을 두루 살피며 상왕산의 아름다움과 서산에 남아 있는 백제 불교의 자취를 두루 느껴볼 수 있는 순례길이다. 이 길은 서산 마애삼존불부터 보원사, 개심사, 용현휴양림을 거쳐 다시 삼존불로 돌아오는 '숲 한 바퀴 순례길' 과 서산 마애삼존불부터 가야산 통통고개를 넘어 가야사지까지 가는 '걷기 좋은 순례길' 로 구성됐다. 각각 8Km, 9Km이며 약 3시간이 소요된다.



포교원에서 개발한 순례길 팜플렛은 조계종 홈페이지-포교-포교자료-법회와설법-문서 메뉴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순례길을 개발, 우리 사찰의 아름다운 길에 기억에 남을 이야기를 담아 국민들과 함께 사유하고 치유하는 수행공간으로 활용해 나갈 예정"이라며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교원은 수행정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불교 4대 명절과 더불어 중요한 명절로 꼽히는 백중에 관한 책자도 제작했다.

이 책자는 포교원 설법 자료를 토대로 간략하게 재구성됐다. △백중의 의미 △유래 △실천방법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포교원 불교 크리에이터 4기인 현밀 스님이 백중의 유래를 인스타툰으로 제작해 그 의미를 더했다. 자세한 내용은 포교원 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책자는 지난해 배포한 불교 4대 명절 소책자에 이어 사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구본사 및 직영사찰, 전법중심도량 등의 사찰에 배포된 상태다.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사부대중 모두가 백중의 의미를 되새기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한다"면서 "포교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포교 영역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고창 선운사, 전주 에코시티에 포교당 건립

전주 에코시티지구에 부지 계약
8월 4일 교구종회서 건립 승인해

조계종 24교구 선운사(주지 경우)가 전주 신흥개발지 에코시티에 포교당을 건립한다.

선운사는 8월 4일 선운사 템플스테이관에서 교구종회를 개최하고 옛 35사단이 주둔하고 있던 에코시티 종교용지 1,697㎡ (513평)을 24억 9천여 만원에 전주시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날 교구종회의 승인을 마쳤다.

선운사는 고창불교회관을 건립한 데 이어 그동안 광주와 전주 등 인근 대도시에 포교당 건립을 모색하던 중 마침 35사단이 주둔하고 있던 부지에 조성하고 있는 전주 에코시티 체비지 매각 공개모집에 응찰, 계약을 체결했다.

선운사는 부지 매입대금 마련을 위해 종단에 기채 승인을 요청 이미 승인을 얻었고 교구내 사찰 중 종교용지 매입을 지원하기 위한 사찰을 지정했다. 매입지원 사찰은 선운사, 도솔암, 내소사, 내장사, 개암사, 동국사, 강천사, 문수사, 덕림사 등 9개 사찰이다.



이날 교구종회에서 장경사 주지 진용스님, 동국사 주지 재안 스님, 개암사 주지 종고 스님이 각각 1억, 범현 거사는 5천만원의 성금을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에게 전달했다. 순창 만일사와 부안 혜원사는 이미 각각 1천만원의 종교부지 매입성금을 전달한 바 있다.

선운사는 포교당 건립을 필요성을 설명하고 전 교구 구성원의 역량을 모아 종교용지 땅 1평사기 등 사부대중의 동참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이날 교구종회에서는 동명 스님, 재연 스님, 재석 스님, 철산 스님을 24교구 대종사 법계위원회에 추천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교구 종회에 앞서 조계종 24교구 계묘년 하안거 포살법회가 봉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도선사, 집중호우 희생자 합동위령재 봉행

주지 태원 스님 "동체대비 마음으로 슬픔 나누자"

호국참회 기도도량 서울 도선사가 충청 이남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다.

도선사(주지 태원)는 8월 1일 경내 호국참회원 3층 강당에서 '전국 집중호우 희생자 합동위령재' 를 봉행했다. 위령재에는 주지 태원 스님을 비롯해 도선사 국장단, 각 신행단체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도선사는 '계묘년 홍수피해 수해 희생 각 열위열명 영가' 위패를 마련했다.

영단에 헌향과 헌화를 마친 태원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희생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스님은 "우리 사회는 재해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있을 때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항상 지켜지지 못하고 인명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통곡하는 유가족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슬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부처님의 지혜와 광명이 비춰주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도선사가 봉행한 집중호우 희생자 합동위령재에서 펼쳐진 살풀이.

태원 스님은 이어 〈유마경〉 불국품의 '중인불청 우이안지(衆人不請 友而安之)' 를 인용하며 "여러 사람이 청하지 않더라도 먼저 다가가 그들의 벗이 돼 편안하게 해준다는 말처럼, 우리는 이웃이 서로 신뢰하며 함께 웃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생명나눔, 전경자 · 배근호 홍보위원 위촉

일면 스님, 8월 7일 임명장
임기는 2025년 8월 6일까지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8월 7일 서울 본부 회의실에서 신규 홍보위원 위촉식을 진행하고 전경자 전경자 컬렉션 대표와 배근호 성악가 등 2명을 신규 홍보위원으로 위촉했다. 홍보위원 임기는 2025년 8월 6일까지다.

이번 신규 홍보위원 위촉은 사회 각 계각층에서 영향력 있는 이를 위촉, 생명나눔 홍보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신규로 위촉된 전경자 홍보위원은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위원으로 위촉돼서 기쁘다"면서 "앞으로 생명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경자 홍보위원은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공동대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받아 이번 신규 홍보위원으로 위촉됐다. 서울특별시장 표창장(201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장(2014), 통일부장관 표창장(2020)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위원으로 위촉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했다. 그러면서 "각각 분야에서 생명나눔 문화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면서 신규 홍보위원들에게 "생명나눔의 소중한 뜻과 그 목적을 좀 더 많은 대중들에게 널리 전파해 생명나눔 활성화와 올바른 문화 정착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임은호 기자

공불련 회장에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2025년 7월 20일까지 2년간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이하 공불련) 제13대 회장에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이 선출됐다.

공불련은 8월 1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코로나19 확산 및 예방에 따른 국가위기 이후 총회 등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다 전임 회장 임기 만료에 따라 2023년 임시대의원 총회를 부득이하게 서면결의로 실시, 신임 회장을 7월 21일 선출했다"고 밝혔다. 정 신임 회장의 임기는 2025년 7월 20일까지 2년간이다.

앞서 공불련은 7월 3~20일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체단체불자회 등 29개 기관 불자회 대의원 61명의 만장일치 서면결의를 거쳐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정승윤 신임 회장은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25기)해 서울남부지검,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산지검 검사 등으로 근무했다. 부산대 법과대학(행정소송실무)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공법소송실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부위원장(차관급)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소임을 맡고 있다. 임은호 기자

“K-불교 원더풀”…세계 청소년 韓불교에 빠지다

금산사, 선운사 등 호남 사찰들
템플스테이 영외체험 인기몰이
폭염에 일정 바꿔 물놀이 제공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에 호응↑
탑사엔 지역문화 탐방으로 찾아

조동제 전북지사장


김제 금산사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 스카우트 대원들.

전북 부안 새만금 일원에서 열린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서 영외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됐던 호남권 사찰들의 템플스테이는 스카우트 대원들에게는 폭염 속 단비가 됐다. 사찰들은 기록적인 폭염에 당초 예정된 프로그램을 변경해 경내 계곡을 개방해 대원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게 했다.

금산사(주지 일원)는 8월 1일부터 7일 조기 철수 전까지 매일 320명씩 템플스테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대회기간 중 총 2500명의 스카우트 대원이 참여했다.

금산사 영외활동 프로그램은 금산사의 역사와 국보 미륵전에 대한 안내, LED 연꽃 등 만들기, 붓글씨로 한글 소원지 쓰기, 미륵전을 배경으로 폴라로이드 사진촬영, 계곡 물놀이로 구성됐다.

이중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은 계곡물놀이로 폭염 속에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대원들에게 큰 활력소가 됐다는 후문이다. 당초 계곡 트레킹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었으나 대원들이 폭염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긴급하게 프로그램을 계곡 물놀이로 변경됐다.

금산사 앞 계곡에서 2시간동안 진행된 계곡 물놀이 프로그램은 물놀이를 하며 스카우트 대원들간 친목을 다지고 계곡에서 휴식을 취하는 프로그램이다. 금산사에서는 시원한 수박을 제공했다.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소방대원과 응급구조요원들을 대기시켜 놓았다.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도 이번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갖고 직접 한글 소원지쓰기 행사장에 나와 스카우트 대원들을 지도했다.

또한 금산사는 SNS를 통해 스카우트 대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일반 피서객들의 금산사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금산사 포교국장 응묵 스님은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에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좋은 기회라 생각해 전북지역의 주요사찰들이 불교문화체험과 템플스테이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면서 “세계 각국의 청소년 스카우트 대원들이 폭염으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잠시나마 계곡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게 배려했다”고 말했다.


부안 내소사에서 문화체험 중인 스카우트 대원들.


고창 선운사에서 대원들이 해먹 명상을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앨던(Aldan. 17세) 대원은 “날씨가 너무 더워 우리는 인도네시아 친구들과 함께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겼다”며 “시원한 계곡에서의 물놀이와 시원한 수박을 먹으며 휴식을 취했다. 다른 대원들도 금산사를 방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는 8월 1일부터 영외체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영외체험활동 첫날에만 오스트리아, 태국, 폴란드, 에스와티니, 인도네시아, 독일,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이탈리아 등 560명의 스카우트 대원이 참가했다.

선운사 템플스테이는 사찰 안내에 이어 성보박물관에서 다도명상 체험, 범종, 운판을 타종하는 사물체험, 인경체험, 한옥 건축체험, 불교체험관에서 불교문화 관람 등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극락교 건너 은행나무 숲에서는 황토길 걷기, 해먹 명상, K-POP 댄스, 외줄타기, 집라인, 그네타기 등의 체험활동이 진행됐다.

이날 선운사 영외체험활동에 참가한 각국의 스카우트 대원들은 처음 접해보는 한국의 문화와 불교문화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 다도명상의 경우 매우 진지한 태도로 임했고 준비한 다식과 떡을 남김없이 먹으며 연신 엄지를 치켜들었다. 전각을 바라보며 신기한 표정을 지으며 불교건축에 대해 질문을 하며 관심을 표하는 대원들도 눈에 띄었다.

은행나무 숲에서 진행된 집라인, 외줄타기등 외부활동에서는 환호성과 웃음이 끊임없이 터져나왔고 K-POP 댄스 활동에서는 다함께 춤을 추며 각국 청소년들의 숨을 끼를 발산하기도 했다.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는 8월 1일부터 사찰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내소사는 스카우트 대원들의 편의를 위해 나무 그늘 아래에서 사찰안내를 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오전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오후에는 합장주 만들기, 바디체험 요가, 소원지 쓰기, 한국전통놀이 체험, 불교예절 등을 진행했다. 이중 전통놀이 체험을 제외하면 모두 냉방시설이 갖춰진 실내에서 진행돼 폭염으로 인해 지쳐가는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심신의 안정과 휴식을 제공했다.

특히 참가자들 대부분이 외국인인 점을 감안해 프로그램 진행자들을 모두 영어가 가능한 사람으로 배치해 통역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했고 보조 진행자들도 템플스테이 담당자의 지휘아래 일사분란하게 대원들의 체험을 도왔다.

전남대에서 영어요가를 지도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나희정 씨는 전남대 영문과 교수인 미국인 마크 교수와 함께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남편이 영어와 불어가 능통해 부부가 재능기부형태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나희정 씨는 “합장주 만들기 프로그램 중 모주에 대해 설명하자 진지한 표정으로 엄마에게 선물하고 싶은데 하나 더 만들어도 되느냐고 물어온 몰디브 출신 대원이 기억에 남는다”면서 “이번 스카우트 대회의 참가자들중 유럽출신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 내소사 체험활동에 도움을 주고 싶어 참가했다”고 말했다.

지역 탐방 프로그램으로 사찰 문화체험이 이뤄진 곳도 있다.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에는 개막부터 초기 철수 전까지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이 매일 방문했다.

시원하게 흐르는 계곡을 따라 마이산 탑사에 도착한 각국의 스카우트 대원들은 마이산의 독특한 모습에 놀라고 탑사의 돌탑 모습에 ‘원더풀!’을 연발했다. 마이산 탑사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수많은 돌탑을 작은 체구의 이갑룡 거사가 직접 쌓았다는 사실에 놀라는 표정을 짓기도 했다.

마이산 탑사 진성 스님과 붓다봉사단(단장 이재현)은 폭염 속에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는 스카우트 대원들을 위해 시원한 얼음생수와 간식을 제공했으며, 마이산 탑사를 방문한 모든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마이산 탐방로가 그려진 지도 손수건을 선물로 전달했다.

진성 스님은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참가한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한국문화와 불교문화에 대해 새롭게 알아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잼버리 사상 첫 수계법회

한국불교스카우트연맹
8월 6일 수계법회 봉행

각국 200여 스카우트 대원
“불자로 살겠다” 서원 세워


불교스카우트연맹은 8월 6일 새만금 잼버리 법당에서 잼버리 대회 사상 첫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수계증을 받고 기념촬영 중인 대원들.

전북 부안 새만금 간척지에서 열리고 있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에서 세계 각국 대원들을 대상으로 수계법회가 열렸다.

불교스카우트 연맹(총재 성행)은 8월 6일 잼버리 대회 종교행사일을 맞아 잼버리 법당 옆 종교활동장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봉행된 수계법회는 103년 세계잼버리대회 사상 첫 수계법회다.

한국불교스카우트 연맹 사무총장 수인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의 집전으로 시작된 이날 수계법회는 폭염을 고려해 약식으로 진행됐다. 〈천수경〉 봉독에 이어 성행 스님을 계사로 스카우트 오계를 설하고 참석한 200여 대원들은 불자로서의 서원을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다.

성행 스님이 “산 목숨을 사랑하라, 주지 않는 것을 탐내지 말라, 그릇된 생각과 행동을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술과 중독성 있는 물질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5계를 설하자 참석 청소년 대원들은 큰 소리로 “지키겠다”고 대답했다.

연비의식은 스님들이 불이 붙은 향 반대쪽으로 연비해 대원들을 배려했고 삼보륜과 연꽃 도장을 찍어줬다. 또 수계대원들에게는 단주를 채워줬다. 이어 선운사 혜수 스님이 등단해 오계에 대해 청소년들의 눈높이 맞춘 법문이 이어졌다.

이날 수계법회에 동참한 이다인(한국, 18세) 대원은 “대표로 수계증을 받게 돼 기분이 남달랐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면서 “6일차를 맡아 날씨가 너무 더워 모두 지쳐가고 있을 때 쯤 법당에서 부채 만들기도 체험하고 수계법회가 열려 모두 기분이 좋아진 듯 하다. 남은 기간 활동하면서 서로 도와가며 즐겁게 지내려 한다”고 말했다.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장 성행 스님은 “이번 수계법회를 통해 약식이지만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한국 불교의 수계의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었고 이들이 한국 불교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수계법회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처장 진경 스님이 참석해 스카우트 청소년들에게 햄버거 1천개를 스카우트 불교연맹 총재 성행스님에게 전달했다. 수계법회 후에는 동참한 대원들에게 전통 부채와 방석, 빵과 콜라 등 간식을 제공했다. 또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연희율동단이 대원들과 함께 어우러져 불교 무용과 댄스 공연을 펼쳐 대원들의 열렬한 호응을 이끌어 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템플스테이 부스, K-불교 홍보 효과 ‘톡톡’

문화사업단, 대회 기간 동안
템플스테이 홍보 부스 운영
하루 평균 1500여 명 방문해
인기 높아 하루 500명 제한도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명, 이하 문화사업단)이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기간 중 운영한 홍보부스가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한국의 사찰을 홍보하는 첨병 역할을 톡톡히 했다.

문화사업단은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가 열리는 8월 1일부터 7일까지 산사체험 템플스테이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당초 폐막일인 12일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조기 철수돼 7일까지만 운영했다.

대회 기간 동안 템플스테이 홍보부스에는 이승환 마케팅 팀장, 모아라 홍보팀장을 비롯한 8명의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상주하며 템플스테이 홍보부스를 찾는 대원들에게 한국의 불교문화 체험과 템플스테이를 홍보했다.

몽골식 텐트 4개동을 합친 약 30평 규모의 템플스테이 홍보부스에는 각국의 언어로 제작된 홍보책자를 배포하고 템플스테이 사진, 사찰음식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합장주 만들기와 불교전통문양 타투를 체험하는 ‘나홀로 타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템플스테이 홍보부스는 하루 평균 1500여 스타우트 대원이 방문할 정도로 늘 북적였다는 후문이다. 영어에 능통한 봉사자들은 방문객들에게 한국의 사찰문화를 친절하게 설명해 한국불교문화와 템플스테이를 홍보했다.

템플스테이 홍보부스에는 많은 대원들 뿐 만 아니라 일반 한국인 방문객들도 방문했다. 특히 합장주 만들기, 불교 전통문양 타투 체험프로그램은 하루 500명으로 제한해야 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템플스테이 홍보부스는 무더위에 지친 스카우트 대원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3대의 에어콘을 가동해 더위에 지친 스카우트 대원들이 쉬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합장주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가한 칠레 출신 카밀라 대원은 “합장주 만들기가 특별한 경험이었고 합장주가 너무 예뻐서 좋았다”면서 “한국의 템플스테이와 한국 불교를 이해할 수 있는 부스를 오픈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이어 “무더위로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잼버리 대회에 참가한 대원들이 너무 열정적이고 친절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광통역안내사로 일하다 자원봉사자로 참가한 김송이 씨는 “이런 국제행사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어 자부심을 느낀다. 외국인 대원들이 끊이없이 질문을 해 더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며 “외국인 대원들이 템플스테이와 스님들에 대해 인기가 높아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수행 방법 등을 알릴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아동교육’ 접목한 어린이 법회 재개

통도사, 9월 10일부터 매월 두 차례 진행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코로나19 팬데믹 해제 따라
프로그램 새로 기획해 제공
숲 체험 · 명상 · 예술 등 다양
초등생 대상…1 · 8월은 방학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가 코로나19로 인해 3년 동안 중단했던 ‘통도사 어린이 법회’를 재개하고 참여할 어린이를 모집한다.

통도사는 그동안 ‘건강하게 놀자’는 주제로 어린이 법회를 진행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왔다. 2020년 코로나19 안전 수칙 준수를 위해 법회를 중단했으나 완화된 방역 수칙에 따라 이번에 새 출발을 알렸다.

특히 통도사는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새롭게 재정비한다. 통도사는 지난 6월 30일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아동교육연구소’와 협약을 맺고 어린이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통도사 포교국장 혜명 스님과 동국대 WISE캠퍼스 아동청소년교육학과 학과장 혜명 스님이 참석했다.

협약식에서 학과장 혜명 스님은 “동국대 아동청소년교육학과 ‘불교아동교육연구소’가 좋은 프로그램을 다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동국대 학생들은 아동과 함께 하는 현장경험을 쌓고 전공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일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

통도사 포교국장 혜명 스님은 “불교아동교육연구소와 협약을 통해 통도사를 찾는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내비쳤다.

통도사 어린이 법회 ‘건강하게 놀자’는 동국대 불교아동교육연구소 이소정 연구원을 비롯한 ‘아동청소년교육학과’에서 동참 지도한다.

이에 따라 기획한 프로그램은 △숲 체험활동 △명상놀이 △창의력 예술활동 △문화와 놀이 등이다. 숲 체험활동은 세계문화유산인 통도사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에서 뛰어 놀며 자연을 관찰하고 탐구해 창의성과 감정을 일깨우는 활동이다. 아울러 자연체험을 통해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목표다. 명상놀이는 온몸의 감각을 깨우고 관찰하는 활동이며 신체를 자유롭게 표현해 창의성과 감성을 기르도록 돕는다. 어린이가 편히 명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음악을 활용해 감수성 개발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창의력 및 예술 활동은 자연과 친숙할 수 있도록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해 작품을 만들며 전시회도 열 계획이다. 문화와 놀이는 불교문화를 중심으로 체험하고 강강술래 및 제기차기 등 전통 전래놀이 경험도 제공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영축총림 통도사가 2018년에 진행한 어린이 법회. 아이들이 숲속에서 자연을 만끽하고 있다.

모집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며 법회는 9월부터 매월 2, 4주째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된다. 법회 시작일은 9월 10일이다. 점심식사는 사찰에서 제공하며 매년 1월과 8월은 방학이다. 법회 장소는 통도사 경내 ‘문수법당’으로 경내 일원에서 자연 체험활동이 이어진다. 신청방법은 통도사 홈페이지 어린이 법회 모집 안내 공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메일(sj2671640@gmail.com)로 보내면 된다.

통도사 어린이 법회 동참 학생들은 졸업 후 중 · 고등부 활동 단체인 ‘청소년문화재지킴이단’에 가입할 수 있으며, 진학 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연계 활동의 기회가 주어진다.

통도사는 “이번 어린이 법회 재개를 계기로 불교의 미래가 될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 통도사 산문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라며 관심을 독려했다. (055)382-7182

“성숙한 부모가 아이 성적 부담 낮춰”

범어사, 수능기도 입재 맞춰 토크콘서트 개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전국 사찰이 일제히 수능 100일 기도를 시작한 가운데 올바른 기도법을 안내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보운)는 8월 9일 범어사 선문화관 2층 카페에서 ‘아이와 나를 위해 기도하는 법’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사진〉 범어사 포교국장 눌은 스님은 콘서트에서 수능시험 전 남은 기간 갖춰야 할 부모의 자세를 주제로 강연했다.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눌은 스님은 2002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북지역 수석, 언어능력 부문에서는 전국 수석을 차지했다. 눌은 스님은 “학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성숙함이다. 행복을 위해 자녀를 격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스님은 “출가 전과 이후에도 많은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해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입시 성공이 아니라



고 강조하고 싶다”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돌아보고 더욱 현숙하며, 성공과 실패의 순간에도 응원하고 지지하는 학부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부모는 자녀가 근본적으로 자신과 다른 존재임을 인지해야 하며 자녀의 모습과 결과에 대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성숙한 기도 목표를 갖추고 일상이 기도가 되도록 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범어사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도 입재법회를 봉행했으며, 주지 보운 스님은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해 축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출 · 재가 명상 보급 ‘전초기지’ 일익

부산불교교육대학, 9월부터 다채로운 강의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이 스트레스로 힘겨워하는 현대인의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센터로 탈바꿈한다.

먼저 부산불교교육대학 승려교육원은 스님들을 위한 명상지도자 과정을 마련한다. ‘승려명상지도사’ 양성과정은 9월 7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6개월간 진행한다. 강사는 김경숙 (사)싱잉볼치유의소리 대표가 담당하며 강의 이수 후 별도의 절차를 거쳐 붓다볼 명상지도사를 취득하도록 돕는다. 개강식은 9월 7일 부산불교교육대학 강의실에서 오후 3시에 열리며, 이후 수업은 부산 두구동에 위치한 (사)싱잉볼치유의소리 센터에서 진행된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30명이다.

재가자를 위한 명상은 행복선(禪)명상센터가 담당한다. 개강은 9월 13일 오후 7시 합동입학식과 함께하며, 강의는 행복선명상센터장 하림 스님이 담당한다. 하림 스님은 〈대념처경〉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명상법을 습득하고 일상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명상법을 중심으로 직장인들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높인다. 모집인원은 총 60명.

한편, 부산불교교육대학은 다채로운 강좌를 개설해 하반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과목은 기초교리학과, 불교문화학과, 부동산융합풍수학과다. 기초교리는 매주 수요일 진행되며 강사는 학장 범혜 스님이다. 불교문화학과는 불교문화포교사(금요일), 불교문화 전문지도사(월요일)로 나눠 진행되며, 부동산융합풍수학과는 매주 화요일 수업 예정이다.

학장 범혜 스님은 “현대인들의 마음건강과 행복을 위해 명상 강좌를 개설하고 명상센터로 발돋움 하고자 한다”며 “도심 속에서 스님들과 재가자들을 위한 명상힐링 센터로 앞으로도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Weekly in 자비나눔

낙산사, 문화연수원 복구에 1억 원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공주 한국문화연수원 복구에 양양 낙산사 대중이 뜻을 모았다.

낙산사 주지 일념 스님을 비롯해 총도감 청현 스님, 각 국장단 스님들은 8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수해복구기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총무원 기획실장 성화 스님과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 불교신문 사장 삼조 스님도 함께했다.

한국문화연수원은 지난달 중부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 당시 공주지역은 누적 500㎜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다. 현재 연수원은 시설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얼마 전 수해복구를 돕기 위해 찾은 경북 예천을 언급하며 “여러 교구본사들의 도움으로 수재민을 지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더 이상의 비 피해가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삼조 스님은 “총무원장 스님이 수해지역을 찾아 기금을 전달한 모습이 귀감이 됐다”며 낙산사도 뜻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월정사, 종단 불사 · 수해복구에 1억 원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가 종단 핵심사업과 얼마 전 충청이남 지역에 발생한 수해 복구를 위해 1억 원을 희사했다.

월정사 총무국장 인광 스님과 재무국장 덕엄 스님, 원주 구룡사 주지 해공 스님, 오대산 상원사 주지 해량 스님은 8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이 같은 성금을 전달했다.

진우 스님은 “교구본사가 종단불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건네며 월정사의 단기출가학교 운영현황을 물었다.

이에 인광 스님은 “회당 40명, 연간 80명 정도 인원이 참가하고 있다”며



“지난 20년간 참가자 중 350명 정도 출가할 정도로 큰 의미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종단 차원의 명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전 세계 명상법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진우 스님은 “월정사의 노하우가 많으니 명상 보급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윤호섭 기자

선운사, ‘천년을세우다’ 4000만 원 기탁

조계종 제24교구본사 고창 선운사 본 · 말사가 종단 역점사업인 ‘천년을세우다’에 기금 4000만 원을 기탁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과 내장사 주지 대원 스님,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은 8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재)아름다운동행에 기금을 전달했다.

진우 스님은 먼저 세계잼버리대회에 한국불교를 알린 선운사와 내소사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에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종단불사를 위해 더 큰 도움을 보탤 수 없어 죄송하다”고 인사했다. 스님은 이어 “선운사는 전주신도시에 나온 종교용



지를 본 · 말사가 힘을 모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며 “신도시 포교를 위해 다시 한 번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진우 스님은 “인재발굴과 양성을 위해서라도 교구본사들이 사람 많은 곳으로 활발하게 진출해야 한다”며 “이 같은 노력이 불교중흥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윤호섭 기자



울릉도에 울려퍼진 '독도 아리랑'

진각종, 울릉도 제20회 회당문화축제 성료

밴드 억스 · 편승엽 등 무대
10년 만에 저동항에서 콘서트
독도 특별방문 · 구름빵 공연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제20회 회당문화축제의 메인 행사인 '독도아리랑 콘서트'가 8월 2일 오후 7시 울릉도 저동항 특설무대에서 화려하게 개최됐다.

2012년 이후 10여 년 만에 다시금 저동항에서 열린 독도아리랑 콘서트는 진각복지재단 산하 꿈나무어린이집 원아들의 난타 퍼포먼스와 울릉도 주민들로 구성된 '독도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문을 열었다. 이어 황효숙 울릉도 아리랑 보존회장의 '울도 선경가'와 뮤지컬 그룹 아티스틱 컴퍼니가 30여 분간 다양한 뮤지컬 넘버를 선보여 객석의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다.

국악가수 권미희 씨는 '배 띄워라', '인연', '망부석'으로 이어지는 신명나는 무대를 선사해 객석의 앵콜 요청으로 '내 사랑 주문진'을 '내 사랑 울릉도'로 개사해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진각종과 인연이 깊은 가수 편승엽 씨도 '찬찬찬', '기분좋은 사람아', '안동역에서', '애수' 등의 무대로 박수갈채를 받았다.

콘서트의 대미는 JTBC에서 방영된 풍류대장에 출연한 밴드 '억스(AUX)'가 장식했다. 새타령, 태평가, 풍년가, 꽃타령, 사랑가, 홀로 아리랑, 까투리, 박타령, 품바 등의 민요를 자신들만의 색깔로 편곡해 선보인 억스의 무대로 울릉도의 여름밤이 무르익어 갔다. 끝으로 독도아리랑 콘서트에서 빠질 수 없는 회당문화축제 자원봉사단의 '독도는 우리 땅' 플래시몹과 불꽃놀이로 콘서트는 화려하게 마무리됐다.



제20회 회당문화축제의 메인 행사인 '독도아리랑 콘서트'가 8월 2일 오후 7시 울릉도 저동항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콘서트에 앞서 통리원장 도진 정사는 인사말을 통해 "회당문화축제는 울릉도와 독도를 기반으로 나라사랑과 국민화합을 서원하는 축제이다. 회당문화축제가 스무 번 열리는 동안 의료진과 함께한 의료봉사 활동, 영화 상영 등을 통한 문화활동, 주민 돕기 봉사활동 등 숱한 자취를 남겼다"며 "20회를 맞아 종단은 보다 더 겸허한 자세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순수, 열정, 감동이 있는 축제로 승화시켜 축제의 새 지평을 열겠다"고 밝혔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축사에서 "회당문화축제의 20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한다. 회당문화축제는 문화가 취약한 울릉도에서 도민들에게는 큰 위로로, 울릉도를 찾은 이들에게는 이 곳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이 되고 있다"며 "사람과 문화가 있는 축제, 울릉도와 독도를 노래하는 축제라는 회당문화축제의 정신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어지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김대현 종무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회당문화축제는 진각종과 한국불교가 지닌 호국불교의 정신을 축제의 모습으로 승화시켜 온 것으로 안다"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문화적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회당문화축제가 진각종과 울릉도가 문화로 함께 지역의 경쟁력을 담아내는 최고의 축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공경식 울릉군의회 의장, 남진복 경북도의원도 축사를 전했으며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축전을, 이강덕 포항시장, 김병욱 국회의원(포항시 남구 · 울릉군), 김정재 국회의원(포항시 북구)도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또한, 20회를 맞은 회당문화축제를 기념하고자 역대 출연자인 가수 김경호 씨와 예술감독 이상종 대표, 여래심인당 주교 효인 정사, 울릉군여성단체협의회 최윤정 회장(꿈나무어린이집 원장), 울릉문화원 최수영 원장 등 회당문화축제를 만들고, 무대에 오른 다양한 사람들이 영상으로 축하인사를 전해 의미를 더했다.

이와 함께 통리원장 도진 정사는 20회 동안 회당문화축제를 이끌어 온 예술감독 이상종 스태프 미래 대표와 김창민 자원봉사단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한편, 제20회 회당문화축제는 8월 1일 금강원 성역화 지진불사를 시작으로 2일에는 '독도 특별방문'과 '독도아리랑 콘서트'로 진호국가불사와 나라사랑의 메시지를 다시금 새겼으며, 4일에는 울릉도 내 어린이와 부모를 초청해 어린이 뮤지컬 '구름빵' 특별공연을 개최했다.

"동체대비 실천 대종사 유지 이어가겠다"

금산사, 태공당 월주 대종사 원적 2주기 추모다례

문도들 대종사 삶, 사상 기려
월주 대종사 부도탑 제막식도

조계종 제17대, 제28대 총무원장과 원로의원을 지내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동체대비(同體大悲) · 요익중생(饒益衆生)의 삶을 실천했던 태공당 월주 대종사의 원적 2주기 추모다례재가 금산사 처영기념관에서 봉행됐다. 다례재 후에는 태공당 월주대종사 부도탑 제막식이 봉행됐다.

금산사(주지 일원)는 7월 30일 금산사 대적광전에서 태공당 월주대종사 원적 2주기 추모다례재와 부도탑 제막식을 봉행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태공당 월주 스님은 본래 고향의 자리로 돌아가 있지만 모학산에 높이 뜬 밝은 달빛이 돼 오늘 이 자리를 비추고 있다"면서 "한국불교사의 시대적 질곡을 함께 짊어지고 어려운 일들을 지혜롭고 또 덕성스럽게 다 처리하면서 오늘날에 한국불교가 이런 정도의 반석으로 나아가는 데 대원력 보살의 역할을 하셨다"고 회고했다.



금산사는 7월 30일 금산사 대적광전에서 태공당 월주대종사 원적 2주기 추모다례재와 부도탑 제막식을 봉행했다.

이어 "근세 한국 불교사의 거인이요 또 사회적 큰 지도자이자 국가 원로로서 주어진 소명을 마다하지 않는 삶을 사셨다"고 추모했다.

한광수 금산사 신도회장은 추모사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중생들의 괴로움을 덜어주시고 즐거움을 더해주신 큰 스님의 자비행 실천은 오늘에 이르러 더욱 그리워지고 사무친다"며 "큰 스님의 보현행원과 자비행은 우리 모두 가슴에 영원히 남아 있고 깨달음의 실천도량 금산사에 거듭 나투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도 추모사를 통해 "사바세계에서 펼쳤던 월주 대종사의 자비행은 종교 간의 교류를 통해 너와 나가 아닌 우리로서 협력과 화합의 기반을 다졌고 우리나라를 넘어 모든 세계를 아우르는 보편적 인류애를 실천해 오셨다"면서 "김제 시민들과 저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큰스님께서 직접 행하신 깨달음의 사회화를 통한 선한 영향력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문도를 대표해 도영 스님은 "은사스님은 40년 전에 보살정로라는 책을 내시면서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펼치셨고 사회를 맑게하겠다는 원력으로 시민사회단체대표를 맡아 활동을 해오셨다"며 "스님의 생전 유지를 이어받아 후학들은 스님의 뜻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모다례재를 마친 사부대중은 금강문 앞 동산에 조성한 부도탑의 제막식을 봉행했다. 이날 제막된 부도탑에는 평소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한반도 지도, 우물, 발우, 경전 등을 새겨넣었다.

금산사 회주 도법 스님은 "스님의 부도탑 제막을 맞아 스님의 삶을 기리면서 우리의 미래에도 스님의 삶을 살아가자는 마음을 모아 부도탑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추모다례재에는 도영, 도원, 도법, 평상, 원행 스님 등 대종사의 직계상좌스님들과 원로의원 원행 스님(월정사),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중앙승가대총장 월우 스님, 한광수 금산사 신도회장, 김용수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등이 참석했다. 또 김도은 전북경제부지사, 정성주 김제시장, 조배숙 국민의 힘 전북도당 위원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해 스님의 유지를 기렸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태고종 '자비실천' 수재의연금 모연 확대

인천교구 · 서울 백련사 잇따라 행사 열어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한 종단차원의 자비행을 선포한 태고종 총무원에 발맞춰 지역교구와 사찰들이 힘을 보태고 있다.

먼저 태고종 인천교구종무원(종무원장 능해)은 7월 30일 인천 용궁사 대웅전에서 수재민 돕기 수해복구 의연금 모금법회를 봉행했다. 앞서 7월 27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3원장 및 주요기관장 종무원장 연석회의에서 총무원장 전국시도교구종무원 순회 첫 방문지로 결정된 인천교구는 이날 집중호우로 발생한 민간인 피해와 그로 인한 사망자를 애도하며 수해복구 의연금 모금 법회를 시작했다.

법회에 참석한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격려사에서 "종단 수해복구 성금 모금에 인천교구가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태고종이 한국불교 적자종단으로서 세상의 고통과 함께할 때 그 의미가 더욱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진 스님은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며 "우리 종단에서 마련한 성금이 복구의 큰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에 앞서 종무원장 능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고 "성대히 봉행된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이 · 취임식이 원만히 회향돼 대내외적으로 태고종의 위상이 높아졌다"면서 "이 기세와 힘으로 세상의 아픔을 치유해 나가는 데도 종단의 원력이 발휘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태고종 서울 백련사도 8월 9일 무량수전 앞마당에서 백중기도에 동참한 불자들과 함께 수재의연금 모금에 나섰다. 모금에는 총무원장 상진 스님과 백련사 회주 운경 스님, 주지 동허 스님, 재단법인 태고종 불교전법원 이사장 운암 스님, 태고종 원로의원 설산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힘을 보탰다.

이날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백련사는 종단에서 역사적인 인물을 가장 많이 배출한 사찰"이라며 "집중호우뿐만 아니라 태풍으로 인한 피해까지 감안해 수재의연금을 모금하고 있다. 사부대중이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백련사 주지 동허 스님은 "세상의 기후변화에 따라 악재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나눔 실천에 앞장서시는 상진 스님께 힘을 보태고자 백련사 대중이 뜻을 모았다"며 "백련사는 예부터 계속 나라와 민족의 평안을 기원하는 기도를 매일 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 윤호섭 기자

"故차일혁 경무관 지혜, 세상에 알리겠다"

화엄사, 차일혁 경무관 첫 추모다례재 봉행

6.25전쟁부터 화엄사를 지킨 故 차일혁(1920~1958) 경무관에 대한 첫 추모다례재가 봉행됐다.〈사진〉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덕문)는 8월 10일 각황전에서 한국전쟁 중 전란의 화마 속에서 지리산 화엄사를 지킨 故 차일혁 경무관의 서거 65주기를 맞아 다례재를 봉행하고 그의 공적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故 차일혁 경무관은 1951년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당시 빨치산 토벌 작전 중 상부로부터 화엄사를 불태우라는 명령을 받게 됐다. 그는 강하게 반대하였으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부에서 내린 명령이기에 어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천년고찰을 태울 수도 없기에 고민 끝에 부하들을 시켜 화엄사의 문짝들만 떼어내어 불태웠다.

당시 故 차일혁 경무관은 "절을 태우는 데는 한나절이면 충분하지만 절을 세우는 데는 천 년 이상의 세월로도 부족하다"며 문화재를 지키는 놀라운 지혜를 발휘해 오늘날 화엄사를 온전한 모습으로 볼 수 있게 한 장본인이다.

이날 추모 다례재에는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을 비롯해 차소영 故 차일혁 경무관 기념사업회 선양회장, 김순호



구례군수, 유토연 구례경찰서장, 유시문 군의장 등 100여 명이 참여해 고인의 뜻을 기렸다.

덕문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화엄사를 비롯해 금산사, 백양사, 선운사, 쌍계사, 천은사 그리고 덕유산 사찰을 비롯한 수많은 천년 고찰들이 고인의 지혜로운 결단으로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었다"며 "고인의 업적과 유지를 후손과 사찰만 알 것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알려 그분의 정신이 후대에까지 널리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행사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화엄사는 지난 1998년 당시 총무원장 월주 스님의 발원으로 조계종과 호남지역 본사들이 참여해 화엄사에 공덕비를 조성했으며, 2013년 후손인 차길진 법사의 청으로 지금의 공덕비를 새롭게 세웠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대관음사, 예천군에 수해복구 성금 전달

8월 9일 예천군청서 전달식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회주 우학)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북 예천군에 부처님 자비의 손길을 전했다.

대관음사는 8월 9일 예천군청을 방문해 김학동 군수에게 수해복구 성금 1천100여 만 원을 전달했다.〈사진〉

이날 전달된 성금은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사중스님과 전국 도량 신도 등 사부대중이 자발적인 모금으로 마련됐다.



권영화 한국불교대학 총동문회장은 "한국불교대학 구성원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냈다"면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분들이 하루빨리 피해를 극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철완 대구경북지사장

서원노인복지관 '실버지구지키미' 전개

아이스팩 등 모아 환경보호

금산사 복지원(대표 일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서원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이 '실버지구지키미'를 결성하고 환경보호운동에 나서고 있다.

서원노인복지관(관장 동찬)은 8월 14일부터 재활용품을 모으는 '알록달록 모으깅'과 버려지고 있는 '아이스팩 모으깅' 활동을 통해 지구 환경보호에 나선다.

서원노인복지관장 동찬 스님은 "우리나라를 성장시킨 선배 시민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의 환경보호와 자원 재활용을 위해 나서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모기장 속에서 영화음악 감상을

화엄사, 제3회 모기장음악회 개최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이 한 여름밤 산사에서 모기장을 치고 영화음악을 즐기는 시간이 마련됐다.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는 8월 5일 경내 화엄원 앞마당에서 '제3회 모기장 영화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500여 명 참여한 이날 행사에는 특별히 구례군민과 마산면 지역주민, 해외이주민, 구례지역 청소년 학생, 구례군 마산면 의용소방대, 구례군 체육회, 지리산 상가 주민들을 초청해 지친 여름을 이기는 힐링의 시간을 제공했다. 일반 시민들은 사전 신청을 통해 행사에 참여했다.

행사를 마련한 덕문 스님은 "무더운 여름날 어떤 영화음악을 통해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힐링의 마음을 전할까 고민했다"며 "지쳐있는 마음에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영광 구례부군수는 축사를 통해 "제3회 모기장영화음악회를 축하드리며, 구례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모기장음악회는 유정우 박사(흉부외과 전문의, 클래식 음악 평론가)와 함께 영화 속 오페라의 명장면을 골라 해설과 영화, 음악을 함께 감상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한편 모기장영화음악회를 마치고 참석한 참석자들은 보제루로 이동하여, '세대교차 반딧불 별빛 더하기' 프로그램을 즐겼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호주, 캄보디아에 밀수 청동불상 3점 반환

9~10세 참 왕조 제작 추정 유물
밀매업자 동료 증언이 결정적
유물 고국 반환은 세계의 모범
"전쟁 상처 치유 방법 중 하나"

김민재 객원기자

캄보디아 남부에서 호주 수도까지 불법적인 경로를 떠돌았던 청동불상이 곧 고국으로 돌아간다. 지난 8월 2일 해외 주요 언론 '가디언' '뉴욕타임즈' 'ABC뉴스' 등은 호주 국립 미술관의 캄보디아 불교유물 반환 소식을 전했다.

최근 캔버라에서 열린 '호주-캄보디아 청동불상 인도식' 에서 호주 국립 미술관 관계자는 "역사적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라면서 "호주와 캄보디아의 유대를 강화하고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반환 의미를 전했다. 캄보디아 문화 예술부 대표 콩 비락도 "청동불상의 반환은 기적으로 세계의 모범"이라면서 "유물 반환은 전쟁으로 상처받은 국가가 치유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전했다.

현재 호주 국립 미술관이 소장한 청동불상은 30년 전 캄보디아 남부의 시골에서 발견된 청동 관음보살상과 협시보처 조각상 2점이다.


캄보디아로 반환된 참 왕조 청동 관세음보살상과 협시보처. 사진출처=호주 국립 미술관

9~10세기 참 왕조에 제작된 것으로 2011년 호주 국립 미술관이 영국의 고미술품 밀수업자 더글러스 래치포드를 통해 150만 달러(한화 약 13억원)에 매입했다. 그 해 국립 미술관 연례 보고서에는 '참족(베트남과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오스트로네시아 민족)이 제작한 세 점의 청동불은 올해 매입한 가장 특별한 작품' 이라고 소개하며 미술관 소장품에 명성을 가져다주었다고 설명됐다.

호주 국립 미술관은 2014년 약 5,000점의 아시아 예술품의 출처에 대한 자체적인 감사와 고미술품 밀수업자 더글러스 래치포드와 관련된 물품들에 대한 10년간의 조사 끝에 청동불상 3점이 불법 반출된 유물로 밝혀져 캄보디아로 반환을 결정했다.

래치포드의 동료이자 전직 밀수업자였던 툭 틱은 2021년 암으로 사망하기 전, 캄보디아 정부를 도와 약탈당한 유물 식별 및 반환 작업을 하며 생애 마지막 2년을 보냈다. 또한 이번 반환이 결정된 청동불상에 대한 래치포드의 밀수 및 밀매를 증언하기도 했다.

그는 " '킬링필드(1960~70년대에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대량 학살)' 당시 나는 크메르 루즈 소년병으로 당시 정부의 전쟁 자금을 대기 위해 조직된 500명의 유물 발굴단의 지휘자였다. 밀매가 돈이 되기에 래치포드와 접선을 했고 그를 통해 캄보디아의 수많은 유물을 밀매했다"면서 "유물의 사진을 찍어 래치포드에게 보여주면 그는 원하는 것을 선택해 밀수를 지시했다. 야심한 밤에 유물을 불법 반출해 소 수레를 타고 태국으로 가져갔다"고 밝혔다. 그의 증언을 통해 값을 매길 수 없는 수많은 유물이 언제 어디서 약탈되었는지 정확하게 밝혀졌다.

캄보디아 유물 반환 관계자는 "래치포드의 파일과 컴퓨터 기록에 따르면 200개의 참 왕조 유물이 툭 틱이 약탈을 증언했던 지역에서 가져와 박물관과 수집가들에게 팔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래치포드는 미국에서 금융사기, 밀수, 음모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던 중 2020년 사망했다. 그와 관련된 많은 유물들이 '불법 반출' 로 밝혀지며 미국, 영국이 그를 통해 거래된 캄보디아 유물을 반환했다.

네팔, 800년 된 〈반야경〉 정기 보수

윤달에 보수하는 전통 풍습


금니로 보수 작업 중인 〈반야경〉. 사진출처=ANI

지난 8월 1일 오만 일간지 '타임즈 오브 오만' 은 네팔 황금 사원의 반야경 정기 보수 소식을 전했다. 네팔 카트만두 더르바르 광장에 있는 황금 사원으로 알려진 콰 바하(Kwa Baha)사원에서 800년 전에 제작한 〈반야경〉의 정기 보수 작업에 돌입했다. 해당 경전은 패엽 경식으로 제본되어 있으며 란자냐 문자(Rañjanā: 11세기 발생한 브라흐미계 문자)가 금니(金泥)로 쓰인 금사경(金寫經)으로 말라 왕조(1201~1779년) 중 아바야 말라 왕의 재위 기간(1216~1255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한다.

경전 보수 팀의 헴 라트나 비라차르야에 따르면 "반야경은 매일 황금사원 예불에 사용하고 있어 금니가 벗겨지기 때문에 윤달이 낀 해마다 정기 보수 작업을 진행한다. 태양력이 365.25일, 태음력이 354일로 매년 11일 1시간 31분 12초의 간격이 있어 매년 이 차이가 커짐에 따라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도입하는 음력의 달을 '말라-마스 ' 또는 '푸루소탐 마스' 라고 부른다. 말라 마스에는 법회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과거부터 경전 보수 작업을 진행하곤 했다. 이 전통에 기초하여 올해 반야경 보수 작업에 돌입했다.

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황금사원의 경전 보수 팀은 매일 아침 경건한 마음으로 반야경 독송을 마친 뒤 3시간 30분간 경전 보수 작업을 하고 있다. 반야경 전체를 금니로 덧쓰고 있으며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 된 경우 네팔 전통 종이인 '록타' 로 경전을 복원한 뒤 금니로 사경을 한다.

록타는 네팔리 카가즈(Nepali kagaj)로 알려진 네팔 전통 종이로 네팔 고지에서만 자라는 자생종 다프니 관목 섬유질로 만들어 쉽게 찢어지지 않고 금니를 유지하는 특별한 능력과 더불어 흰개미와 부패에도 강해 네팔 고대 종교 경전 및 법전에도 사용되었다. 비라차르야는 "보수에 사용하는 네팔 전통 금니는 미세 금분을 뜻하는 네와르어 '촐로' 라고 부른다. 촐로는 얇은 판자 형태를 띄고 물에 용해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아마씨를 사용한 특수 접착제를 미세 금분과 함께 배합비에 맞춰 만든다. 특별히 훈련된 사람들만이 촐로를 준비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수의학과 불교 만남…수의사 스님 에세이 '화제'

수의학 전공한 비구니 신쿄 스님
"생명 순환 불교 메시지 전하고파"

수의학과 불교라고 하는 접점이 적어 보이는 두 가지를 잇는 에세이집이 일본에서 출간돼 화제다. 심지어 책을 쓴 이는 15세기부터 이어온 종단에서 차기 종정에 예정된 비구니 스님. 지난 8월 5일,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 은 책의 저자인 하나조노 신쿄 스님과의 인터뷰를 특별 보도했다.

지난 4월 출간된 에세이집 〈살아있는 것들과 불교의 이야기〉는 일본 불교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정토진종의 분파인 진종흥정파(眞宗興正派)의 차기 종정, 하나조노 신쿄 스님의 책이다. 진종 흥정파는 15세기부터 이어오는 유서 깊은 종단. 교토의 코쇼지(興正寺)를 본산으로 하고,소속사찰은 일본 전국에 약 460개소, 신도는 약 3만 6000명으로 집계된다. 종정인 문주(門主)는 세습으로 계승되어 신쿄 스님은 현재 문주인 하나조노 신쇼 스님의 장녀. 지난 2017년 4월 차기 문주를 뜻하는 사법(嗣法) 법계에 취임했다. 이후 문주로 취임하면 여성으로서는 해당 종단에서 15세기 이래로 두 번째라고 한다.


불교와 수의학의 접점에 대해 책을 쓴 하나조노 신쿄스님. 사진출처=마이니치 신문

스님은 인터뷰에서 수의학과에 진학하게 된 계기에 대해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좋아했다. 항상 머무는 절의 경내에도 길고양이나 너구리가 자주 보였고 동물원이나 수족관 등에서 동물들을 보는 것에 흥미를 가지면서 수의학과 진학을 생각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오히려 "대학 재학 중에는 별로 불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 학교를 졸업하고 교토에 돌아와서야 불교와 수의학의 접점을 생각하게 됐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불교와 수의학의 가장 큰 접점에 대해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불교와 수의학의 가장 큰 접점이다. 예를 들어 어떤 동물이든 다양한 장기가 몸 안에서 서로 도움으로 살아있다. 또 외부적으로는 서로 음식이나 환경이 순환하면서 균형을 맞추게 된다. 생명의 순환은 불교가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라며 에세이를 통해 전하고 싶은 점을 강조했다.

특히 스님은 글을 쓰는 가운데 가장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로 대학 3학년 때 실습을 위해 식육처리장을 찾은 경험을 꼽았다. 해당 실습은 선택제로, 8할 이상의 학생은 가지 않았지만 스님은 "이런 일이 없으면 평생 그런 장소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생각해 굳이 실습을 선택했다"고 전했다. 스님은 이 경험을 통해 "모든 생물은 다양한 생명의 희생 위에 성립된다는 사실을 똑똑하게 보았다. 불교도라면 지켜야 할 기본적인 계율에 불살생계가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통감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요즘의 사회는 '나 혼자 살아있다' 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조화를 이룬다. 많은 분이 이 책을 통해 그 점을 좀 더 생각하고 사찰이나 스님들과 관계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듣는 인연을 쌓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티베트 여성 출가자 최고 학위 시험 진행

올해 역대 최다 응시 인원 기록


게쎄마 시험을 진행중인 티베트 비구니 스님. 사진출처=티베탄 리뷰

티베트 불교에서 모든 교학과정을 마친 출가자에게 주어지는 학위인 '게쎄' , 혹은 '게쎄마' . 이중 여성 출가자들에게 주어지는 게쎄마 학위 시험이 인도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 8월 5일 '티베탄 리뷰' 는 게쎄마 학위 시험의 이모저모를 보도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최단 7년, 최장 20년에 가까운 교학과정을 마치고, 엄격한 시험을 통과한 스님들에게 켄뽀, 로쀈, 게쎄와 같은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이중 게쎄는 티베트 불교의 4대 종단중 하나인 겔룩빠 종단에서 수여하는 것으로, 그동안 비구스님들에게만 허락됐으나 최근 사미니와 비구니 스님들에게도 그 문이 열렸다. 비구 스님들의 학위를 게쎄라고 부르는데서 여성출가자들에 대한 학위는 게쎄마라고 불린다.

티베탄 리뷰는 '티베트 비구니 프로젝트(TNP)' 가 발표한 내용을 인용하여 "올해 티베트 불교의 여성 출가자 132명이 게쎄마 시험에 응시했다. 역대 최다 응시기록"이라고 밝혔다. 비구 스님들의 게쎄 학위 시험과 동일하게 엄격한 필기 및 구술시험으로 진행되는 이 시험은 총 4년이 걸리며 매년 한 분기마다 시험이 진행된다.

게쎄마 시험에 응시하려는 스님들은 강원에서 인명학, 아비달마, 반야부, 중관, 계율의 5대부의 경론들을 모두 익히고 각 강원에서 진행되는 필기와 구술시험에서 최소 75%이상의 달성도를 얻어야한다.

TNP측은 "지금까지 54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이 학위를 취득했다. 게쎄마 학위를 통해 티베트 불교의 여성 출가자들은 여성들에게 불교강사나 불교 지도자등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중국 운강석굴, 오대산 성지순례 5일

10월16일 출발~20일 도착(5일 일정)

동참금 | 148만원
일 정 | ▶1일 : 대한항공편으로 인천-북경-대동
▶2일 : 운강석굴-응현목탑-현공사-오대산
▶3일 : 오대산 5대봉-동대 망해봉-북대 협두봉-중대-취암봉-서대-계월봉-남대-금수봉 5대 전체 순례
▶4일 : 오대산-보살정-현통사-탑원사-수상사-북경으로 이동
▶5일 : 북경-북경공항-인천(대한항공)



인도 성지순례 10일과 11일 출발일정

동참금 | 270만원~280만원
일 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상카시아-아그라-델리-인천
▶1차) 10월 28일 출발~11월 07일 도착(11일 일정)
▶2차) 11월 18일 출발~11월 28일 도착(11일 일정)
▶3차) 12월 26일 출발~01월 04일 도착(10일 일정)
▶4차) 01월 13일 출발~01월 23일 도착(11일 일정)

아잔타 석굴 포함 인도성지순례 15일

동참금 | 370만원
일 정 | 인천-델리-오랑가바드-아잔타석굴-엘로라석굴-보팔-산치대탑-아그라-기원정사-카필라성-룸비니-쿠시나가르-케사리야-바이샬리-나란다대학-영축산-보드가야-바라나시-사르나트-델리-인천
▶10월 17일 출발~10월 31일 도착(15일 일정)
▶12월 26일 출발~01월 09일 도착(15일 일정)
▶01월 16일 출발~01월 30일 도착(15일 일정)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보수 마친 국보 '지광국사탑', 112년 만에 귀향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탑 부재들 8월 1일 원주로 이송
법천사지 전시관 상설전시 예정
8월 10일 귀향 기념식 진행돼

1911년 일본인에 의해 무단 반출
한국전쟁 폭격 파손 등으로 고난
국립문화재硏서 5년 간 보존처리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에 의해 반출됐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했던 '승탑의 백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국보)이 반출 112년 만에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가 2016년부터 5년여에 걸쳐 보존처리를 마친 국보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하 지광국사탑)' 부재들을 8월 1일 원래의 위치인 강원도 원주시로 이송한다"고 7월 31일 밝혔다.

이에 문화재청과 원주시는 8월 10일 오후 2시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에서 지광국사탑의 112년 만의 귀향을 기념하는 귀향식을 개최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6월, 원주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을 지광국사탑 부재의 임시 보관처로 지정했며, 총 33개 부재 중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옥개석과 탑신석을 제외한 31개 부재를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원주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으로 이송된 지광국사탑 부재는 복원 위치가 확정될 때까지 기획전시 공간에 상설 전시할 계획으로, 관람객뿐만이 아니라 승탑이 원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지역 주민들이 언제든지 찾아 볼 수 있도록 전시할 예정이다.

화려한 만큼 더 아팠던 역사

국보 지광국사탑은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사지에 세워졌던 고려 시대 국사 해린(海麟, 984~1070)의 승탑으로 독특한 구조와 화려한 조각, 뛰어난 장엄장식으로 역대 가장 개성 있고 화려한 승탑으로 손꼽힌다.

문화재적 가치가 높았던 만큼 지광국사탑은 근현대시기 많은 고난을 겪었다. 일제강점기 당시 자료에 따르면 지광국사탑이 본래 자리인 법천사지를 떠나게 된 시기는 1911년이다. 일본인 와다 쓰네이치(和田常市)가 탑을 매입했고, 이를 당시 서울 명동서 일본인이 운영하는 개인병원에 조경용으로 전시하게 만들었다.

1912년에는 이를 남산 기슭의 저택으로 탑을 옮겼다가, 다시 일본 오사카 귀족에게 팔아 불법으로 반출시켰다. 오사카 귀족은 지광국사탑을 자신의 가문 묘지 정원 장식품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이를 안 조선총독부가 반환명령을 내리면서 와다는 탑을 돌려받아 조선총독부에 기증했다.

그래도 지광국사탑은 본래 자리인 법천사지로는 갈 수 없었다. 조선총독부가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가 열린 경복궁의 장식재 구실을 하기 위해 옮겼기 때문이다.



보존처리 중인 국보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의 모습.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 2016년부터 5년동안 보존처리가 이뤄졌으며, 8월 1일 탑의 부재가 원주로 돌아갔다.

6.25전쟁은 지광국사탑에게 치명상을 안겼다. 1951년 지광국사탑은 폭탄에 맞아 상륜부와 옥개석이 파손됐다. 당시 피폭으로 탑의 상륜부와 옥개석은 1만 2000여 조각으로 쪼개졌다. 전쟁 이후 1957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복원기술자 故임천 선생이 탑을 복원·수리했고, 후에도 해체와 이전을 반복하다 1990년에 이르러서야 국립고궁박물관 뒤뜰로 자리를 잡았다.

해체보수로 새 모습을 찾다

이후 지광국사탑은 2005년과 2010년 시행된 정기조사와 2014년 문화재 특별종합점검, 2015년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등에서 다수의 균열과 모르타르(mortar) 복원 부위 탈락 등이 확인됐다. 특히, 모르타르로 복원된 옥개석과 상륜부는 구조적 불안정까지 더해져 석탑의 추가적인 훼손이 우려되면서 2015년 9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면 해체·보존처리가 결정됐다.

이에 지광국사탑은 2016년 3월 22일 해체보고식을 갖고, 4월 5일 해체가 완료돼 국립문화재연구소로 이송됐다.

당시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가 확인한 석탑의 상태는 심각했다. 우선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1957년 시멘트 모르타르로 복원한 부분이었다. 전체 탑의 10.6%가 시멘트 모르타르로 복원됐으며, 상륜부와 옥개석에 집중돼 있었다. 특히 옥개석의 경우 48%가 복원 부재로 시멘트 모르타르가 사용됐다. 또한 이를 지탱시키기 위해 59개의 철심이 탑에 박혀 있었다.

석탑의 풍화도 '중간에서 높은 단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백화와 흑화 현상도 상당히 진행됐으며, 탈락·박리·생물 피해·조류 배설물 등의 피해도 확인됐다.

이에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2016년 석탑을 완전 해체하고 보존처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해체부재들을 일일이 기록했으며, 모르타르는 걷어냈다. 결실되어 없어진 부재에 대해서는 신석재로 새로 제작했고, 파손부재들은 접착했다.

새로 구해야 하는 석재들은 산지(産地)를 과학적으로 추정해 가능하면 그 산지에서 구해 조성 당시 사용된 석재와 가장 유사한 재질로 보존처리 했으며, 유리건판과 실측도면 등을 바탕으로 도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 결실부분의 도상을 복원했다.

또한, 탑신석 사리공에서 발견된 옥개석 파손부재 조각과 법천사지에서 발굴된 하층 기단갑석 조각을 과학적 조사와 고증을 거쳐 원래 위치에 복원했고, 1957년 수리 당시 잘못 복원된 옥개석의 방위와 추녀 위치를 바로잡는 등 과학적·인문학적 융복합 연구를 통해 지광국사탑의 잃어버렸던 본래의 모습을 최대한 되찾으려고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지광국사탑은 보존처리 및 이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지원 등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면서 "향후 문화재청은 원주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광국사탑이 보존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검토한 후 최종 복원위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통지화 명장에 정명 스님 위촉

진우 스님, 8월 10일 위촉장 수여

조계종을 대표하는 전통지화 첫 명장에 비구니 정명 스님이 위촉됐다.〈사진〉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8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정명 스님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종단 최초로 지화 명장에 위촉된 만큼 지화를 통해 전통을 이어 나간다는 자부심으로 후학 양성에 힘 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정명 스님은 "명장에 위촉돼 큰 영광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인사했다.

정명 스님은 태경 스님을 은사로 1970년 수계했다. 현재 국가무형문화재·유네스코인류무형유산인 연등회 장엄도감, 불교지화장엄전승회 회장, 사단법인 한국전통지화보존회 이사장, 한국불교 비구니 꽃꽂이회 자문위원, 대한불교꽃꽂이연합회 자문위원, 전국비구니회 부회장과 가평 연화세계 주지를 맡고 있다.



윤호섭 기자

강화 정족산성진지 복원 방안 모색한다

전등사·강화군청 공동주최
8월 18일 전등각서 세미나

강화 전등사(주지 여암)와 강화군청(군수 유천호)은 공동으로 오는 8월 18일 오후 1시 전등사 전등각에서 '강화 정족산성진지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건축문화정책연구원과 백산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조선 후기 정족산 사고의 보호를 위해 설치된 정족산성진지의 발굴 성과를 토대로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그간 고려 가궐지로 알려졌던 정족산성진지의 발굴 성과를 토대로 건물지를 고증하고 복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강화 정족산성진지의 발굴조사 성과와 의의(최종규 한울문화재연구원장) △강화 정족산성진지의 출토유물 특징(박미화 수도문물연구원 유물관리팀장) △강화 정족산성진지의 성격과 역사적 가치(신웅주 조선대 교수) △강화 정족산성진지의 보존관리 및 활용 방안(김우웅 한국건축문화정책연구원장) 등의 연구논문이 발표된다.

토론자로는 이천우(문화재청 상근전문위원), 현남주(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 황보경(세종대 박물관 실장), 안선호(원광대 교수), 안대환(충북대 교수)이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경주 열암곡 부처님 어떻게 바로 모실까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8월 18일 학술대회

조계종 미래본부 불교사회연구소(소장 원철)는 8월 18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경주 남산과 열암곡 부처님 바로모시기'를 주제로 호국불교연구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경주 남산의 불교사적 의미와 열암곡 마애불을 바로 모시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연구 논문이 발표된다.

발표 논문은 △신라불교와 경주 남산의 의미(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남산 창림사와 신라 문성왕대(839-857)의 불교(박광연 동국대 WISE캠퍼스 국사학과 교수) △경주 남산 불교유적의 특징과 성격(김동하 문화재전문위원) △열암곡 부처님을 어떻게 바로 모실 것인가: 성보 문화재의 참배와 순례의 가치를 중심으로(무진 스님, 조계종 교육아사리) 등이다.

토론자로는 김구석 경주남산연구소장, 진병길 신라문화원장, 임석규 불교문화재연구소 실장, 김재경 한양대 건축학부 교수가 참여한다.

불교사회연구소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경주 남산의 불교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곳의 가람 및 문화 유물의 특성을 살피며, 이를 토대로 열암곡 부처님을 바로 모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인도의 종교와 철학의 역사
인도사상사



깊이와 재미를 함께 갖춘 인도 사상 입문서!
장구한 세월 동안 인도인들의 삶 속에 스민 역사, 문화, 종교, 철학, 영성 등을 이해하기 위한 뼈대를 상세하면서도 쉽고, 흥미로우면서도 치밀하게 보여준다.
존 M. 콜러 지음, 허우성 옮김/신국판/양장/792쪽/값 55,000원

관세음보살님 따라 그리기



관세음보살 42수주 진언 컬러링북
중생을 고통에서 구원해주시는 자비의 화신 관세음보살님과 42수주 진언을 그리고 색칠하고 외움으로써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찾고 불보살의 가피를 받게 된다.
조미애 그림/국배판/무선/72쪽/값 14,000원

周易禪解
우익지욱 선사 『주역선해』의 현대적 강설!
우익지욱, 『주역선해』를 통해 유교와 불교를 아우르다
불교로 풀어보는 주역철학
『주역』과 불교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양자를 융합 회통하여,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실천적 의미를 지닌 『주역선해』에 상세한 각주와 풍부한 해설을 붙였다.
우익지욱 저, 최세창 강설/신국판/무선/512쪽/값 27,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9~8/15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하루를 살더라도(법구경)	향원 오원탁	불교시대사	6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김원수	청우당
2	운명을 바꾸는 법	정공	불광출판부	7	이띠웃따까	각묵	초기불전연구원
3	극락세계 유람기	석관정	토방	8	원빈스님의 금강경에 물들다	원빈	이층버스
4	월호 스님의 천수경 강의	월호	운주사	9	초기불교 입문:초기불교 그 핵심을 담다	각묵	초기불전연구원
5	한글 아함경	고익진	담마아카데미	10	앙굿따라니까야(2)	대림	초기불전연구원

책세상

희곡으로 그린 코로나 속 인간군상



트램펄린 위의 낭독
김숙현 지음
도서출판 북나래 펴냄
2만원



희곡작가 김숙현 네 번째 작품집
희곡 · 산문 등 다양한 장르 실어
코로나 팬데믹 속 인간군상 그려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희곡 작가 김숙현이 네 번째 작품집 〈트램펄린 위의 낭독〉을 출간했다. 이번 작품집에는 희곡과 산문, 불교와의 인연 글, 영화평 등 다양한 장르의 글을 담았다.

1부 '읽는 연극 희곡-무(無)에서 생기는 건 무(無) 뿐이다' 에는 '트램펄린 위의 낭독' 을 비롯한 6편의 희곡을 실었다.

"어떤 감염병도 사망자가 제로가 되어 끝나는 건 아니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불화하는 인간끼리 대화하라는 큰 그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해받을 사람은 이해받고, 굳이 이해가 필요 없는 사람은 또 각자 일상으로 돌아가서 내일의 삶을 원래대로 살아내겠죠."

표제작 '트램펄린 위의 낭독' 은 가족 간의 오랜 갈등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그리고 있다. 2019년 코로나가 발생했고, 패닉 상태에 빠진 강희주 부부의 집에 강희주의 여동생 강민주가 찾아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민주는 어머니인 J여사가 코로나로 사망하며 남긴 유언을 언니 희주에게 전하며,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언니를 탓한다. 그로 인해 강희주와 J여사 사이의 오랜 갈등이 드러나고, 강민주의 출생의혹 스캔들 때문에 톱배우 희주가 영화계 활동을 접어야했던 사실도 밝혀진다.

'트램펄린 위의 낭독' 은 인간의 '삶' 과 삶의 필연인 '관계' 를 재난 상황인 '코로나' 상황에서 그리고 있다. 예측불가능의 코로나라는 설정에 대입된 인간의 삶과 그 삶을 이어가는 관계들의 이야기가 또 다른 시대의 인간군상의 모습을 보여준다.

"희곡은 시, 소설과 함께 문학의 3대 장르의 하나이며, 역대 노벨문학상 수상자 가운데 30%가 희곡작가였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희곡을 연극의 일부로만 여겨 문학적인 요소를 지나치게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화려한 공연장과 배우들의 명연기는 각광을 받는데, 막 뒤에서 창작혼을 불태우고 있는 희곡작가의 노고는 가뭇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김 작가는 그 동안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아가는 인간군상을 통해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려 애써왔다. 그리고 그 출구는 희곡이다.

"젊었을 때는 -시간을 쪼개서 한편이라도 희곡을 더 써야지!, 걸작을 써서 뭔가를 보여줘야지! - 하는 과욕과 자의식 과잉으로 온갖 병증이 치성했나 보다. 그런데 이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쓰니, 오히려 상상력이 자연스럽게 가동되면서 심장을 뛰게 만든다. 작품 쓰다가 막히면 정원 산책에 나선다. 각 캐릭터의 동기 부여나 액션, 대사를 구상하다 보면 흡사 새 연인을 만난 것처럼 감각이 되살아나고 사물을 바라보는 안목이 확 트인다. 작품 때문에 하루하루의 일상에 창의력과 의욕이 생기니, 어쩌면 문학이나를 살아있게 한다고 해야 할까. 그러니까 한 발은 땅을 딛고 현실에 굳건히 서 있으면서, 나머지 한 발은 저 먼 미지의 세계를 헤매는 양상이랄까."

김 작가의 희곡은 무대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무대를 거쳐서 나온 문장이다. 무대를 바라바고 쓴 희곡이 아니라 무대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내려온 희곡이다. 김 작가는 대학에서 연극영화를 전공했다. 글보다 무대를 먼저 시작했던 것이다. 김 작가의 희곡은 치열하고 진지한 수많은 연극을 경험하고 난 후 한 편의 희곡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2부 '삶이 힘들다면 산문을 펼치자-희곡작가의 산문' 에는 '실존의 길을 선택한 크누트 함순' 등 17편의 산문이 실렸으며, 3부 '불연과 개안-50여 년 글쓰기 정진' 에는 '문자 포교의 열망' 등 불교와의 인연 글 4편이 실렸고, 4부 '스크린 너머-삶 가운데 영화가 있었다' 에는 '작가적 야망과 진실-카포티 · 베넷 밀러-2006' 등 12편의 영화평이 실려 있다.

▲김숙현 작가는?

1969년에 등단해서 4권의 희곡집을 냈다. 2015년 출간한 희곡집 〈자물쇠는 뻐꾸기 소리에 맡겼다〉는 2017년 '이주홍 문학상'을 수상했다. 그 상금을 마중물로 표제작 〈자물쇠는 뻐꾸기 소리에 맡겼다〉를 2018년 10월 31일부터 5일간 부산 거제동 한결아트홀에서 공연했다. 현재 불교신문 논설위원으로 '천수천안' 칼럼을 13년째 집필하는 한편, 인문학적 감성에 바탕을 둔 영화에세이들을 시리즈로 발표했다. 희곡집으로 〈외줄위의 분장사〉, 〈바이올렛 왈츠〉, 〈새는 동굴에서 울지 않는다〉, 〈자물쇠는 뻐꾸기 소리에 맡겼다〉와 칼럼에세이집 〈가슴에 폭탄을 품은 여자들〉, 영화에세이집 〈삶 가운데 영화가 있었다〉가 있다.

계율에 대한 친절한 길라잡이



초학자와 함께하는 계율공부
정현 스님 지음
서주 스님 그림
담앤북스 펴냄/ 1만 6800원

한국불교의 비구니 수행도량 봉녕사에서 학인들과 계율 공부를 하며 정진하고 있는 정현 스님이 〈수계 50문답〉에 이어 두 번째 저작인 〈초학자와 함께하는 계율 공부〉을 선보였다.

이 책은 계율을 익히고, 율법에 따라 청정한 수행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저자가 불교 수행자와 초심자 그리고 재가불자들의 계율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펴낸 책이다.

총 50개의 다양한 주제로 엮은 글은 출가의 의미, 계율의 수지, 출가자의 품격과 복장, 계 받는 일의 중요성, 정법이 오래 머무는 조건 등 수행자와 계율에 대한 이야기와 남산율종의 특징, 승가의 화합과 갈마, 수행자의 결기 등 승가 공동체가 잘 받아 지녀 후대에 계율이 온전히 전달되기를 바라는 저자의 발원과 초학자들의 정견 확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정현 스님은 출가 후 대만의 계율 도량인 의덕사에 유학하여 계율을 공부하면서 습득한 계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율장의 중국 전래와 사분율 수계를 비롯하여 남 · 북방 불교의 계율관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밝히는 등 계율을 심도 있게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와 실참을 바탕으로 하여 계율 수지의 중요성과 진정한 출가자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보여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계율은 불교 수행자만을 위한 것이고 그들만이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 글은 통해 본 계율은 수행자뿐만 아니라 재가불자들이 함께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며 각자의 수행길에서 계율이 잘 지켜진다면 수행의 길이 훨씬 용이할 것이라는 저자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책의 곳곳에 현재 미국 위산사에서 정진 중인 서주 스님의 그림을 넣어 좀 더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여유롭게 읽을 수 있도록 편집한 것도 눈길을 끈다.

신성민 기자

내면의 힘을 키우는 마음안내서



꽃가루처럼 내려 놓아라
이시현 지음
쌤앤파커스 펴냄
1만 6800원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4명이 불안장애를 겪고 있다고 한다. 직장 내 스트레스, 가족과의 갈등, 불확실한 미래, 바쁜 일상과 인간관계의 피로 등. 현대인들의 마음은 잠깐의 평온도 유지하기 힘들다. 그래서일까, 명상으로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열풍처럼 증가하고 있고, 마음챙김이라는 말이 이제는 거의 일상어가 됐다.

비틀즈, 마이클 조던,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등에 이르기까지 유명 인사들의 명상 관련 일화는 유명하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직원 교육 프로그램으로 명상을 도입하여 마음 훈련을 해오고 있으며, 이곳의 CEO들도 절반 이상이 명상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구글이나 삼성 등 수많은 기업에서도 직원들의 멘탈 트레이닝으로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명상이 과학, 심리학과 연결,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 치유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알려지면서 각 기업과 학교, 병원이나 스포츠 분야 등 다양한 곳에서 명상을 이용한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꽃가루처럼 내려놓아라〉는 내면 성찰과 의식성장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영성 안내자인 저자가 명상을 통해 접속한 마음챙김으로 누구나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탄탄한 내력(內力)을 키우는 방법을 안내한다. 고요한 상태에서 내면에 집중하여 스트레스와 불안을 제거하고, 더 나아가 의식을 성장시킴으로써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까지 밝히고 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마음챙김 방법과 의식성장 솔루션, 실천 워크북, 마음챙김 가이드 명상 QR코드까지 수록해 혼자서도 훈련을 따라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의식성장 솔루션에 참여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적 성장을 이룬 사람들의 다양한 체험 사례까지 수록했다.

신성민 기자

아는 것이 힘이다!! 불교 사자성어



운창화 지음 | 224쪽 | 13,800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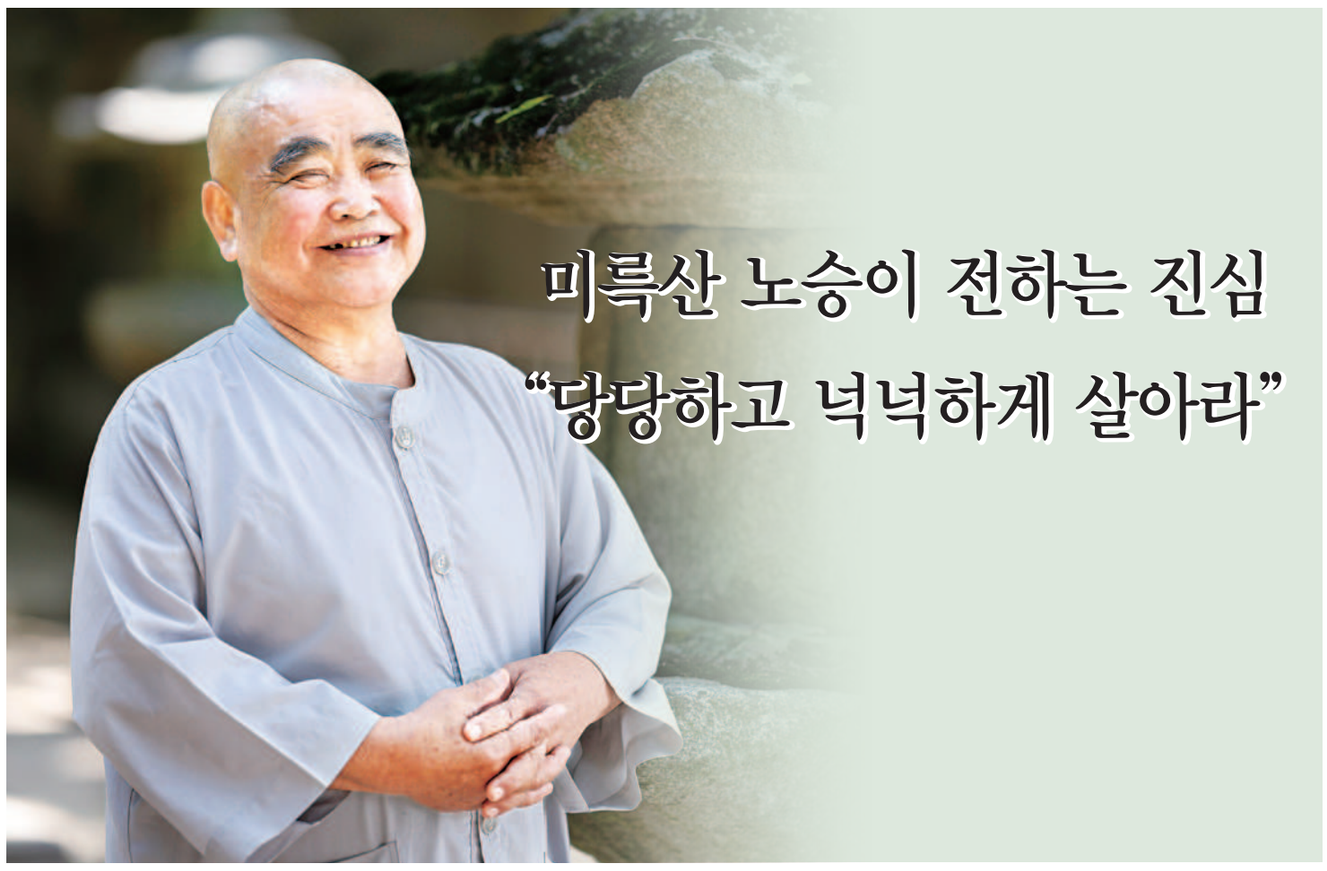
- 불교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사자성어 60개를 하루에 한 개씩, 두 달 동안 익힌다면 문해력 최고의 지식인!!
- 글자의 뜻과 의미, 그리고 삶의 지혜 불교사자성어 60개를 완전히 이해한다면 당신은 이미 지성인!

적습성성 (積習成性) "습관이 인간을 만든다"

습관이 오래 되면 천성이 된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격, 성품으로 굳어 버리게 되는데, 그것을 적습성성이라고 한다. 반복된 행동이 만드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문 중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미륵산 노승이 전하는 진심 "당당하고 넉넉하게 살아라"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산골 노승의 푸른 목소리
향봉 스님 지음
불광출판사 펴냄
1만 7000원

미륵산 사자암 주석 향봉 스님
유려한 문체로 인생 지혜 전해
"오늘의 주인공으로 살라" 당부

20년째 익산 미륵산 사자암에 상좌도 없이 주석하며 수행 중인 향봉 스님. 스님은 1980년대 법정 스님 등과 함께 베스트셀러 작가로 이름을 떨쳤다. 당시 저서 〈사랑하며 용서하며〉는 60여 만 부가 판매되는 기염을 토했다.

향봉 스님의 글에는 스님만의 특별한 글맛이 있다. 어느 문장은 한없이 말랑한 위로가 담겨 있기도 하고, 또 어느 문장은 금방이라도 칼끝에 베일 것처럼 날카롭고 예리하다. 그렇기에 스님의 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럼에도 한동안 책을 발간하지 않던 향봉 스님이 올해 봄 〈산골 노승의 화려한 점심〉으로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다. 하지만 아직 다 못한 이야기가 남아설까. 향봉 스님은 〈산골 노승의 푸른 목소리〉로 다시 대중을 찾았다.

전작 〈산골 노승의 화려한 점심〉이 향봉 스님의 구도기이자 깨달음에 대한 기록이었다면, 후속작 〈산골 노승의 푸른 목소리〉는 60여 년 동안 수행자의 길을 걸으며 수없이 던졌던 아주 오래된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유하며 터득한 진리에 관한 이야기이다.

책에는 스님의 아주 오래된 질문인 행복과 자유, 삶과 죽음, 그리고 인생을 엮어가는 지혜와 깨우침의 죽비소리가 절절하다. 한 줄 한 줄 가슴에 새기며 책장을 넘길 때마다 그 어떤 설법보다 강렬하게 가슴에 와닿는 스님의 푸른 목소리가 진한 감동으로 다가온다.

1장은 진정한 행복에 대한 가치와 기준, 2장은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삶과 죽음의 성찰, 3장은 인생을 대하는 삶의 지혜로운 태도, 4장은 온전한 깨달음으로 완성하는 수행, 5장은 참된 스승으로 수행자의 길을 걸어야 할 수행승들에게 던지는 애정 어린 쓴소리를 진솔하게 담아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 산다. 그러나 행복은 정해진 틀이나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다. 향봉 스님은 말한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 있다고. 마음을 열고 보면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게 없다고. 아침 일찍 절 마당에 찾아온 산새의 지저귐에도 행복을 느끼고, 소박한 반찬에 밥 한 그릇으로 배를 채워도 부족함 없이 행복하다. 사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것, 별 것 아닌 소소한 일상이 곧 행복이다.

모든 병은 집착과 욕심에서 비롯된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행복' 해야 한다는 것조차 스스로 최면을 걸어 놓고 강박적인 '집착' 에 매달려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산다는 건 닫힌 세상을 향해 먼저 마음의 빗장을 푸는 일이다. 마음이 열리면 세상이 열리고, 생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세상 모든 것은 지나가는 찰나일 뿐 그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 하여,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는 오늘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고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 어제는 이미 지나가 미련 둘 게 없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아 두려울 게 없다. 스님은 지나간 어제에 흔들리는 자는 '좀팽이' , 다가올 내일의 일을 미리 앞당겨 헐떡이는 자는 '머저리' 라고 칭한다. 오늘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변두리와 모서리를 서성이는 아웃사이더의 삶을 경계한다.

"지나간 어제의 일에 흔들리는 자는 좀팽이이고 다가올 내일의 일을 미리 앞당겨 헐떡이는 자는 머저리이다.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요 내일은 다가올 오늘이다. 오늘은 오로지 오늘뿐이다. 영원한 오늘의 주인공으로 주눅 들지 말고 기죽지 말고 나만의 행복, 나만의 자유를 위해 닫힌 문 열고 새 출발의 설렘으로 당당하고 넉넉하게 살 일이다. 너와 나, 우리 모두는…."

–'여는 글' 중에서

어찌 인생이 달달하기만 할까, 어찌 인생이 쉽기만 할까. 누구나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에 부딪혀 위기의 순간들을 넘겨야 할 때가 있다.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잠시 흔들릴 때 이 책을 펼쳐본다면, 막막했던 가슴이 시원하게 뚫리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향봉 스님**은?

익산 미륵산 사자암 주지. 상좌도 공양주도 없이 홀로 밥 지어 먹고, 글 쓰고, 산책한다. 어린 시절에 백양사로 출가했고, 해인사 선방을 거쳐 〈불교신문〉 편집국장과 부사장을 지냈다. 조계종 총무원 포교부장, 총무부장, 중앙종회 사무처장,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하며 불교계 '실세'로 활동하기도 했다. 반면에 1973년 〈현대시학〉을 통해 등단한 시인으로서, 수필집 〈사랑하며 용서하며〉가 60만 부 이상 팔리며 베스트셀러 저자로 유명세를 떨쳤다. 올해 봄, 〈산골 노승의 화려한 점심〉을 펴내며 40여 년 만에 다시 베스트셀러 작가로 돌아왔다.

두려움 없이 나이 들기 위한 셀프 코칭



오십에 하는 나공부
남혜경 지음
샨티 펴냄
1만 7000원

〈오십에 하는 나 공부〉는 '퇴직과 새로운 일', '남편, 아내, 자녀, 친구들과의 관계 변화', '나이 듦', '상실과 죽음' 등등 삶의 커다란 변화에 직면한 50~60대들이 '코칭' 을 통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코칭이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더 나은 삶의 길을 스스로 찾아가도록 돕는 과정"이고, 이 책의 저자처럼 그 여정을 함께하면서 적절한 질문을 던져 도움을 주는 존재가 바로 코치이다. 이 책은 이렇게 다양한 상황의 코칭 사례들을 자세히 보여줌으로써, 코치가 곁에 없더라도 독자 스스로 자기 상황에 필요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셀프 코칭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이런 코칭 철학은 저자가 꾸준히 공부해 온 불교의 가르침 방식과도 참 많이 닮아 있었다. 부처 자신이 깨달음을 얻기까지 수많은 질문을 갖고 수행하며 스스로 답을 찾았고, 가르침을 펼 때도 상대가 스스로 이해하고 깨달을 때까지 질문을 계속했다. 그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궁극의 답을 찾고 진리의 빛을 발견할 때까지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답들이 꼭 부처의 그것과 같거나 닮은 것일 필요는 없다. 다만 답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나에게 어떤 질문이 필요한지 찾을 수 있으면 된다. 물론 그 질문을 위해 지혜가 필요하다면 부처를 포함해 다른 어떤 선각자에게라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책 끝에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본 경험이 별로 없는 독자들을 위해 부록으로 '지금 나에게 필요한 108가지 질문' 을 실어, '새로운 변화를 원할 때' '더 바람직한 관계를 만들고 싶을 때' '상실과 죽음의 두려움으로 불안할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한 질문을 찾아 쓸 수 있도록 했다.

▲저자 **남혜경**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국문학과 저널리즘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대중 매체 기자와 편집자로 십수년을 살다 오십 고개를 지나며 라이프코치가 되었다. 동년배 시니어들과 소통하며, '늙음'이 하릴없이 물러나 앉는 일이 아니라 더욱 사랑하고 베푸는 성숙의 과정임을 확인하고 실천하는 코치가 되고 싶어 한다. 두려움 없이 늙어갈 수 있기를 꿈꾸며 '안심하고 나이 들기'라는 모임을 만들어 공부하며 토론하고 있다.

임은호 기자

삶과 사랑과 죽음에 관한 대화



웰다잉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
람 다스&미라바이 부시 지음
유영일 옮김/올리브나무 펴냄
1만 8000원

'낡은 옷을 벗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안전하고 편안한 죽음을 맞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인류 공통의 정서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을 극복하고 편안하게 잘 죽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의 철학' 이 유효할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부모와 친지, 사랑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지켜줄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 앞에서 미국 정신계의 전설인 람 다스가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자신이 온 생애를 통해 터득한 '지혜의 보물창고' 를 열어 보였다. 이 책은 동양의 명상법을 서구에 전파한 람 다스와 마음챙김으로 구글에 새 바람을 일으킨 미라바이 부시의 삶과 사랑과 죽음에 관한 대화다.

람 다스는 최상류층 가정에서 태어나 30대 초에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되었으나 환각제 효과를 통한 인간의 의식 확장 실험으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켜 교수직에서 파문당하고 인도로 간다. 동양의 영성과 명상 전통에 충격을 받은 그는 '마하라지' 로 더 잘 알려진 '님 카롤리 바바' 를 만나 몸, 마음을 넘어선 거대한 사랑의 물결을 체험하고 대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나' 라는 존재는 '내가 생각하는 나' (에고)가 아니라 '사랑의 의식' 곧 영혼이라는 것을 온 존재로 깨달은 것이다. 마하라지로부터 '신의 종' 이라는 뜻을 지닌 람 다스라는 이름을 받고 미국으로 돌아온 그는, 동양의 영성과 요가를 대중화하는 초석이 된다.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인생을 바꾸어 준 멘토' 로 여겼을 만큼 미국 사회에 그가 끼친 영향은 깊고도 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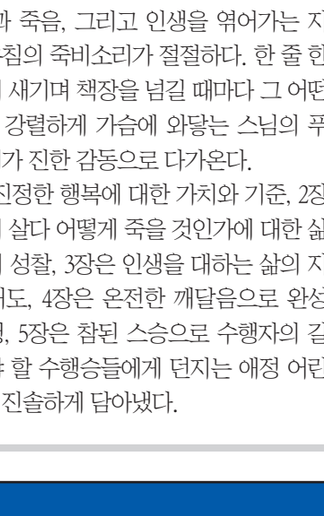
1997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그는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지만 실어증을 갖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부터는 하와이 마우이에 자리를 잡고 다른 영적 리더들과 함께 계속해서 수련회를 열었으며,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도반인 미라바이 부시를 초청, 두 사람의 친밀한 대화를 통해 마지막 책을 쓰기로 결심하고, 웰다잉의 매뉴얼이라 할 수 있는 이 책을 세상에 남겼다.

이 책은 선물이자 기쁨이며,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촉발되곤 하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리셋 버튼이 되어줄 것이다.

임은호 기자

눈이 맑아지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산골 노승 향봉 스님의 시리도록 절절한 글맛!

2023년 종교 분야 최고의 베스트셀러
독자들이 먼저 알아보고 증명한
첫 번째 산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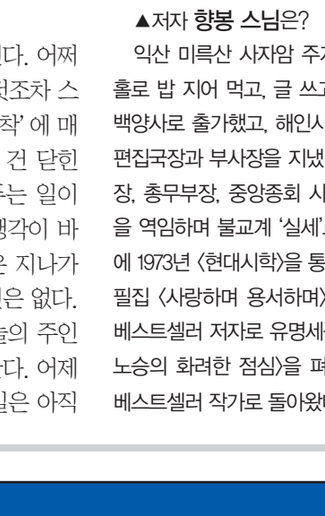
눈물과 폭소를 오가며 손에서
책을 놓지 못해 하루 만에 완독한 책!
- ★★★★★ 〈알라딘〉 독자 리뷰

3번 이상 정독할 가치가 있음!
- ★★★★★ 〈예스24〉 독자 리뷰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게 됩니다.
- ★★★★★ 〈교보문고〉 독자 리뷰

산골 노승의 화려한 점심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자유로운 삶
향봉 지음 | 248쪽 | 값 17,000원

출간 즉시 종교 분야 베스트셀러
독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엮은
두 번째 산문집



젊은 날의 어느 날, 세차게 내리는 장맛비를
실오라기 한 올 걸치지 않고 알몸으로 맞으며
엉엉 소리내며 흐느낀 추억이 있다.
무엇으로도 무슨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젊음이
승복 안에 갇혀 답답하고 가련하여 울었던 것 같다.
이제는 머리 허연 한 마리의 짐승이 되어
봉지커피를 마시면서도 곱게 자란 행복으로
고마워하고 있다. -본문 중에서

산골 노승의 푸른 목소리
자유롭고 당당하게 오늘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삶
향봉 지음 | 248쪽 | 값 17,000원

인생이 덧없고 허무하게 느껴진다면
불교 공부하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때!

드디어 찾았다!
불교 공부를 어려워하는 이들을 위한
세상에서 가장 친절하고 재미있는 불교 입문서!

단숨에 읽어지고 즐겁게 깨치는
원영 스님의 불교 수업



주요 온라인 서점 종교 분야 베스트셀러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
원영 지음
352쪽
18,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29 스리나가르여, 스리나가르여 3



▶한줄 요약
알렉스와 헤어진 이 기자 일행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많은 의문을 품은 채 뉴델리로 향했다.

예수가 인도에 왔었다는 기록은 사실일까

식사나 하자며 다섯이 인근 식당을 찾았다. 허름한 간이음식점이었다. 차와 자빠디를 시켜 먹으며 좀 전에 오오스마 기자와 나누던 말을 곱씹었다. 생각할수록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렉스와 말을 나누게 되었다. 먼저 알렉스에게 입을 연 것은 오오스마 기자였다. 그도 나와 나누던 말을 곱씹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이곳이 이슬람 문화권이긴 한데 그보다 먼저 불교 문화권이라는 것은 모르시지는 않으셨을 텐데…?

오오스마 기자의 말에 알렉스가 고개를 주억거렸다.

-맞습니다. 알고 있어서 더 이상했습니다. 이곳으로 와보니 이곳은 불교라는 종교가 속으로 퍼져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분명히 이슬람 문화권인데 말입니다. 이슬람교에 묻혀 불교의 사원들은 이슬람교의 모스크로 변해 버렸다는 걸 알 수 있었지요. 스님 대신 이슬람교의 선승들이라고 하는 수피들이 영성(靈性)을 전파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레에 있는 한국 절에 들렀어요. 한국 선승들의 공부 방법이 지켜지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 공부 방법이 특이했어요. 공부 방법이 이곳 계절과 안성맞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여름과 겨울에 사원에 들어앉아야 하는 승들의 안거(安居)가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았고요.

안거란 여름 한 철과 겨울 한 철을 택해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곳은 따뜻한 곳이었지만 비가 많은 곳이라 그래서 더욱 여름 한 철 안거를 정해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체계를 잘 갖추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곳 사찰 스님들의 공부 방법도 특이했어요. 주로 앉아서(좌선) 하고 있었는데 무엇보다 특이한 것은 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신 대신 책상다리하고 명상에 들어 조용히 우주를 관한다고 해요. 그걸 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일어나 이곳으로 와 불법을 연구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혹시 깨달음이란 말을 알고 있습니까?

듣고 있던 오오스마 기자가 알렉스에게 물었다.

-깨달음? 음 그거 이해 아닌가요?

-이해?

나도 모르게 눈이 감겼다. 깨달음과 이해? 알렉스의 이해는 안다는 차원의 말 같았다. 그렇다. 깨닫는다는 것은 앎의 다른 표현일 수 있다. 불교를 모르고서야 불법을 알 수는 없다. 그렇다면 먼저 불법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이해의 수준이다. 하지만 붓다는 앎을 비우지 않고는 붓다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불법은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불법의 모순이 시작된다. 알지 않고 불법을 어떻게 알며 성불해 낼 것인가? 그런데도 붓다는 앎은 비워야 붓다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정녕 비웠을 때 새벽별이 깨침이 된다고 했다. 깨달음? 깨침? 그렇다면 이 말은 다른 말이다. 깨달음이 이해의 수준이라면 깨침은 지금까지의 내가 깨어진다는 말이다. 병아리가 껍데기를 깨고 나오듯 한순간 세상 빛을 본다는 말이다.

-그럼 깨침이란 말을 아십니까?

잠시 생각하던 내가 알렉스에게 물었다.

-깨침이라고 하셨나요?

-네.

-무슨 말인가요? 깨어진다는 말인가요?

-맞습니다.

-네?

-종교는 하나 같이 깨어져야 하지요. 깨어지지 않고 새로운 내가 태어나겠습니까. 이곳 승들은 자신을 깨기 위해 앉아 있는 겁니다. 미련하게.

좀 화가 난 듯한 나의 어투에 알렉스가 고개를 갸웃하며 웃었다. 그러면서 말했다.

-어렵군요.

나는 입을 닫아버렸다. 그렇지. 어렵지. 어렵지 않고 어떻게 불법을 얻을 수 있으랴. 너도 깨어지기 위해 예수의 무덤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겠느냐.



알렉스와 헤어져 뉴델리행에 몸을 실었다. 여행객들이 태반이었다. 알렉스와 헤어지긴 하였지만, 아직도 예수의 지팡이가 의식의 언저리를 맴돌고 있었다.

-저 사람(알렉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는 예수의 무덤을 그 후로 본 적 없습니까?

차에 몸을 실으면서 내가 오오스마 기자에게 물었다. 예수가 석관 속에 묻혀 있다는 곳까지는 가보지 못했으므로 취재한 적이 있느냐는 말이었다.

오오스마 기자가 고개를 내저었다.

-국장님이 어떻게 구워삶아 혼자 들어가 보았다고는 하더군요.

-그래요?

-뭐 볼 것도 없더랍니다. 안이 너무 조악했다고 해요. 예수의 묘석과 시에르의 묘석 그리고 예수의 발자국은 우리도 보았고 그것을 지나자 너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랍니다. 여명의 빛에 의해 나무로 된 성배 용기가 아닐까 싶은 것들이 보였는데 그래서 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켜지 못하게 하더랍니다. 예로부터 함부로 그곳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지만 들어가 보았다가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신성한 곳이라 부정을 탄다는 말 같은데…?

오오스마 기자가 웃었다. 내 말의 의미를 안다는 웃음이었다.

-글쎄요? 생각해 보면 그곳만큼 신성한 곳이 어딨겠어요. 자연히 잡인이 금지되기 마련이겠죠. 물론 예수가 이곳에 온 것부터가 추측이지만요. 19세기 러시아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는 열세 살에 한 상인을 따라 인도에 왔다고 해요. 닿은 곳이 스리나가르라는데 이상하잖아요. 성경에도 어린 시절 대부분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말을 들으면 그래 보이고 저 말을 들으면 그래 보이고. 무엇보다 인도에서도 스리나가르행은 말리는 입장이고 보면.

-왜요?

-우리도 겁 없이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지금도 이슬람 무장 단체 등이 정부군과 총격하는 곳이 여기거든요. 그럼 그때라고 정세가 좋았겠어요. 무엇보다 예수가 부활해 이곳으로 왔다는 것이에요. 누군가에 의해 이곳으로 옮겨졌다고 해도 말이 맞지 않아요. 사실 이곳은 불교국이 아니에요. 스리나가르 어디에서도 불교의 색채는 없어요. 대신 이슬람 문화가 잡고 있죠. 그럼 그들이 꾸며낸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슬람에서 예수의 위치는 엄청나죠. 특별히 찬양받는 지위에 있고 코란에도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3:45-47)고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신에서 나온 성령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으니 신앙이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역시 조작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말이 일리가 있다?

-첸나이에 있는 성 도마 성당의 신부가 언젠가 누군가에게 물었다고 해요. 성 도마를 아세요? 하고.

-성 도마?

-예수의 제자죠. 그는 인도 남부에서 전도하다가 첸나이에서 죽었습니다. 성 도마 성당은 성 도마의 무덤 위에 지어진 성당이죠. 그가 말했어요. 인도 카슈미르 지방의 고대 문헌에 예수의 행적이 많이 나온다고. 그런 현상들이 이슬람 문화권의 조작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분명히 무쿠암이 예수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일어나는 의혹 때문에 말을 꺼냈는데 다시 아니다 하는 확신이 들었다.

스리나가르를 벗어날 때쯤 말이 없던 오오스마 기자가 손가락을 창날처럼 세워 어딘가를 가리켰다. 그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더니 비석이었다. 제법 컸는데 약간 비스듬하게 누워 있었다.

-비석 같은데요?

내가 물었다.

-비정(非情)의 비(碑)입니다.

-비정의 비?

-옛날 이곳에서 아주 먼 곳에 브라흐마푸라라는 나라가 있었지요. 거대한 설산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나라였는데 동녀국이었습니다.

-동녀국? 여자들의 왕국?

오오스마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정말 동녀국이 있었단 말입니까? 난 영화에서나 보았는데….

-실제로 있었답니다.

-재밌네요. 그럼 왕도 여자였겠군요?

-물론이지요.

-그럼 남자는?

-물론 남자도 있었지요. 하지만 필요한 만큼만 남자애를 살렸다고 해요. 그리고는 가축을 키우듯이 키워 씨받이로 쓰거나 전쟁의 병사로 쓰거나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을 시켰지요.

-가축을 키우듯이?

-어느 날 그것을 알 리 없는 다른 나라 스님이 설산을 헤매다가 그 나라로 들어섰답니다.

그렇게 말하고 오오스마 기자가 다시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말이었다.

스님이 동녀국으로 들어서기가 무섭게 동녀들이 창을 겨누고 달려들었다. 꽁꽁 묶여서는 여왕 앞으로 끌고 갔다. 여왕은 이제 열여덟 정도의 고운 처녀였다. 얼굴이 희고 몸이 나이답지 않게 풍만했다. 잘생긴 스님을 보더니 헤살헤살 웃으며 자신의 시중으로 쓰겠다고 하였다.

-사문을 농락한다면 무간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모르시오?

스님은 결박당한 채 여왕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그러자 여왕이 물었다.

-사문이라 했느냐?

-그렇소이다.

-참 이상하게 생긴 사문이로다. 어디로 가는 길이냐?

-법을 구하려 방황하고 있소이다.

-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이냐?

그녀는 스님을 자신의 침실로 데려갔다. 침실에는 술상이 차려져 있었다. 여왕이 그의 앞에 술을 쳤다.

-한 잔 들려무나.

-사문은 술을 먹지 않소.

-왜 먹지 않느냐?

-정신을 흐리게 하기 때문이오.

-그럼 고기라도 뜯어라.

-고기도 먹지 않소.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왜 고기를 먹지 않느냐?

-살생이기 때문이오. 무엇보다 음기를 부추겨 색욕을 발동하기 때문에 먹지 않소.

-그럼 나물이라도 먹어라.

스님은 나물만 먹었다.

술상을 물리고 여왕이 옷을 모두 벗고 스님을 잠자리로 이끌었다.

스님은 벌벌 떨었다. 여왕의 육신을 보자 나물만 먹던 몸인데도 갑자기 색욕이 발동했다. 그래도 파계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스님은 붓다를 찾았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여왕이 고개를 갸웃하며 스님을 불렀다.

-어서 옷을 벗고 이리로 오너라.

그래도 스님은 눈을 감은 채 중얼거리고 있다.

-도대체 무슨 소릴 중얼거리고 있는 것이냐?

-내 주인을 찾고 있소.

-네 주인이 누군데?

-내 스승이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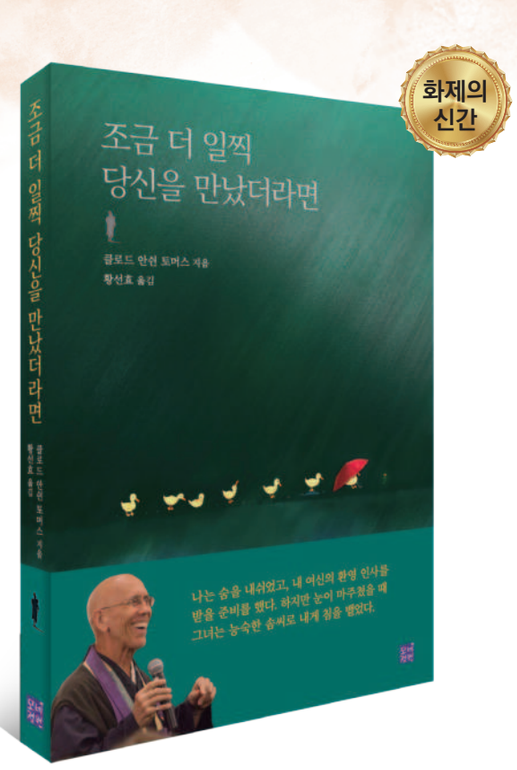
-이놈아, 이제 내가 네 주인이다. 여봐라.

밖의 시종들이 들어왔다.

-불렀사옵니까? 여왕 마마.

-저놈의 정신이 온전치 않다. 술을 먹이거라. 짐승이 될 때까지. 〈계속〉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

구미래의 새롭게 만나는 불교의례 ⑮ 행자생활



▶한줄 요약
행자시절을 출가 이후의 가장 중요한 시기로 꼽는 이유는 그 시절의 간절한 구도심 때문이었다. 갖은 힘든 일을 하면서도 그만한 수행이 없었고, 신심이 솟아오르던 시절이었기에 고생 또한 기꺼이 할 수 있었다.

깨달음 위해 스스로 들어선 고난의 길

삭발과 입방을 거쳐

스님들은 출가 이후의 가장 중요한 시기로 행자(行者) 시절을 꼽는다. 그 무엇보다 대중과 함께 하는 초심시절의 마음공부가 큰 힘이 되었기 때문이다. "행자 때 지은 복으로 평생 승려노릇 한다"는 말도, 대중을 위한 하소임을 수행으로 여기며 살아온 행자의 삶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행자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은 삭발이다. '머리를 깎는다'는 말이 출가를 뜻하듯이, 삭발은 속가와 단절된 출세간의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자 징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막 바로 행자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사찰 일꾼들과 함께 기거하며 일상을 함께하다가 때가 되면 삭발과 함께 행자실로 입방(入房)할 수 있었다. 본인도 사찰에서도 출가자의 삶을 살아갈 자질이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본래 행자는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행자를 마치고 예비 스님이 되는 수계를 '득도식(得度式)'이라 불렀는데, '득도'란 정식으로 불문(佛門)에 든다는 뜻으로 이때 머리를 깎아준 것이다. 그러나 실제는 얼마간 지켜본 다음 스님이 될 자질이 있으면 삭발을 허락하여, 일찍부터 출가자로서 스스로 마음가짐을 다지도록 하였다. 그 뒤 점차 삭발에 의미를 두면서 행자의 머리를 깎아주는 것을 득도식이라 부르고 있다.

행자를 아예 받지 않아 출가가 쉽지 않던 시절도 있었다. 1960~1970년대까지 사찰마다 행자가 많았는데, 절 살림이 힘들어 스님들도 각자 자비량(自費糧)을 내던 시절이었으니 행자를 무한정 수용하기가 힘들었을 법하다. 1960년대 금산사에서는 행자에 대한 심사가 엄격하여, 어느 스님은 당시 어리다는 이유로 쫓겨날 뻔했다가 울며 매달려서 간신히 허락을 얻을 수 있었다. 행자로 받아주지 않아 한 달간 객실에 머물며 '쫓아내면 목숨을 끊겠다'는 위협까지 하여, 산감(山監) 노릇석 달 만에 입방하는 경우도 있었다.

삭발할 때는 이를 '득도식, 삭발식, 행자 입방식' 등이라 부르며 간단한 의식을 행하는데, 선배들은 신입 행자가 머리를 깎기 전에 발심 기도를 열심히 하도록 이끌어주었다. 그런가 하면 행자가 많은 절에서는 선임과 신임의 행자실을 구분하고 위계를 분명히 하는 한편, '행자 반장'을 두기도 하였다. 해인사 행자실은 예전부터 규율이 엄하기로 이름 높아, 아래채의 하행자(下行者)는 위채 상행자(上行者)들의 눈도 바로 볼 수 없었다고 한다.

근래 해인사에서는 절에 들어와 일주일이 지나면 '행자 삭발식'을 하고 있다. 삭발하는 날이면 원주 스님과 모든 행자가 동참하여, 삼귀의 · 반야심경 · 참회진언 · 사홍서원 등이 따르는 가운데 머리를 깎아주고 행자복으로 갈아입힌다. 삭발식을 마치면 선임 행자 중 막내가 삭발한 머리카락을 땅에 묻고 반야심경을 외움으로써, 후임 행자가 장애 없이 행자생활을 마쳐 사미계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있다.



통도사 공양간에서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밥을 짓는 행자 ©하지권



마지를 올리기 위해 법당으로 향하는 행자(순천 송광사)

머리를 깎고 나면 행자들은 긴 시간 동안 고된 허드렛일을 하는 가운데 행자교육을 받으며 수행자의 길을 걸어간다. 예전에는 행자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1년에서 길게는 3년간 행자로 사는 경우가 많았다. 1970년대에 와서 여섯 달 정도 행자생활을 한 뒤 계를 받는 이들이 나오게 되지만, 당시에도 자율적인 기간을 적용하는 사찰이 더 많았다. 따라서 계를 받을 때쯤이면 후원 일과 농사를 모두 익힌 '만능 행자'가 되게 마련이었다.

자신 삶에 대해 확신 서면
고난도 의미 있게 받아들여
스스로 선택한 고난 마친자
출가수행자 길 걸을수 있어

선망의 공간인 대방

행자들에게 대방(大房)은 선망의 공간이었다. 큰스님부터 학인에 이르기까지 대방에 모여 여법하게 발우공양을 하는 모습, 강원 · 선원의 대중이 경전을 읽거나 참선에 든 모습을 보면 신심이 절로 나곤 하였다. 하루빨리 저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 물을 긷거나 나물을 다듬으러 대방 앞을 지날 때마다 훔쳐보았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발우공양 때 행자가 전체 대중과 함께하기 힘들었던 듯하다. "행자들은 공양할 때 스님들과 같이 앉지 못했다. 지금과 달리 옛날에는 어림도 없었다", "행자와 학인의 위상은 하늘과 땅 차이라서 한 자리에 편히 앉지 못할 만큼 규율이 엄했다"는 스님들의 말처럼, 아직 승려 신분이 아니기에 대방에 나란히 앉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선원청규〉에는 공양 때 음식을 분배하는 행익(行益)을 비롯해, 생반(生飯)을 거두어가는 등의 소임을 재가자인 정인(淨人)이 맡도록 하였다. 오늘날 한국의 발우공양에서 스님들이 행익을 맡는 것과 달리, 출가자 스스로 음식을 더는 행위를 금한 것은 중국불교의 공양 의식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듯하다.

아울러 행익 때 따로 갈식행자(喝食行者)를 두어 큰소리로 순서를 알리도록 하였다. 이를테면 "이제 흰죽을 올리겠습니다" 하는 식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정황을 살펴볼 때 정인 또한 행자가 맡았을 가능성이 크다. 음식을 분배하고 알리는 일을 재가자의 역할로 구분하고, 행자 또한 신분상 재가자의 영역에 둠으로써 비구의 위상과 다름을 분명히 한 셈이다.

그런데 실제 한국불교에서는 행자가 발우공양에 동참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수계자만 발우공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습이 있었더라도, 승가의 규범으로 정한 것은 아니어서 융통성 있게 적용된 것이다. 이를테면 한동안 처사 신분으로 일하게 한 다음 행자로 받아들인 1970년대 선운사에서는, 정식 행자가 되기도 전에 대방에서 스님들과 함께 발우를 폈다. 이로 보아 행자 이전의 처사 신분은 마음가짐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였고, 그들 또한 행자이자 수행자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석남사의 경우는 1957년에 인홍 스님이 주지로 부임하면서부터 행자도 함께 발우공양에 동참하고 있다. '누구도 수행하러 들어온 이는 뒤에서 속인같이 먹지 않는다'는 인홍 스님의 의지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행자들이 공양간이나 뒷방에서 따로 공양하는 사찰이 대부분인 가운데, 일상의 공양을 함께하는 문화도 나란히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융통성이 가능했던 데는, 예전의 발우공양이 안거 등 특별한 기간에만 행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공양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을 듯하다. 오늘날에는 행자의 신분 때문에 발우공양에 동참하지 못한다는 인식은 거의 사라졌고, 음식을 나르며 공양 뒷바라지에 집중해야 하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라 한다. 따라서 예나 지금이나 수계 여부를 둘러싼 담론보다,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가 더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대방의 대중으로 앉는 것'이 간절한 바람이었던 행자들은, 발우공양에 동참함으로써 출가자로서 긍지와 환희심을 느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대방에서 큰스님부터 서열대로 앉은 가운데 밥과 반찬을 나르고 공양해야 하는 불편한 시간이기도 했으니, 이는 하판에 자리한 승려들이 거쳐야 할 통과의례였던 셈이다.

하소임의 용맹정진

예나 지금이나 행자의 주된 소임은 공양과 관련된 허드렛일이니, 행자 처소는 후원 근처에 배치하게 마련이다. 행자는 궂은일부터 차례대로 맡았다. 처음에는 주로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는 부목(負木), 방마다 아궁이에 불을 때는 화두(火頭), 물을 길어 오는 수두(水頭) 등의 소임이 돌아왔다.

다음 행자들이 들어오면 선임은 설거지와 상을 차리는 간상(看床) 등을 맡고, 점차 국을 끓이는 갱두(羹頭)와 반찬을 만드는 채공(菜供)을 거쳐, 밥을 짓는 공양주를 살기도 하였다. 큰 절에서는 찌개만 전담하는 '찌개 행자'를 두는가 하면, 인원이 많을 때는 선임과 후임이 짝을 이루어 상하 관계를 이루었다. 이러한 소임은 사찰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달라졌다. 강원이 없거나 작은 절이라면 행자가 맡는 일의 범위가 넓어지고, 강원이 있는 큰 절이면 위계에 따라 허드렛일을 중심으로 하게 되기 때문이다.

당시 큰스님들은 바늘을 가지고 다니며 공양간 바닥에 떨어진 밥알을 찍어서 씻어 먹음으로써 몸소 수행자의 자세를 가르쳤다. 이처럼 갓 출가한 행자시절부터 철두철미한 교육이 이루어져, 공양간에는 밥알 한 톨도 버려지지 않는 전통을 이어올 수 있었다.

일상의 후원 소임뿐만 아니라, 논농사 · 밭농사와 산나물 울력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중이 함께하는 일에도 앞장서야 하는 소임이 행자였음은 물론이다. 이처럼 일이 많고 고된 나날이라도 새벽예불에는 행자 또한 빠질 수 없었고, 예불을 마치면 후원으로 달려가 공양 준비를 했다. 그런 가운데 행자로서 익혀야 할 공부도 있으니, "요즘 학인들이 4년을 마쳐도 못 익힐 일을 그 시절에 다 했다"는 노스님들의 말이 실감 나는 대목이다.

그런가 하면 1940~1950년대 범어사에서는 예불을 올리기 전에 행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운판 · 목어 · 법고 · 범종의 사물을 치고, 도량석을 돌기도 하였다. 이는 1960년대 용주사를 비롯해 행자가 많았던 여러 사찰의 일상으로, 사찰 또한 체계를 잡아가던 시절의 모습이었던 셈이다.

노스님들은 행자시절, 아궁이 앞에서 초발심의 마음을 다지고 또 다졌다. '신심이 끝도 없던 때'라 부지깽이로 부뚜막을 두드리며 염불을 익히는가 하면, 서러울 땐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타오르는 불길에 빠져들면 어느새 무념무상이 찾아들곤 했다. 행자시절을 출가 이후의 가장 중요한 시기로 꼽은 이유도 그 시절의 간절한 구도심 때문이었다. 갖은 힘든 일을 하면서도 그만한 수행이 없었고, 신심이 솟아오르던 시절이었기에 고생 또한 기꺼이 할 수 있었다.

그들은 출가하여 처음 배운 〈초발심자경문〉이 행자시절의 큰 지침이 되어, 이후에도 힘들 때마다 출가의 발심을 끊임없이 일깨워주었다고 한다. 자신의 삶에 확신이 서면 현재의 고난 또한 의미 있는 것이 되고,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스스로 선택한 고난을 용맹정진으로 무사히 마친 자만이 출가수행자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이에 양관 스님의 다음 글귀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준다.

"바쁜 와중에서도 공부하고 소임에도 충실했던 행자들은 무사히 사미계를 받고 마치 연어처럼 강원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피로에 지쳐 공부는 뒷전이었던 행자들이 다시 세속으로 돌아가던 일도 생각난다."

〈불교민속연구소 소장〉

한국불교전통범패 학인모집

위 본 종단 종무원에서는 강주 민지효 스님을 모시고 전통범패의식을 기초의식부터 각종 의식과 사물 다루는 법을 알기 쉽게 교육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 연락 바랍니다.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신 분은 종무원장님으로부터 수료증(이수증)을 수여하며, 성적이 우수한 학인에게는 홍익범패단에 입단하실 기회를 드립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 개 강 : 2023년 9월 5일 화요일 오후 2시
■ 장 소 : 한국불교태고종 종무원 법당
■ 주 소 :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47 청하빌딩 4층
■ 접수처 : 부산 종무원 (051-5580-5077)
■ 강 주 : 민지효 (스님 010-4466-3575)

내 용
1. 조석예불 : 아침종송, 향수해례, 사성례 등
2. 사시예불 : 거불성, 독경, 동음 등
3. 삼귀의, 사홍서원, 거불, 헌좌게, 도량게 등
4. 천도의식, 수륙제, 점안의식, 화청, 공덕게
5. 천수바라, 사다라리바라, 요잡, 관욕바라
6. 도량게, 다게(나비춤), 법고춤

태고종 부산종무원 원장 마나

국가무형문화제 50호 영산재(세계유네스코 등재)

법주 대륜 스님의
'불교 전통제례의식 교본' 출시

49재 및 천도재 의식 교육자료



고객상담실 010-9049-0016 교재문의 010-6488-3761

강소연 교수의 깨달음의 미학 ⑮ 관세음보살32응탱 (1)

▶한줄 요약
조선 전기 명작인 '관세음보살32응탱'은 전통적 산수화 기법인 삼원법을 적용해 도상을 구현했다. 이는 평등성지의 경지를 이룬 관세음보살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가 표현됐다.



삼원법으로 구현한 평등성지 경지

우리는 5가지의 몸체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석가모니 붓다는 5온(五蘊)이라 했다. 다섯 가지의 덩어리 또는 무더기란 뜻으로 '색(色)·수(受)·상(相)·행(行)·식(識)'이다. 우선 물질로서의 색신(色身)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몸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다.(본래 용어는 색온(色蘊)이나, 보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색신이라는 용어를 본 글에서 쓰기로 한다.)

색신이라는 물질로서의 몸체(물질체) 이외에도 수신(受身), 즉 감각 또는 감정의 몸체(감정체)가 있다. 감정의 몸체는 긍정적인 면모보다 대부분 부정적인 면모로 형성되어 있어 어둡고 시커먼 형태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상신(相身)은 기억의 몸체(기억체)로 대상을 인식 및 인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 기억체로 인해 나는 '나의 인생과 과거가 있다'라고 착각하게 된다.

5가지 몸체의 유기적 작용

행신(行身)이라는 행동의 몸체는 나의 습관적인 행동 패턴을 말한다. 행동 패턴의 에너지 역시 뿌리 깊다, 그래서 이것을 업력(業力)이라고도 부른다. 전생의 행동 에너지는 다음 생으로 몸 바꾸어서도 이어져서, 소위 우리가 해왔던 특정 직업이라든가 특정 전공의 행위는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 소위, 신동 또는 천재라고 하는 아이들은 전생에 끌어올렸던 업력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그것을 다시 구현 또는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석가모니 붓다의 경우도 수십 수백의 생을 반복하며 수행력을 부처의 경지로 끌어올린 분이다. 다음으로, 식신(識身)은 의식의 몸체이다. 업식(業識)이라고도 하는데, 내가 살아온 신념과 관념 역시 고질적이어서 이 의식의 저장고에 축적된 대로 반응하게 되고, 이는 그 사람의 사람됨 또는 인격을 형성하게 된다.

이들 5가지의 몸체는 따로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즉각적으로 상즉상입(相卽相入)하며, 연쇄적으로 서로 반응을 일으키며 스스로를 더욱 강화한다. 물론 물질의 몸체(색신)가 죽어도 나머지인 감정·기억·행위·의식의 몸체는 그대로 살아남아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 이들 5가지 몸체는 서로 연쇄적으로 반응을 일으키며 스스로를 더욱 강화하며 생존한다. 이러한 오온의 생존 방식과 메커니즘을 밝히신 분이 석가모니 붓다이시다. "존재는 곧 오온이다(〈대념처경〉)"라고 붓다는 오온의 작용을 고집멸도苦集滅道와 12연기의 원리로 밝혀놓으셨다.

5온의 몸체를 벗어나는 방법

이러한 5가지 몸체(오온)의 감옥 또는 사슬로부터 단박에 벗어나는 방법이 사마타(집중) 수행이다. 덩어리를 덩어리인 채로 벗어던져 버리는 것이다. 사마타 수행을 통해 우리는 5가지 몸체와 결부 되지 않는, '또 하나의 의식'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을 '법의 몸체'라고 하여 '법신(法身)'이라고 한다. 오온의 몸체에서 벗어나 바탕자리 또는 바탕의식(심리학에서는 순수의식 또는 우주의식이라고도 부른다)이라고도 하는 법신의 몸체와 하나가 되면, 비로소 나(5온)과 분리되는 무아체험을 하게 된다. 이제 5온에 갇힌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진정한 객관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혜안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유식(唯識) 사상에서는 '평등성지(平等性智)'라고 한다. 평등한 성품의 관점의 지혜가 확보된 상태를 말한다. 평등성지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 이러한 관점을 그림으로, 불화로, 구현한 명작이 있다. 그 명작은 〈관세음보살32응탱(觀世音菩薩三十二應幀)〉이라는 조선 전기(가정 29년명)의 왕실발원 작품이다.

조선 전기 명작 '관세음보살32응탱'
관음보살이 세속 천태만상 굽어 봐
산수화 삼원법 적용해 도상을 구현
평등성지 경지서 보는 세상 표현돼



관세음보살이 세상을 관조하는 '관세음보살32응탱'의 부분. 조선 전기 왕실 발원으로 조성됐다. 현재 일본 교토 지은원에 소장돼 있다.

작품의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5온에 대한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하면 다음과 같다. 5온의 몸체를 우리는 '나'라고 간주한다. 5온 마다 자아(또는 에고 내지 아상)가 동반돼 그것이 '나'라고 동일시한다. 물질의 몸체는 당연히 기본적인 나라고 착각한다. 그리고 감정의 몸체도 '내가 이렇게 저렇게 감정을 느낀다'라고 간주하고, 기억의 몸체도 '나의 기억, 나의 인식'이라고 착각하고, 생각도 '나의 생각'이라고 자아와 동일시한다. 이러한 동일시와 단박에 분리하는 방법이 사마타 수행을 통한 삼매 체험이다. 그리고 5온의 작용을 지금 이 순간, 분해해 산산조각 내어버리는 방법이 위빠사나 수행이다. 위빠사나 수행을 통해 5온의 덩어리 또는 무더기는 더 이상 스스로를 공고히 하지 못하고, 부서져버린다. 업장(또는 무의식)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것을 산산이 분해하여 공(空)을 드러나게 하는 방법을 붓다께서는 밝혀놓으셨다. 업장이 윤회의 근원이었는데, 근원을 없애버리니 더 이상 윤회는 없게 되는 원리이다.

이렇게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을 통해, '나'라고 착각하는 5온의 전도몽상의 상태에서 벗어나면, 새로운 관점을 획득하게 된다. 세상 모든 것이 '나'인 것처럼, '나'라는 경계의 감옥이 터져버린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세상 모든 것이 '나'인 동시에, 또 세상 모든 것과 '분리'가 일어난다. 함께하지만 결코 함께하지 않는 묘한 의식이다. 이 의식의 특징은 대상에 따라 결코 반응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부동(不動)이라서 부동지(不動地)라고 부르기도 한다. 붓다의 깨달음의 부동지의 획득이라고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체 반응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만 세상을 모두 보고 있는 이 의식은 투명하고 청정하다. 그래서 청정법신(淸淨法身)이라고도 부른다.

곽희의 삼원법과 평등성지

'관세음보살32응탱'의 화면에는 전례없는 독특한 관점의 풍경이 펼쳐진다. 화면 상단 중앙에는 관세음보살이 배치되고, 그 아래에는 중생이 사는 세계가 펼쳐져있다. 법신의 자리(또는 의식)에서 관세음보살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내려 다보는 조감도식(鳥瞰圖式) 각도의 화면이다. 조감도식 관점이란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관점을 말한다. 조감도식 관점은 평등성지의 관점을 표현하기에 아주 적절한 기법하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관점을 유일무이하게 불화에 차용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을 그린 화사 이자실의 뛰어난 불교적 이해력과 수행력이 탁월하게 돋보인다고 하겠다.

작품의 상단의 한 가운데에 있는 관세음(觀世音)보살은, 그 명칭의 뜻 그대로, 중생이 내는 속세의 고통 소리(世音)을 두루 빠짐없이 '관(觀)'하고 있다. 관세음보살이 옷자락을 휘날리면서 여유 넘치는 자세로 앉아 위풍당당하게 속세를 통찰하고 있다. 관세음보살의 관점이 그대로 그림 전체의 관점이 된 수승한 작례라고 하겠다. 위에서 내려다보기 때문에 산봉우리와 계곡 사이까지 구석구석 샅샅이 분명하게 보인다. 내려다보이는 풍경은 '관세음보살보문품'(〈법화경〉)에 언급 된 칠난삼독(七難三毒)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재난과 사고에 맞닥뜨린 중생들의 천태만상이다. 그 각각의 상황마다 관세음보살이 다양한 모습으로 응신하여 중생을 구제하고 있는 모습이다.

관세음보살의 관점이 적용된 화면의 구도를 보면, 그 시점이 한 군데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무쌍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 올려다본 시점, 위에서 내려다본 시점, 심심계곡을 넘겨 들여다보는 시점 등. 이러한 복합적인 시점의 종합적인 회화적 구현으로 유명한 화가가 곽희(郭熙, 1023-1085)이다. 중국 북송(北宋)의 화가로 동양화 또는 산수화에 있어 삼원법의 기법을 창시한 사람으로, 천년 전통 동양 산수화의 맥락에 가장 큰 일획을 그은 대가로 손꼽히고 있다. 곽희의 삼원법은 예나 지금이나 동양화에서 기본 중의 기본으로 익혀야하는 기법으로 칭송된다. 삼원법이란, 평원(平遠=水平視 대상을 수평적 시점에서 바라본 관점)·고원(高遠=仰視 대상을 우러러 올려다본 관점)·심원(深遠=俯瞰視 대상을 위에서 내려다보거나 안을 들여다보는 관점)의 3가지 시점을 적절히 어우러지게 배치하여, 아무리 작은 화폭에라도 천지를 구현해 내는 기법을 말한다. 장대한 스케일의 풍경과 기암괴석의 크고 작은 앞뒤의 풍경을 하나의 공간에 연출해 내는 것이다. 이러한 삼원법이 본 작품 '관세음보살32응탱'에 불교적 깨달음의 관점인 평등성지의 관점으로 기막히게 연출되어 있는 것이다.

〈중앙승가대 문화재학과 교수〉

현대불교신문
구 독 안 내
전화 한번에 끝!
자동이체로 전환하세요
02-2004-8212

불교의 현대화 1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2 생활 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 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3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불자정보
(사찰, 포교당 양도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akao Ch 카카오톡 채널에서 현대불교신문을 검색하세요!
NAVER 현대불교신문

이안의 Media In Buddha ㉑ 영화 '스미스 씨 워싱턴 가다'



▶한줄 요약
프랭크 카프라 감독의 〈스미스씨 워싱턴 가다〉라는 제목에서 보듯 아주 미국적인 인물 스미스 씨가 미국 정치판의 수도 워싱턴에서 벌이는 좌충우돌 고군분투 아메리칸 드림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소년단, 세상을 구하다

한꺼번에 한 단체의 이름으로 전세계에서 이토록 많은 청소년들이 모여 짧지 않은 기간 함께 지내는 행사는 흔치 않다. 더구나 호텔이나 리조트가 아니라 텐트를 치고 자연 안에서 먹고 자며, 자신들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려는 마음가짐으로 '소비' 나 '관광' 이 목적이 아니라 '교류' 와 '소통', '체험' 을 통해 성장하고자 하는 행사라니 참 뜻이 좋은 행사가 바로 '잼버리' 다.

원래 잼버리는 민족, 문화 그리고 정치적인 이념을 초월하여 국제 이해와 우애를 다지는 보이스카우트의 세계 야영대회인데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4년 주기로 열리는 국제 대회다 보니 참석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먼저 보이 스카우트나 걸 스카우트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고, 참가비도 마련해야하고, 잼버리가 열리는 시기에 딱 참가 가능한 나이대여야 한다.

그러니 여기 참가하려는 청소년들은 몇 년씩 소속 지역 스카우트 활동을 하면서 기금 마련행사를 열어 쿠키를 구워 팔거나 기념품을 만들어 팔거나 하는 방식으로 모금도 하고, 저축도 하며 손꼽아 기다리는 행사가 된다. 올해 그 잼버리가 우리나라에서 열렸고, 특히 이번 잼버리는 코로나 펜데믹 이후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첫 국제 대규모 행사이기도 했으니 얼마나 기대들이 컸을까?

그런데 아쉽게도 이번 잼버리는 개영식 전부터 걱정스럽더니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며 개최돼 여러 논란거리들을 남긴 채 예정된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행사가 되었다. 폭염이나 태풍은 하늘의 일이라지만, 이 시기 늘 있는 자연재해는 대비했어야 할 일이었으니 예외적 사건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준비부족과 운영미숙으로 생긴 나머지 모든 문제들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는 조직위의 문제, 그러니까 장관이 세 명이나 공동 책임자로 있는 중앙정부와 몇 년 전부터 잼버리 유치에 사활을 건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잘못인 것이다.

그나마 잘못이 불거졌을 때 바로 두 팔 걷고 수습에 나선 것은 민간이었다. 기업과 종교단체, 그리고 일반 시민들. 그 가운데 불교계의 지원도 두드러졌다.

사실 불교계는 잼버리 파행이 있기 전부터 지원과 참여를 준비해 왔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지난해 한국스카우트연맹으로부터 잼버리대회 동안 한국불교와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템플스테이를 운영해달라고 요청받아 대회기간인 8월1일부터 12일까지 새만금 잼버리대회장 델타존에 템플스테이관을 두고 170여개국, 4만3000여 명의 잼버리 참가 청소년과 지도자들에게 연등만들기, 합장주만들기 등 불교문화체험프로그램과 템플스테이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또한 대회 기간 중에 잼버리 영외과정 활동을 위해 새만금 인근 사찰인 선운사와 금산사, 내소사 등지에서 템플스테이를 통해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도 되어있었다. 영국, 미국 등이 새만금 시설과 운영 문제로 먼저 퇴영하고, 이어서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지나게 되면서 인해 잼버리 새만금 행사장이 아예 행사를 포기하게 되면서부터는 전국 147개 사찰이 참여 청소년들을 위해 문을 활짝 열었다.



영화 〈스미스 씨 워싱턴 가다〉의 한 장면.

이런 과정에서 참여 청소년들은 청소년들대로, 개최국 국민인 우리들은 우리들대로, 자식을 다른 나라에 보낸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고생하고 상처받은 행사가 된 것은 어떻게 해도 보상도, 만회도 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한국 언론은 제대로 된 보도를 전하지 않은 채, 주최측 보도자료 중심의 자화자찬 기사만 내다가 참가 자녀들로부터 현장 상황을 전해들은 외국 부모들이 먼저 문제를 삼고서야 뒤늦게 현장 소식을 전하는 모습으로 영 신뢰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스카우트' 라는 청소년 모임이 등장해서 소년단 활동이 어른들의 잘못조차 바로 잡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고전 영화가 있다. 영화에서 소년단은 '보이레인저' 라는 가상의 단체로 나오지만 그 모델은 보이 스카우트다.

할리우드 최고의 해로 꼽히는 1939년에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 남우조연상, 각본상을 비롯해 무려 11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었으나 화려한 색채를 자랑하며 흥행 바람을 시상식장까지 몰고 온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밀려 고작 원작상(포스터) 1개가 상을 받는데 그친 영화가 있다. 이

스카우트 모델로 한 영화 '스미스 씨…'
소년단 '보이레인저' 이끄는 스미스 씨
정치인이 되며 부조리와 맞서는 이야기
세상에 진실을 알린 건 소년단의 소식지
언론 장악, 통제해도 진실 가릴 수 없다

흑백영화는 그러나 잊혀지기는 커녕 미국영화연구소가 미국 영화 100주년을 기념해서 꼽은 가장 위대한 미국 영화 100편에 드는 고전이 되었다. 프랭크 카프라 감독의 〈스미스씨 워싱턴 가다〉라는 제목에서 보듯 아주 미국적인 인물 스미스 씨가 미국 정치판의 수도 워싱턴에서 벌이는 좌충우돌 고군분투 아메리칸 드림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이름부터 평범하기 그지없는 시골 소년단 보이레인저의 단장 스미스 씨는 아이들과 들판을 헤집고 다니는 순진하고 착한 소시민, 세상물정 어두운 촌놈이다. 이런 스미스가 상원의원이 되어 의회로 가게 된 건 순전히 어수룩해 보여서다.

정치권이랑 재력가가 야합해서 부당한 법안을 통과시켜 누이 좋고 매부 좋게 떡고물 나눠먹자고 쑥덕거리던 찰나에 스미스 씨가 사는 잭슨시의 상원의원 둘 가운데 하나가 덜컥 죽어버렸는데, 그 자리에 '땜빵' 으로 데려다 허수아비로 세워놓기 딱 좋은 인물로 보였던 것이다. 잭슨시의 또 다른 상원의원인 조세프 페인은 잭슨시 주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새로운 상원의원을 뽑으라고 지시한다. 새로운 의원이 될 사람 됨됨이에 대한 조건은 딱 하나, 페인과 그의 재정적 후원자인 짐 테일러의 댐건설 계획을 방해하지 않을 인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지사는 고민 끝에 보이레인저 단장인 제퍼슨 스미스를 후보로 내세운다. 아이들과 다람쥐나 잡으러 쫓아다니는 순박한 촌뜨기야말로 정치판의 꼭두각시 역할로 적격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의원들이 나라와 국민과 후손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올바른 일을 외면하고 권력과 금권, 당리당략에 매달려 똘똘 뭉친 판이다. 그들 다수 의원들은 이 초짜 정치인을 만만히, 아니 우습게보았다. 그래서 그를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선배 정치인입네' 하고 나서 훈계도 하고,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거대 미디어를 동원해 그를 짓뭉개버리려 한다. 그런데 스미스 씨는 물러서기는커녕 주저앉지도, 물러서지도 않고 꿋꿋하게 서서 버텨낸다. 잠도 안자고 무려 24시간 동안 내리 연설을 하면서.

이 고지식한 의원에게 힘이 되는 건 조무래기 아이들과 그 아이들이 만든 소식지뿐이다. 그런데도 스미스가 필사적으로 서있는 까닭은 의원의 의사발언권이 그의 권리이기 때문이며, 자신이 그 자리에 있는 까닭이 정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며, 자기가 버티고 있어야 바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뜻과 힘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페인은 스미스를 등원시키지 않으려고 음모를 꾸미지만, 스미스는 비서 선더즈의 도움으로 페인과 테일러의 음모를 알게 되고 상원 회의에 등원한다. 댐 건설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하여 스미스는 발언권을 양보하지 않는 한 계속 발언할 수 있다는 국회발언권(필리버스터)을 이용해서 24시간에 걸친 연설을 이어나간다. 음모에 빠진 스미스에게 적대적이던 여론이 차차 스미스에게 유리해지자 테일러는 언론을 매수해서 온갖 흑색선전을 퍼붓는다. 진실을 알리려는 스미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려는 순간 페인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음모를 고백하고 스미스는 최후의 승리를 쟁취한다.

스미스가 구리기 그지없는 댐 건설 법안통과를 막아내기 위해 24시간 버티고 서서 연설을 하는 동안 아이들은 거대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는 스미스의 외로운 싸움을 소년단 소식지에 담아 방방곡곡에 퍼뜨리고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된 민중이 들고 일어나 정의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 영화는 아직 이 땅에서는 동화일까? 국민에게 행정안전부가 야외활동을 삼가라는 땡볕 아래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를 위해 청소년들을 몇 시간씩 대기하게 하고, 고생하러 온 아이들이니 텐트 칠 자리가 진창이든, 날씨가 폭염이든, 스치기만 해도 화상을 남기는 벌레든, 화장실 위생 문제든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아직도 〈스미스 씨 워싱턴에 가다〉는 동화로 보일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겪는 문제보다 그 행사에 대한 정치인들의 동정이나 발언만 보도하는 언론에게도 그럴 것이다.

〈스미스 씨 워싱턴 가다〉에서 거대언론이 진실에 대해 입을 다물거나 사실을 왜곡할 때, 그 횡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아이들이 세상을 향해 펼쳐보인 소식지였다.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한다고 목소리를 틀어막을 수 없고, 진실을 가릴 수도 없었다.

잼버리의 파행을 겪은 스카우트 참여 청소년들은 이미 알고 있거나 나중에 더 조사하며 자세히 알게 될 것이다. 자신들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겪었던 장소인 새만금이 어떤 곳이었는지, 그 곳은 원래 뭇 생명들이 깃들어 사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갯벌이었는데, 개발과 건설이라는 인간의 욕심이 정치라는 권력의 욕망과 만나 망가뜨린 거대한 수렁이라는 것을. 스카우트의 이상과는 맞지 않는 파괴의 지형이었다는 것을.

〈스미스 씨 워싱턴에 가다〉에서처럼 이 청소년들도 자신들의 체험을, 그리고 거기서 알게 된 진실을, 또 앞으로 해야 할 옳은 일을 찾고 실천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새만금도, 청소년들도 두루 가장 나은 미래를 향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영화평론가〉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여주환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등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산수유열매,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복령, 옥수수수염, 천문동, 맥문동, 감초뿌리줄기, 뽕나무뿌리껍질, 창출뿌리줄기, 작약, 황기, 칡뿌리,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간과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으로 해결하세요.(본초강목)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골담초환	**산수유환**	**어성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측백나무, 자소엽, 서목태, 복분자, 삼백초, 참당귀,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솔잎, 녹차잎,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아직도 어깨와 허리힘으로 광택을 내시나요
광택은 쉽고 빠른 이지 골드로!!
이지골드 광택제는 닦기가 쉽고 광택이 오래 유지됩니다!



친환경 다목적 금속광택제 이지골드
EASY GOLD
촛대, 향로, 위패, 유기, 제기, 은, 동
놋쇠(방짜), 신주, 자동차 알미륨휠, 스테인레스, 모든 금속류

스텐, 알루미늄, 청, 법랑, 타일 등의
산화물 세척의 원조!!
ST-100V
에스티-백 브이

남자 소변기 요석제거에 탁월합니다!!



5분간격으로 3번 뿌리고 닦은 후 물로 세척하면 소변기 요석이 깨끗하게 제거됩니다.

영 일 상 사 010-5462-3620
영일상사 1호점 010-3495-5579
네이버 쇼핑
영일상사 1호점 검색

문수가 선택한 건 이근원통

〈耳根圓通〉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㉚ 이근원통

〈원문〉 여래가 문수사리법왕자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지금 여기 25무학인, 대보살들과 아라한들을 보라. 각각 처음에 도를 이룬 방편을 말하여 다 진실한 원통을 닦아 익혔다고 말하니 저들의 수행에 실로 우열과 전후의 차별이 없겠으나 내가 지금 아난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면 25행에서 어느 것이 아난의 근성에 적당하겠는가? 겸하여 내가 멸도한 뒤 이 세계 중생들이 보살승에 들어가 무상도를 구하려면 어느 방편으로 쉽게 성취할 수 있겠는가?"

문수가 부처님의 뜻을 받들고 발에 절을 하고 게송을 설해 부처님께 아뢰었다.

"깨달음의 바다 그 성품이 맑고 둥글어, 둥글고 밝은 깨달음이 원래 미묘합니다. 미망하여 허공이 있고 허공을 의지해 세계가 성립하며, 망상이 맑아져 국토가 이뤄지고 지각하는 것이 중생입니다. 허공이 대각 가운데서 생기는 것이 바다에 한 거품이 일어남과 같으며 유루(有漏)의 미진 국토가 모두 허공으로부터 생기는 바입니다. 거품이 멸하면 허공도 본래 없거니 하물며 다시 삼유(三有)가 있겠습니까? 근원으로 돌아가는 성품이 둘이 아니지만, 방편으로는 여러 문이 있습니다. 열반의 마음을 성취하려면 관세음이 으뜸이 되며 그 나머지 방편은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일에 맞춰 진로를 버리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강설〉 부처님이 문수보살에게 25원통 중 어느 것이 아난의 근기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 말세 중생들에게 알맞는지 하나를 추천해 보라고 하니 문수보살이 게송을 읊고 관세음보살의 이근원통(耳根圓通)을 선택하는 장면이다. 문수가 읊은 게송은 매우 심오하여 '능엄철학' 이 들어 있다는 말까지 하였다. 깨달음의 바다 각해(覺海)의 성품이 맑고 둥글어 미묘하기 짝이 없는데, 이 각해에 대한 미망(迷妄)으로 허공이 있게 되었고 허공을 의지해 세계가 성립되었다는 세계 성립의 원초적인 근원을 밝히고 있다. 이른바 세계기시(世界起始)의 설명이다. 이 대목에서 엄청난 비유가 설해지는데 "허공이 대각(大覺) 가운데서 생기는 것이 바다에 한 물거품이 일어난 것과 같다."는 말이다. 허공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공간개념으로 이해하는 말이다. 우주공간이 모두 허공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허공 자체는 무한한 것이다. 그렇다면 한정된 범위가 없으므로 초공간이라 할까. 아무튼 무한인 것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바다에 일어난 한 물거품에 비유한 것이다. 바다에 한 물거품이 생기듯이 각해에서 허공이 생겼다는 것이다. 각해는 〈능엄경〉의 핵심 용어 여래장묘진여성(如來藏妙眞如性)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각체(覺體)요, 심체(心體)다. 이를 대각(大覺)이라 하여 이것이 허공의 아버지(父)란 말이다. 여래장묘진여성은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라는 것을 앞에서 누누이 밝혔다.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은 어떤 개념을 만들어 시간적 의식과 공간적 의식이 곧잘 되어버린다. 의식화되는 것은 시공을 벗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시공을 벗어나 의식화될 수 없는 것이 각체다. "유루(有漏) 미진국이 허공으로부터 생겼다"고 하는 것은 허공 속에 있는 만유의 생멸 현상 아웃라인(out-line)을 말한다. 허공이 물거품이라면 물거품이 없어지면 허공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생의 세계인 삼유(三有=三界)마저 있을 수 없다. 근원으로 돌아가면 각해의 성(性)뿐이다. 이 성에 돌아가면 통하지 못할 게 없다. 그래서 성인의 "성품(聖性)으로는 통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 25원통이 성품 자리에서는 공통이지만 공부를 할 때는 차별이 있어 더디고 빠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근원통을 제외한 24원통의 단점을 하나하나 열거하다가 마지막에 이근원통을 추천한다. 이근원통은 반문문성(反問聞性)하는 공부다. 미래의 닦아 배울 사람(修學人)이 이를 의지해 공부할 것을 권하며, 관세음보살뿐만 아니라, 문수보살 자신도 이를 통해 깨달음을 증득했다고 부처님께 말씀드리고 있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원통식 갖추면 육신통 생긴다



구선 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㉚ 진여문의 보시바라밀

보살이 현전지에 들어가면 분리시켰던 자기 생멸심도 중간 반야해탈에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보살의 보살핌이 없어도 생멸심 스스로가 대적정과 대자비를 행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멸진정을 성취한 것이 아니다. 때문에 보살의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하다. 현전지에서 행해지는 보시 바라밀은 암마라식을 돈독하게 갖추는 것이다. 암마라식으로 이루어진 육근을 정비해서 보살의 눈, 귀, 코, 입, 몸, 생각이 원만하게 갖추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때에 행해지는 보시 바라밀이다. 진여보살이 멸진정의 과정에서 분리시킨 생멸심은 두 가지 성향의 존재 양태를 갖고 있다. 영혼으로 존재하는 것과 육체로 존재하는 것이다.

육체를 갖고 있을 때 진여심이 분리되면 진여심은 진여보살이 되고 생멸심은 육체를 갖고 살아가게 된다. 열반에 들면서 진여심과 생멸심이 분리되면 진여심은 보살이 되고 생멸심은 영혼으로 남아 있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초지에서부터 6지까지 앞서 제시했던 방법으로 보시 바라밀을 행한다. 비상비비상처정을 통해 생사의 몸을 여의고 유(有)의 몸을 갖추게 되면 생멸신과 진여신을 분리시키지 않고 보살도에 들어간다. 이런 경우에는 보시바라밀을 행하는 방법과 대상이 달라진다.

초지에서 10지 과정 전체에 걸쳐 십주(十住)의 공법이 함께 쓰이고, 보시의 대상도 생멸심이 아니고 양신이 된다. 이런 경우는 수능엄삼매의 과정으로 6바라밀이 진행이 된다. 7지 원행지부터는 보시바라밀의 대상과 방법이 달라진다. 원행지에서는 생멸문에서 살아가고 있는 반연 중생들을 제도하는 것이 보시바라밀이다. 자기 생멸심과 반연중생은 업식을 공유하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때문에 자기 생멸심이 해탈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연중생을 제도해야 한다. 그 역할을 진여보살이 담당하면서 원행지가 시작된다. 반연 중생을 제도하는 숫자가 늘어날수록 보살의 암마라식이 원만해진다. 그러면서 불공여래장이 장엄해진다. 보살이 생멸문을 멀리 여행을 하는 것이 원행지이다. 원행지에서는 12연기의 과정을 통해 인연 지어진 반연 중생들을 제도한다. 먼저 생사의 과정을 통해 맺어진 인연들을 제도한다. 그다음에 유(有)의 과정을 통해 맺어진 인연들을 제도한다. 취(取) 인연, 애(愛) 인연, 수(受) 인연, 촉(觸) 인연, 육입(六入) 인연들을 차례대로 제도한다. 암마라식이 활용되고 삼신구족행으로 제도한다. 8지 부동지의 보시 바라밀은 본제의 부동함으로 불퇴전을 성취하고 암마라식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난승지에 들어가서도 걸림 없고, 일치된 중생의 심과 식이 장애가 되지 않으며, 삼신구족행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본제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흐트러지지 않는 상태를 부동지라 한다. 각성의 퇴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불퇴전이라 하고 어떤 중생을 만나더라도 본제의 세 가지 요소가 훼손되지 않는다고 해서 부동지라 한다. 암마라식이 완성되면 진여문의 다른 보살들과 교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10지를 성취한 상위 보살들과 교류하게 된다. 이때 10지 보살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된다. 지장보살을 만나면 지장보살에게 배우고 문수보살을 만나면 문수보살에게 배운다. 보현보살을 만나면 육근원통법을 배우게 된다. 그러면서 원통식을 갖추게 된다. 암마라식으로 이루어진 육근을 원통수행으로 제도하게 되면 모든 식의 바탕 안에 적멸상이 갖추어진다. 이것을 원통식이라한다. 육근원통의 수행은 부동지에서 시작해서 선혜지에서 완성된다. 9지 선혜지에서 행해지는 보시 바라밀은 역무육입진(亦無六入盡)하는 것이다. 육입의 과정을 통해 인연되어진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는 것이 역무육입진이다. 원통식이 활용된다. 원통식이 갖추어지면 6신통이 생겨난다. 천이통, 천안통, 숙명통, 타심통, 신족통, 누진통이 6신통이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흔 스님의 〈능가경〉 강설

㉚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의식이 만들어 낸 허상

어디에도 없는 세상과 어디에도 없는 나를 만들어 놓으면 본질에 대해 궁구하더라도 끝내 그 본질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 접근조차 하지 못한다. 기본적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방향성을 잃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다. 진리를 탐구하는 것은 세상에서 배우는 방식처럼 앞으로 진보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 배우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객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배우는 자가 살아온 나이와 경험은 진리와는 아무 연관성이 없음을 알고, 출발하는 순간부터 마음으로 일으키는 분별을 쉬고, 옳고 그름의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바르게 배우다가도 바로 몸이 살아온 나이와 경험이 그 배운 것을 덮어버리게 된다.

아마도 대다수의 수행자들은 순탄하고 어려움 없이 저절로 된다는 말에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수행을 어려워하고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행은 아주 쉽고 간단한 이치이다. 어려운 이치가 아니다. 먼저 수행할 때는 지식도 필요 없고, 느낌도 필요 없고, 체험도 필요 없고, 체득도 필요 없음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것을 얻기 위해 불필요한 노력에 시간을 보내면서 힘들어 한다.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바로 멈추는 것이 지혜이다. 수행은 무엇을 얻고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얻고 알아야 하는 것이 없음을 알고,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들은 의식(마음)이 만들어 낸 허상인 것을 알아서 더 이상 발을 앞으로 디딜 틈이 없어야 한다. 혹여 텅 빔을 알았다는 마음을 낼 수 있겠지만 그것 또한 허깨비일 뿐이다.

"사대의 인연이 화합하면 색상의 차이를 조성할 수 있지만, 사대가 조성한 색상은 그 조성하는 주체와 대상이 모두 유심 망상이 취하는 주체와 대상이네. 만약 주체와 대상이 망상이라는 것을 안다면 사물의 자성이 있다거나 없다는 두 망견을 벗어날 수 있네."

여기까지 이야기해놓은 모든 것들이 잡다한 견해들이고 불필요한 논리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논리나 견해들이 수행에서 단비 같은 역할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갈증을 더 유발하는 설탕물이다. 설탕물을 많이 마신다고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 갈증을 해소하는 것은 아무것도 가미되지 않은 그냥 맑은 물이면 충분하다. 이것이 원하기만 한다면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한 마지막 언어를 사용하여 마무리 아닌 마무리를 하게 된다.

지금까지 '나' 라고 알고 '나' 라고 해온 몸과 마음은 '내' 가 아니고, '나의 것' 이 아니고, '나의 자아' 가 아니라고 바르게 알고, 몸과 마음이 만들어 놓은 허상에 대해 견해와 논리를 펴지 않으므로 허물이 생기는 일이 없음을 안다. 그리고 어떤 세상이든 그것은 마음의 조작일 뿐이지, 더 이상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모르는 것도 아닌 그저 토끼뿔로 알면 된다. 만약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아마도 그에게는 아직까지 오온을 '나' 라고 하는 망념이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망념을 사라지게 하는 수행을 하거나, 그 망념을 좋은 마음으로 바꾸려는 수행을 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수행은 닦는 것이 아니다. 닦아서 연마하는 것은 수행이 아니다. 수행은 수행하는 자의 실체를 알아내는 것이다. 많은 태어남 동안 번뇌로 똘똘 뭉친 '나' 아닌 것에 대해 올바른 지혜로써 '내' 가 아님을 밝혀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느낌이든, 지각이든, 의도이든, 의식이든지 간에 그 출발이 '나' 로 시작하니 그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로 헤매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 생각, 생각, 이어지는 그 생각의 끊음이 아닌, 그 생각 속에 있는 듯 없는 듯한 '나' 라고 하는 그 범인의 끊음을 말하는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 '나' 는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지만 신출귀몰하여 모든 것에 붙어 '나' 라고 할 필요 없이 '나' 로 되어버리니 그 자가 일으키는 망념에 금방 속아서 생각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그 흐르는 생각 속에 끌려가지만 않으면 지금까지 '나' 라고 알고 있던 그 물질, 느낌, 지각, 의도, 의식의 혼란에서 '내가 아님' 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 두 번 다시 속는 일 없이 다시 발을 움직일 일도 없어진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 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2023년 8월 16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47호 | 17 | 전면광고

속이지 마라. 성내지 마라. 많음을 구해 탐심을 내지 마라. 이 세 가지를 법답게 행하면 죽어서 곧 천상에 나리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법구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부산 • 대지 : 20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및 주차가능 • 매가 : 가격협의
- 위치 : 경기 • 부지 : 45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 주차가능 • 매가 : 33억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승계)받을 수 있읍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천년사찰터 다량 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상리면 사찰
- 대지 : 120평
- 건물 : 건물외 부속건물 약 30평
- 가격 : 1억 2천만원

010-5436-580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옥종면 궁항리 삼신봉 주산
- 대지 : 약 360평
- 법당 : 20평, 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창고, 화장실(2개)
- 해수관세음보살상 : 7m
- 많은 꽃과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사찰 옆에 작은 폭포와 개울이 흐르고 있습니다.
- 매매가 : 1억 9천만원 • 즉시 법회 가능

010-2807-0509

사 찰 안 내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4억 (대출 2억 천육백만원)

010-3741-3567

밀 양 법 당

- 밀양터미널앞 2층 60평
- 전세 : 1천만원, 월세 45만원
- 비품 : 300만원

010-9343-5657

동 진 불 사

- 위 치 : 경북 구미시 인근 (금오산자락)
- 부 지 : 약 2500평 (종교용지. 전)
- 법 당 : 40평 (목조. 단청)
- 요사채 : 2동 60평
- 기 타 : 산신각, 석탑 등
- 가 액 : 7억
- 특 징 : 도심 인근에 위치한 대가람으로 포교와 기도처로 좋습니다.
- 위 치 : 경주시 • 부지 : 약 800평 (종교용지)
- 법 당 : 40평 (목조, 단청, 3포7포)
- 요사채 : 50평 (목조, 황토)
- 산신각 : 7평 (닷집, 단청)
- 기 타 : 연못, 석탑 , 석등
- 가 액 : 9억원 (조정가능)
- 특 징 :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사찰로 포교지로 좋습니다.

전국 소재 사찰, 절터, 포교당 양도 양수하실 분 연락 바랍니다.
좋은 인연 ----------

서울 010-5122-8080 대구 010-4927-0455

사찰(급)안내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대지 143평 (현재 운영중)
- 가액 : 1억 2천 (조정 가능)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몸만 오세요



010-4180-17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부근
- 대지 약 365평, 가용 평수 약 600평(하천부지 포함)
- 법당, 약사여래, 삼선각, 요사채, 스님이 사용하는 방 3칸, 입석부, 종무실 1개, 창고 2개, 신도님 식당, 23년 초 현대식으로 새로 지음, 주차장 완비
- 시내버스 거리, 정류장까지 걸어서 5분
- 가액 : 4억 3천만원
  몸만 오시면 법회 가능, 절 창건한지 90년

010-4583-4895

사 찰 안 내

서울 노원구 덕릉로 126길 30,
3층 도불사(한국불교태고종)

- 법당 : 63평
- 보증금 5천만원, 권리금 1천5백만원, 월세 210만원, 관리비 30만원
- 바로 법회 가능합니다.
  (스님께서 갑작스럽게 열반하심)

010-3784-0181

포교원 안내

- 통영시 사거리
- 땅 60평, 건평 36평 2층 건물
- 3층석탑, 석등
- 마당주차 6대
- 저렴하게 드립니다.

010-8669-5665

사 찰 안 내

- 위치: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가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사찰 안에 계곡 축대 재공사 완료
- 차로 확장공사 완료
- 지장전에 납골시설 허가 득
- 가액 12억(절충 가능)

010-5421-1536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포교원안내

- 경남 밀양시, 5층 중에 2층, 70평
- 삼존불, 인등, 원불, 영가위패인등, 산신인등, 각방 에어컨, 방 4개, 냉장고, 세탁기 등 시설완비 (시설비 1억 7천만원)
- 무료 주차장 약 50대, 병원, 은행, 마트 1분 거리, 사주 하시는 분 강력 추천, 비품대 확실히 잘 해드리겠습니다.
- 보 5백만원, 월 43만원, 시설비 4천 5백만원

010-9424-4777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북구 만덕동 438번지
- 대지 41평, 100년된 고요한 암자 (도심 근천)
- 하천부지 60평 활용
  (1년 사용료 430만원정도)
- 매각금액 : 2억 5천만원

010-8411-1217

포교원안내

- 위치 : 성남시 상대원동
- 법당 1층 3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65만원, 시설비 1천 2백만원
- 즉시 법회 가능
- 스님 사정상 임대합니다

010-5369-4154

사찰(급)안내

스님 병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6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 : 교통이 좋습니다.

010-2366-2821

포교당 (사찰) 안내

- 대구 남구 대명동
- 대지 30평, 1층 후원, 2층 법당
- 태양광 설치
- 가액 : 2억 5천만원

010-4157-7697
010-4506-5302

사 찰 안 내

- 장호원감곡 KTX 역 10분 거리
- 종교부지 계획관리 750평, 대지 247평, 목조대웅전 50평, 휴게소, 각종전각, 요사채3채, 산신각, 연못, 잔디광장, 진시사리탑, 해수관음. (상담)
- 청주대형건물 100평 임대 및 매매
- 법당 50 산신각, 종무원, 주방, 스님대방
- 보증금 4000에 100만원 모든난방 최고시설, 약간 본인건물

1899-0047
010-5883-2255

(급) 포교당 임대

- 위치 : 울산시내 태화강 근처, 상가 2층, 약 35평
- 작은 법당 1개, 주방딸린 넓은 거실
- 작은 방 2개, 넓은 욕실.
- 도시가스 : 주방 및 난방 사용
- 금액 : 1천, 월 44만원 (부가세 4만원 포함)
- 시설비 : 700만원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7942-9015

토 지 안 내

- 위치 : 연천군 왕징면 무등리 산5-1
- 매매금 : 3억원
- 2000평 규모, 대지 600평 건축허가 취득

010-4727-6065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411-1, 411-2
- 매매금 : 3억원
- 올수리, 사찰 장엄 완료, 250평

010-3618-6061

이젠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 hyunbulnews.com에서도
불자정보·생활안내를 생활안내
찾아보실 수 있어요

NAVER 불자정보·생활안내 검색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생활안내'
'불자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447호 | 18 | 전면광고

한 부처님이 출현하시면 만 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한 법당이 이룩되면 곧
극락세계가 사바세계 안에 이루어진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무량수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보존회 학인모집

1. 염불 ·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입종 동참 안내

불교정신문화원, 불교수련문화원.
불교선문화원, 불교명상문화원.
불교문화정원,불교문화원,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 불교문화원연합회
[교육부 산하 상학 인가]

만대 불교학 대학원
010-5412-8040 법광

영남범음범패

통범(구암스님)소리를
채보집으로 수업

- 의식 및 사물장단
- 태평소. 대금
- 밀양 : 영원사

010-3156-2211

공양주 구함

살림살 비구니스님 구함

- 경남 사천시 서포면 비토안길 114-15
- 극락사
- 주지 벽송

010-9178-6397



점 연구원

- 미래 현재 과거 점 보는 법
- 타고난 팔자는 바꿀 수는 없고, 좋은 팔자는 만들 수 있다 !
- 사주팔자 풀이 잘 안되는 분, 쉽게 풀이하는 법 전수
- 예) 명리 육임 육효
- 하늘, 땅, 나, 삼합 보는 법
- 준비물 없음
- 토화사 삼봉법사

010-3750-8555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경북 문경 쌍룡사 부전스님 모십니다

염불 및 제의식 집전한후 보시금 결정

010-8819-8988

우리 다 함께 불교를 살리는데 동참합시다

- 전국 시 · 군 · 단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포교활동 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 기본급 월 3백만원 외 활동 범위와 능력에 따라서 배당금과 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 불교를 위해서 무언가 공덕을 짓고자하는 불자님들은 망설임 없이 연락 바랍니다.

010-8459-1472, 043-642-9413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 010-5270-826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빙의, 공황장애, 우울증치료 간질 있는 분 연락주세요.

◈ 효능 : 변비, 오십견, 몸 아프신 분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적천리 113 미륵암
지평대사 : 010-4804-2309
천도비는 1억 5천부터 시작합니다.
천도하면 90% 이상 성불됩니다.
※ 몸 아프신 분들 천도 해드립니다.
※ 친견하실 분은 330만원 별도입니다.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 15,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효민의
서도로 새기는 경구

⑭ 초발심(初發心)



초발심 전하는 일, 佛法 전하는 일

장마에다 높은 습도와 온도 그리고 정치, 사회, 문화 등 어느 부분에 속 시원한 것이 없이 답답한 요즘. 초발심이란 단어로 여러분의 마음과 내 마음 하나 되어 부처님 뜻 이루는 시간되기를 기대하며 붓을 잡아 봅니다.

'초발심'의 사전적 의미는 "불도를 구하는 마음을 처음으로 일으킴"이라는 말로 신발의(新發意-보리심을 처음 일으킴) 또는 금도심(今道心-전에는 속인이었지만 지금은 불도를 믿는 마음)이란 단어와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요.

초발심, 발심 없이 수행이 있을 수 없고 수행이 따르지 않으면 발심은 헛된 망상이라고들 합니다.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스스로를 일깨우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발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우리가 속인이었을 때 나를 이끌어 불법을 믿는 마음을 일으킨 것은 무엇일까요?

허물을 크게 반성하였을 때?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할 때?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짓는 악업을 반성할 때? 선업을 쌓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노력하고 지극정성을 다할 때? 자신의 본래 면목이 바로 부처인줄 몰랐을 때?

그렇습니다. 처음 발심이 어렵지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제대로 세우기만 한다면 무한공덕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초발심(初發心), 나에게 온 그 초발심은 어디서 어떻게 왔을까요? 나에게 온 초발심을 주변 분들에게 전하는 일, 바로 "부처님 법" 전하는 일 아닐까요?

나무석가모니불

〈서예가〉



승한 스님의
불교시 감상

㊲ 정용숙의 '한 뼘의 희망'

안수정등의 삶

〈岸樹井藤〉

한 뼘의 희망 / 정용숙

경주 불국사 말이지 뒤꼍에 대숲이 있고, 검고 허름한 집 한 채가 있는데 뒤란으로 돌아가면 무수히도 많은 돌무덤이 있어, 큰 것이야 고작 한 뼘 반쯤, 작은 것은 새끼손가락만할까

고 고만고만한 것들이 짊어진 희망은 크기가 다 같아

누가 뒤란을 돌다 무심히 던져 놓은 돌멩이가 먼저 것에 가 앉았을 게야
그것은 자꾸만 쌓이면서 돌탑이 되고, 바라는 게 많았던 눈에 돌부처로 보였던 게지
이제는 단순히 돌무더기가 아닌 한 구 한 구 부처로 서서 다시 찾은 나를 지켜보고,
눅눅하고 어둔 뒤란에서 어깨 가득 가난한 자들이 자꾸 져 나르는 희망을 넙죽넙죽
받아 짊어지고 서 있었던 게지

앞뜰은 하얀 불국사가 있고, 뒤란에서는 돌무덤인 거지
불국사는 덩치만큼 거대한 역사를 짊어졌어,
한 역사를 짊어지는 게 제 몫은 아니었다는 거야
돌부처도 마찬가지겠지,
대대손손 다만 사람의 희망을 짊어진 손톱만한 돌들의 집념, 짐작만 할 뿐인 거야

어렴풋 혈관 곳곳에 엉겨 붙어 내내 떨어져 나가지 않던 기억 속에서
나도 고만고만한 돌멩이 한 개인 거지
내 어미가 네 어미 위에 올린 고 고만고만한 돌멩이 하나

–정용숙 시집, 〈스쳐 지나가는 것들〉, 문학의전당, 2006

"나도 고만고만한 돌멩이 한 개인" 것을 시인은 몇 년 만에 깨달았을까. '고만고만한 희망 한 개'인 것을 얼마 만에 깨달았을까. 1년, 2년, 3년, 4, 5, 6, 10년. "고작해야 한 뼘 반쯤" 되는 돌무덤부터 "새끼손가락만"한 돌무덤이 모여 이룬, 그리하여 지금 한 구 한 구의 부처로 서 계시는 돌무덤들을 보며 시인은 "고만고만한" 우리네 중생들이 "짊어진 희망은 크기가 다 같아"라고 선언해버리고 있다. 그리고 그 선언의 당위성과 보편성을 차근차근 진술(묘사)해나가고 있는 것이 이 시다. 전형적인 선경후정(先京後情)의 서정시다.

그런데 그 후정을 풀어나가는 시인의 솜씨가 일품이다. 우선 돌무덤의 시작을 알린다, "누가 뒤란을 돌다 무심히 던져 놓은 돌멩이가 먼저 것에 가 앉았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들이 "자꾸만 쌓이면서 돌탑이 되고, 바라는 게 많았던 눈에 돌부처로 보였던 게"라고. 그리하여 "이제는 단순히 돌무더기가 아닌 한 구 한 구 부처"가 되어 서 계시는데, "다시 찾은 나"의 돌멩이는 물론, '진자리'("눅눅하고 어둔 뒤란")에서 "어깨 가득 가난한 자들이 자꾸 져 나르는 희망을 넙죽넙죽" 오늘도 묵묵히 "받아 짊어지고 서 있"는 돌무덤 부처님의 모습에서 시인은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손톱만 한 돌들의 집념"을 포착해 내고 있는 것이다.

이 시를 읽으며 필자도 문득, 불국사 뒤꼍의 대숲이 있는 "검고 허름한 집 한 채"에 가고 싶었다. 그리고 그 뒤란에 있는 "한 뼘 반쯤" 되는 돌무덤부터 "작은" "새끼손가락만"한 돌무덤 부처를 보고 싶었다. 그리하여 어미보다 더 깊고 무서운 작은 돌무덤의 집념에 필자의 작은 삶의 돌멩이 하나도 가만히 얹어놓고 싶었다.

희망과 절망의 등가를 바라보는 시인의 시안(詩眼)도 일품이다. 시인은 "앞뜰은 하얀 불국사가 있고"[희망], "뒤란에서는 돌무덤"[절망]이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희망과 절망은 한 몸이고 동전의 앞뒤이며 뫼비우스의 띠 같은 것임을 천하에 공표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인 자신도 "고만고만한 돌멩이 한 개"임을 스스럼없이 밝히고 있다. 이상의 진술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한 뼘=작은 손가락=희망=절망=돌멩이 하나=나(시인 자신)=우리들=중생들=불국사=불국사 뒤꼍 대숲이 있고, 검고 허름한 집 한 채'가 성립한다.

기실, 우리네 삶은 안수정등(岸樹井藤)의 삶이다. 저 언덕 위에 등나무가 있고 그 등나무 아래 우물이 있는 삶이라는 뜻이다. 인간세 자체를 그렇게 구성해 놓은 이야기다. 어느 날 어떤 나그네가 정처 없이 허허벌판을 가고 있었다. 그런데 들불이 나 나그네가 가고 있는 방향으로 타들어 오고 있고, 그 앞엔 굶주린 코끼리가 나그네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 나그네는 겁에 질려 죽지 않으려고 허겁지겁 코끼리와 들불의 반대 방향으로 달아나다 그만 우물에 빠졌다. 하지만 빠지면서도 죽지 않으려고 허우적거리다 우물로 뻗은 등나무 넝쿨을 잡았다. 안심도 잠시. 우물 위를 바라보니 아직도 코끼리가 숨을 씩씩거리며 있다. 또한 나그네가 매달려 있는 사방에는 독사들이 혀를 날름거리며 나그네를 향해 입을 벌리고 있고, 우물 바닥에는 세 마리의 독룡(毒龍)이 시뻘건 입을 벌린 채 위에서 내려오는 먹이를 잡아먹으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그네는 올라가면 코끼리에게 잡아먹힐 것이고 내려가면 독룡에게 잡아먹힐 것이며 가만히 있어도 독사들이 몸을 해칠 것이다. 나그네가 처한 상황은 여기에서 그친 게 아니다. 우물에 떨어질 때 허겁지겁 잡은 등나무 넝쿨을 가만히 보니 흰 쥐와 검은 쥐 두 마리가 번갈아 가면서 갉아 먹고 있다. 그렇게 정신없이 있는데 이마 위로 등나무 가지에 있는 꿀벌 집에서 꿀이 한 방울씩 떨어져 내리고 배고픈 나그네는 그 꿀을 받아먹는데 정신이 팔려 우물 위의 코끼리도 우물 아래 독룡도 사방의 독사도 검은 쥐와 흰 쥐도 잊어버리고 꿀을 받아먹는 재미에 모든 것을 잊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인간세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인간세를 살아가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정용숙 시인의 말처럼 우리 각자가 다 각각 제 몫만큼의 "한 뼘의 희망"을 갖고 있어서가 아닐까. 어디 한 곳 편하게 발 디디고 설 장소가 없는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우리 내면에 돌무덤(돌탑, 돌부처)을 이루고 있는 "손톱만 한 돌들의 집념"을 무한대로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불국사 뒤꼍 대숲이 있고, 검고 허름한 집 한 채로 세 들고 싶은 밤이다.

〈불교문학연구소장〉

일일시호일

가까스로 심정지 벗어났지만
디스크까지 겹쳐 고통

한국서 홀로 가족 생계 책임지던 스리랑카 이주민 삼밧씨
병원비 1000만원에 허리 · 무릎 수술…"가족 위해 일어나야"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마음책 다시 읽기 명상에 답이 있다 ④ 명상의 첫걸음—호흡명상

▶ 한줄 요약
명상 초보자는 두말할 필요 없고 익숙한 사람도 호흡 수련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바른 호흡법이 주는 심신 안정



나의 호흡 패턴 확인하기

우리의 생명은 호흡과 함께 시작해 호흡과 함께 마감한다. 그래서 "생명은 곧 호흡인데 만약 반밖에 호흡을 못하면 반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다. 호흡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패턴이 있다. 호흡에 주의의 초점을 두고 마음 챙겨 호흡하면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마음과 몸에 평화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호흡에 대해 알아차림 하고 의식적으로 통제하면서 호흡하는 것이 이완반응을 일으키는 수많은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명상 수련법이 공통적으로 호흡 수련을 기본으로 삼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숨을 들이쉬어 호흡할 때 아랫배가 안으로 들어가고 대신 가슴은 앞으로 나오게 한다. 이런 식의 호흡은 자연스러운 호흡과 반대되는 것으로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는 불량한 호흡이다. 이런 불량한 호흡, 다시 말해 숨을 들이쉴 때 아랫배가 안으로 들어가고 가슴은 위로 치솟도록 하는 호흡은 자연스러운 호흡이나 심호흡과는 정반대되는 불량한 호흡이다. 계속 이렇게 가슴으로 호흡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기 쉽다.

가슴 호흡은 얕은 호흡으로, 숨을 들이쉴(흡식) 때 가슴이 앞으로 나오고 어깨는 약간 위로 들려 올라가는 것이 특징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얕은 가슴 호흡을 하게 되고 호흡이 불규칙적이 되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 불완전해진다. 이런 가슴 호흡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고, 불편감이 생기고, 충분하게 공기를 들이마시지 못한다는 불안감을 느끼기도 한다. 가슴 호흡은 숨이 차 헐떡이는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 가슴이 조여오는 답답한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소에 이런 가슴 호흡을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아랫배 호흡 실습

자, 지금 편안한 자세로 등을 기대고 앉은 채 당신의 호흡 패턴을 관찰해보라. 그리고 눈을 지그시 감고 한 손을 배꼽 바로 아래 부위에 살며시 올려놓아라. 숨을 쉴 때마다 횡경막이 움직이기 때문에 숨을 들이마실 때는 손이 위로 올라갈 것이며 숨을 내쉴 때에는 손이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 호흡을 계속하면서 손이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가는 것에만 주의의 초점을 두어라. 5~10분 정도 연습해 보라.

이번에는 가만히 누워서 가벼운 책 한 권을 아랫배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을 해보라. 호흡과 함께 아랫배 위에 놓인 책이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는가? 주의해서 살펴보라. 5분에서 10분 정도 해보라.

바로 이렇게 호흡하는 것을 횡경막 호흡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아랫배 호흡, 단전호흡 또는 심호흡이라고 부른다. 이 횡경막 호흡은 잠자기 전에 실시하거나 새벽에 일어나 한다. 이때는 밤낮의 주기가 바뀌는 시점으로 대사활동, 신경전달물질, 내분비호르몬 등 물질들의 자연스러운 교체가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잠들기 쉽고 또 숙면에 들기도 하고, 일어날 때는 쉽게 머리가 맑아지고 활기에 차게 된다. 익숙해지면 앉거나 서거나 걷거나 하루 중 어느 때라도 할 수 있다.

호흡 수련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다른 종류의 명상으로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 명상 초보자는 두말할 필요 없고 익숙한 사람도 호흡 수련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과연 횡경막 호흡이 건강에 도움이 될까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분노, 공포 혹은 슬픔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심리적 현상을 관찰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심하게 놀라면 숨을 헐떡거린다거나 쥐죽은 듯 숨을 멈추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불안하거나 초조한 상황은 횡경막 호흡을 방해하고, 얕은 호흡을 불러온다. 이런 상태에서 의식적으로 횡경막 호흡 쪽으로 주의를 옮겨가게 되면 정서 반응의 강도를 낮출 수 있고 보다 현명하고 능률적으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화내기 전 열 번만 심호흡(횡경막 호흡)을 하라"라는 오래된 격언이 있다. 실제로 이 격언대로 화를 내기 전에 열 번만 심호흡을 하고 나면 화가 진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횡경막 호흡은 분노, 불안, 공포, 슬픔과 같은 강력한 정서 반응의 독성을 해독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호흡 수련을 기본으로 삼는 명상
얕은 가슴 호흡은 되도록 피해야
아랫배 호흡 과정 꾸준히 관찰해
몸과 마음 안정시키고 활력 얻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호흡의 알아차림과 통증 관리 사이에는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산모가 출산을 할 때 산모에게 여러 가지 호흡 기법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호흡법은 자연분만을 유도하기 위한 중요 기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호흡의 알아차림과 조절이 근육통, 요통, 견비통, 두통, 생리통 등 여러 종류의 만성 통증 관리에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통증을 더욱 악화시키는 정서 반응, 긴장, 공포를 호흡 수련을 통하여 분리시킴으로써 통각을 낮출 수 있게끔 학습할 수 있다. 즉, 자신의 호흡에 주의의 초점을 맞춰나감으로써 통증에 대한 감각이 바뀌기 시작하고 주의의 초점이 호흡으로 옮겨가면 결국에는 통증은 뒷전으로 물러나게 한다.

횡경막으로 호흡할 때 느끼는 미묘한 느낌을 경험하고 또 이 호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얻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인내심을 갖고 계속하면 머지않아 소망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다양한 심신의학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에서 환자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의 내용이 가장 좋았는지 질문해보면 공통적으로 '자신의 호흡을 알아차림 하는 호흡법'이 가장 좋았다고 답한다. 그러므로 호흡 훈련은 심신 질병의 치유 과정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방법이다.

비록 호흡명상이 단순한 기법 같아 보이지만 이 기법은 몸의 긴장을 알아차리는 데 매우 유용하고 또 이런 호흡명상을 계속하게 되면 몸의 긴장을 내려놓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지치고 번잡한 일상생활 중에 잠깐 동안 자신의 호흡을 알아차리고 호흡 쪽으로 의식의 초점을 가져오면 주의집중 능력이 살아나고, 현재 이 순간에 깨어 있어 활력감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호흡 쪽으로 의식을 되돌리는 것은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활력을 주는 양약이 된다.

17세기 인도의 명상가 카리바 에켄(Kariba Ekken)은 이렇게 말했다.

"영혼을 편안하게 하려면 먼저 호흡을 조절하라. 호흡이 잘 조절되면 마음이 평화로워지기 때문이다. 호흡이 거칠어지면 곧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시도하기 전에 먼저 호흡부터 조절하라. 그러면 마음이 침착해지고 영혼이 평안해질 것이다."

이번에는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호흡법으로 수식관이란 호흡명상을 해보자.

수식관 명상 안내문

먼저 의자나 바닥에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눈을 살며시 감고 몇 번 깊게 천천히 횡경막 호흡을 합니다. 횡경막 호흡을 계속해가면서 이번에는 숨을 내쉴 때마다 수를 세기 시작합니다. 처음 내쉬는 숨을 '열'로 세기 시작해서 다음 번 내쉬는 숨은 '아홉', 그 다음은 '여덟' …

이렇게 내쉬는 숨을 거꾸로 세어나가 '하나'가 될 때까지 계속합니다. 숨을 내쉴 때 숫자를 셈하는 것과 동시에 머리에서 발가락까지 온몸의 긴장을 몸 밖으로 내려놓는다고 상상합니다. 더 깊어져가는 이완감을 만끽하세요.

같은 방식으로 다시 내쉬는 숨을 '열'부터 시작하여 '아홉', '여덟' … '하나'까지 반복합니다. 15~20분 동안 같은 동작으로 토하는 숨을 세어나갑니다.

이번에는 내쉬는 숨을 '하나'부터 시작해서 '백'까지 쉬지 않고 세어나가는 연습을 합니다. 셈하는 숫자를 놓쳤을 때는 다시 처음부터 셈합니다. 5초 정도 들이쉬고 5초 정도 내쉬면서 백까지 계속해나갑니다.

통증 치유를 위한 호흡명상

다음에는 전형적인 호흡명상을 통증 치유에 응용하는 호흡명상과 우주와 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호흡명상의 예를 실습해보자. 이 명상법은 하버드 의대 심신의학연구소의 공동소장이었던 조앤 보리센코 박사가 추천하는 호흡명상법이다.

잠깐 몸을 뻗어 긴장을 풀고 온몸을 두루 살펴보십시오. 눈을 감고 심호흡을 몇 번 되풀이하십시오. 몸에 다시 주의를 기울여보십시오. 편안한 신체 부위도 있고 긴장이나 통증을 느끼는 불편한 부위도 있을 것입니다. 긴장과 통증이 느껴지는 불편한 신체 부위에 주의를 모으고 불편한 그 신체 부위를 중심으로 호흡이 들어오고 나간다고 상상해보세요.

불편한 부위에서 느껴지는 감각에 주의하면서 그 부위를 통해 숨이 들어가고 나간다고 계속 생각하십시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조금씩 달리 느껴지는 감각의 차이를 느껴보십시오. 그 부위를 통한 에너지의 흐름을 간파하십시오.

아무런 판단 없이 호흡하면서 느껴지는 감각만을 그 부위에서 지켜보세요. 느껴지는 감각들을 '좋다' 또는 '나쁘다'라고 판단하지 말고 느껴지는 대로 그냥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고통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할 겁니다.

고통이 심해지면 심해졌구나 하고 바라보고, 고통이 약해졌으면 약해졌구나 하고 바라보고, 고통이 없어졌으면 없어졌구나 하고 바라보세요. 고통을 억지로 통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타났다가 변해가다가 사라져가는 것을 바라보세요. 4~5분간 계속합니다.



〈장현갑 지음 / 담앤북스 펴냄〉

전통과 미래, 그리고 한국불교의 자부심
BTN 불교TV
방송시간안내
BTN 불교TV 대표 프로그램



법상스님의 육조단경과 마음공부
육조 혜능스님이 법문하신 육조단경의 핵심 내용을 배워보는 시간
본방송 (월) 07:30 재방송 (월) 19:30, (토) 22:30



자현·광우스님의 끝판! 맛수다
자현스님과 광우스님의 '맛있는 수다' 재미있는 불교공부
본방송 (수) 07:30 재방송 (수) 19:30, (일) 14:00



동훈스님의 다음생 이야기
오늘 좋은 씨앗은 내일 좋은 열매!
본방송 (금) 07:30 재방송 (금) 16:00, (일) 21:00

BTN 채널안내 | olleh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대행 스님

항상 실천 궁행하고 돌아가는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모건힐지원에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2년 만에 다시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평상시에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서 왔는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모두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도 그렇고, 사대 성인들이 전부 말하기를 "너부터 알아라." 했습니다.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고 너부터 진화시켜서, 즉 창조를 해라 하는 이런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것은 실천 궁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천 궁행을 할 수가 없다면 물질세계의 50%에만 극매기 때문에, 정신계의 50%와 물질계의 50%를 같이 상응하면서 같이 작용하는 그런 자유스런 삶이 돼야만이 그래도 우리가 불자라고 하며 그래도 사람으로서 산다고 할 것입니다.

우주의 근본도 인간의 마음에 직결이 돼 있다고 봅니다. 이 세상만사에 모두 연결이 돼서 돌아가는 법계의 뜻도 바로 우리네 마음의 근본에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가설이 됐다고 합니다. 이 모두가 그냥 혼자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질계를 본다 하더라도 혼자 돌아가는 게 없고 정신계를 본다고 그러더라도 하나도 그냥 돌아가는 게, 혼자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같이 같이 돌아갑니다.

회사에 사장이 있으면 직원이 있고 직원이 있으면 사장이 있듯이 필연적인 인연의 법칙, 이 자체가 바로 우리의 발전도 가져오게 할 수 있고 바로 창조력을 기르게 할 수 있고 지혜력을 기르게 할 수도 있고 창조를 해내게 할 수도 있는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못 듣고 못 보면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보지도 못했고 이름도 모르고 맛도 모르는데 어떻게 마음으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들어야 하고 봐야 하고 먹어 봐야 맛을 알고 하는 도리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자체가 꼭 알아야 할 일이 너무도 많고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그냥 갈 수는 없는 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 수, 화, 풍 이 자체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몸뚱이, 이것의 바탕이 돼서 있는 겁니다. 이 지수화풍이 인연에 따라서, 즉 물과 흙과 바람, 이것이 암흑세계에서부터 그 인연에 따라서 같이 뭉치다 보니까 온기가 생기고 그래서 바로 불도 거기에 잇따라서 네 가지가 돌아가게 돼서, 즉 미생물이 생기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 미생물로 인해서 바로 우리가 암흑 속에서 광야를 찾았고, 또는 광명을 찾았고 자력을 찾았고 통신력을 찾았고 전력을 찾았고, 모두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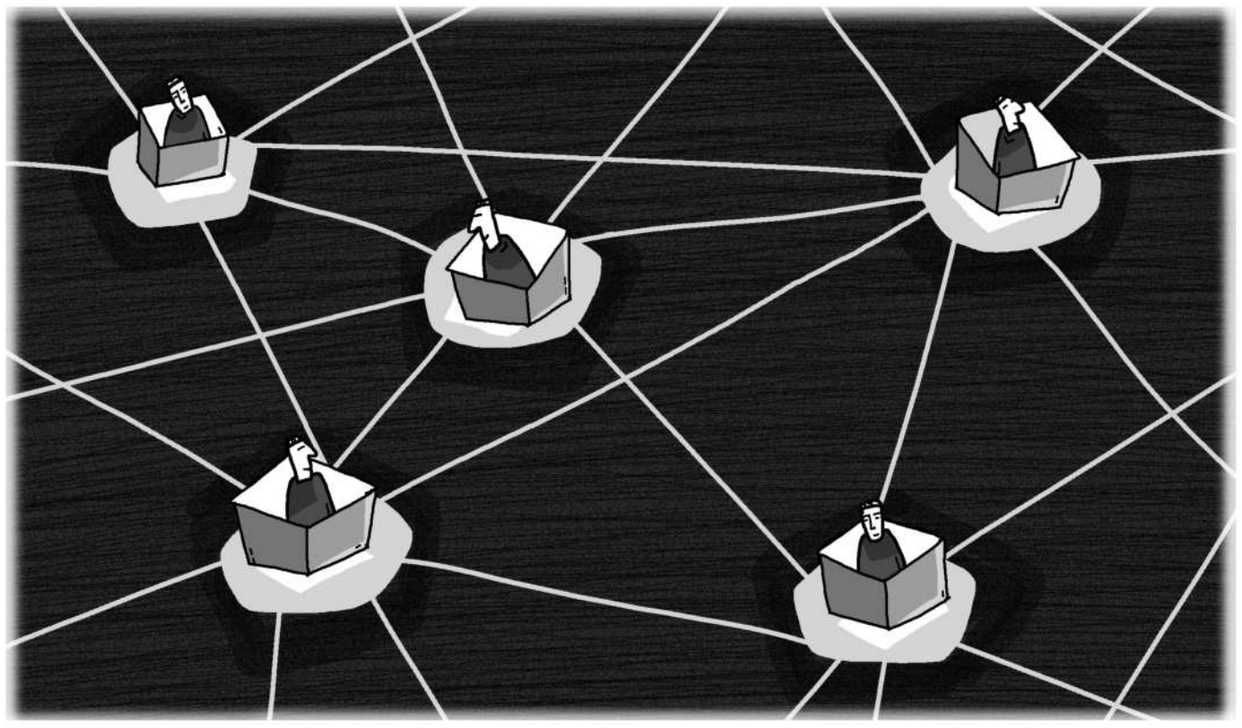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바탕, 이 지금 지수화풍의 바탕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허무하다고 하진 마세요. 허무하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허무한 게 아니라 불을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떠한 물질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기 때문에 지수화풍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수화풍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력 광력 전력 통신력, 이 네 가지가 여러분 앞에, 각자의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물이 있어야 전력이 있듯이 말입니다. 네 가지 요소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할 수 없다' 라는 것의 관습에 의해서 이거는 할 수 없고 이거는 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천차만별로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까지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가 여러분 앞에 주어져 있느니만큼 우리가 이름해서 오신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것도 역시 별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다 주어져 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즉 정신계와 물질계가 서로 작용해서 우리가 살아나간다는 그 요소만 내가 안다면 바로 마음의 눈, 일체 모든 것을 다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 남의 속을 모두 읽을 수 있는 마음, 또는 과거에 내가 나기 이전에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 수 있는 거,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 선업이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 숙명통.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그 자체가 신족통. 천안통 천이통, 천이통은 들을 수 없는 걸 듣는 것을 말합니다.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신족통 숙명통, 이 다섯 가집니다. 이 다섯 가지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거.

아까도 얘기했듯이 '네 가지 요소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즉 지수화풍이 우리에게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은 주어져 있다.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오신통은 그대로 우리가 굴림을 굴리고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물질계의 50%만 알거나, 정신계의 50%가 같이 상응하면서 작용하는 줄 알면서도 실천을 할 수 없는 이런 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기울이질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거기에 기울임이 없기 때문에 한 짝 절름발이입니다. 발 하나는 요만하고 발 하나는 이만하고 그래서 절름발이입니다, 이게. 절름발이로 사니 얼마나 부자유하겠습니까. 그래서 오신통이라는 이름 자체가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근본, 실천할 수 있는 그 자료들이 여러분에게 그냥 주어져 있다는 얘깁니다. 이 마음의 공부를 해서 실천을 할 수 있는 그 실험을 해 본다면 그대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아마 본인들이 더 잘 알고 갈 겁니다.

그런데 그 다섯 가지 가운데 숙명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시쳇말로 비교한다면 컴퓨터입니다. 이 컴퓨터에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일거일동이, 아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일거일동 거기에 입력이 돼 있습니다. 입력이 돼서 솔솔 현실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니까 여러분한테 얘기하기를,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돼서 자꾸 현실에 나와서 애고, 업보, 또는 유전성 또는 영계성, 세균성, 이 모두가, 애고가 그냥 차례차례로 나한테 입력된 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나오는 것을, 그 입력이 돼서 나오는 데다 다시 입력을 해라 이 소립니다. 다시 입력을 해라.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을 그 속에다가 다시 입력을 해라. 거기다가 입력을 다시 하면 앞서 입력된 게 없어짐으로써 그릇은 항상 빈다. 넣으면 비고 넣으면 비고 항상….

그리고 '모든 망상을 끊는다' 하는데 '끊는다' 가 아닙니다. 망상이 나질 않으면 법을 이룰 수가 없고 목석입니다. 망상이라는 이름은 이름해서 망상이지, 우리가 정신계와 물질계가 작용하는 그 과정이, 자기도 모르는 문제들이 자꾸 꼬리에 꼬릴 물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자기 마음으로 자기를 다스리는 법이 있습니다.

나쁘게 돌아가거나 남을 해하게 돌아가거나 우리 가정에 해가 될 수 있는 문제라든가 또 모순이 있는 문제라든가, 어떠한 문제라도 잘못되는 것은 '아, 이러면 안 돼! 이런 것도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니까 주인공에서 해결해야지.' 하는 것이 자기 자성, 이 내면세계입니다. 모두 거기다가 맡겨 놓고 '거기서만이 해결을 할 수 있다. 거기서만이 애고를 무너뜨릴 수 있다.' 하는 거죠. 기도가 아닙니다. 관입니다. 즉발 들어가는 관입니다. 기도라는 건 둘이 되니까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놓으면서 맡기면서 실험하고 체험하고 또는 관해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선입니다, 참선. 좌선 입선 와선 행선, 이것만 참선이라고 오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좌선을 하고 앉아만 있다고 해서 '아, 이럭하면 그 무상 시대를, 모든 걸 간파할 수 있겠지. 나를, 참나를 찾을 수 있겠지.' 하는 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사람들이 좌선을 하게 되면 좌선을 한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좌선을 한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가면서 또 다했으면 다했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앉았을 때만 지구가 돌아가고 다

☞ 22면으로 계속



입력이 돼서 나오는데다 다시 입력을해라

☞ 21면에서 계속

했을 때는 지구가 안 돌아가나요? 이 세상만사가 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색은 공이요 공은 색이니라 했던 겁니다. 이 모두가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데, 참선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천하면서 관해 보고 물러서지 않는다. 믿는다. 자기 자성불을 믿어야지 뭘 믿습니까? 이름을 믿습니까, 허공을 믿습니까, 형상을 믿습니까, 중들의 고깃덩어릴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무식한 말로 예전에 어떤 사람이 "당신은 뭘 믿소?" 하니까 "내 주먹을 믿습니다." 이러더군요, 하하하.

그런데 그렇게 좌선이라는 것도 참선의 한 부분이요, 와선이라는 것도 한 부분이요, 행선이라는 것도 한 부분이요, 입선이라는 것도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첨보해서 일상생활이 즉 참선이니라 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 보시지마는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리만큼 말입니다. 그 생각하면서 뛰는 것이, 뛰면서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참선이며 그대로 여러분의 정신계와 물질계가 작용하는 바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선이라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참선이라는가. 일상생활 자체를 그대로 자기가, 즉 이 나뭇가지, 이파리, 이것이 그대로 뿌리 때문에 자라는 거기 때문입니다.

뿌리에다가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모든 걸 이렇게 해야 할 텐데 그것은 어디로 갔는지 뿌리는 생각지도 않고, 어떠한 종교를 막론해 놓고 바깥으로 이 가지를 붙들고 이파리를 닦아 주고 씻어 주고 온통 이름을 부르고 타의에서 구합니다. 그럭해서야 어떻게 공덕이 되겠습니까. 공덕이라는 것은 정신계 물질계가 서로 같이, 우주 전체가 같이, 이 지금 블랙홀이 돌아가듯 같이, 생명의 근본이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생 · 공용 · 공체 · 공식화하고 돌아가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이 주인공, 이 자체는 바로 생명의 근본이요, 마음 내는 거요, 마음을 내면 육신이 움죽거리는 거요, 이 삼합이 같이 작용하는 것을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더 세밀하게 말하자면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너의 주인이자, 주인이 고정되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공해서 찰나찰나 돌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이름으로 지어서 주인공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다시피 아버지의 이름도 있고 남편의 이름도 있고 또는 형님의 이름도 있고 사위의 이름도 있고, 모두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에 의해서 "여보!" 하면 "왜 그래?" 하고 자동적으로 말과 뜻과 행이 그냥 남편으로 돌아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버지!" 하고 들어오면 금방 그냥 걸림도 없이 찰나에 그냥 "어디 갔다 오니?" 하면서 아버지 노릇을 아주 천연덕스럽게 합니다. 부모가 "얘, 아무개야!" 부르면 "예, 왜 그러십니까, 아버님?" 하고 천연덕스럽게 아들 노릇을 합니다.

그렇듯이 이 부처님 법도, 부처님의 마음으로써 지어 놓은 그 이름도 바로 동방에는 아촉이요, 서방에는 아미타요, 이 사바세계에는 관세음이요, 지천국에는 지장이요, 바로 이렇게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 놓지 않아도 여러분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 그러면 이름이 오만 가지로 많아지죠. 그건 자동적입니다.

부처님의 그 마음에서 나오는 이름도 자동적으로 이름이 주어지는 겁니다. 칠성부처의 이름도 있고 약사부처의 이름도 있고 독성님의 이름도 있고, 용궁님의 이름도 있고 지신의 이름도 있고, 이름이 허다히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름이 있듯이. 어떤 사람이 병고에 휘달려서 오면 그냥 화해서 약사가 돼 버리고. 여러분도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되고 "여보!" 그러면 남편이 돼 버리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선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 참선인가. 실천 궁행하고 돌아가는 것이 참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좌선하고 또는 명상하고 단전호흡 하면서 자기를, 참자기를 찾겠다고 운운하는 거는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이 땅을 걷다가 엎드러지면 어딜 짚고 일어나십니까? 어딜 짚고 일어나십니까? 땅을 짚고 일어나죠? 땅을 걷다가 땅에서 엎드러지면 땅을 짚고 일어나죠. 그거 기정사실입니다,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거와 같이 여러분의 이 생활에서 일체 만법 천차만별로 나오는 데다가, 거기다가 되 맡겨 놓는 것입니다. 맡겨 놓고 관해 보면서, 그래서 관세음이라고 이름을 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지켜보면서 또는 체험하면서 그리고 말하면서,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즉 여러분이 보살입니다. 부처 속에서 중생이 나왔고 중생 속에서 부처가 있는 거지, 어디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정신계, 정신계" 하지만 정신계와 물질계가 어찌 따로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집을 짓는다고 마음으로 안에서 생각을 할 때 바깥으로 나와서는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다 해 놓고는 안으로 또 들입니다. 저거를 어떻게, 돈 출처와 모든 것을 어떻게 채비를 해야 집을 다 지을 수가 있는가 하고 안으로 들입니다. 안으로 들여서 바깥으로 또 냅니다. 집을 짓습니다. 이것이 집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의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 데에 여러분의 정신계와 물질계가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같이 돌아가건만 여러분이 이 생각 자체로서 정신계는 하여튼 모르는 겁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는 일이 없고 항상 이거를 '어떻게 돈을 벌어야 잘살 수 있나. 어떻게 자식들을 잘 가르칠 수 있으며 어떻게 잘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고통을 안 받고 살 수 있을까.' 그냥 오직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뿌리에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 저절로 나무는 자라고 저절로 가지 이파리가 싱싱해질 테고, 열매가 스스로 열릴 테고 열매는 스스로 익을 테고, 제 나무에서 익어서 제 나무에서 맛을 내면서 온갖 사람들 한생각만 해도 모두 공덕이 되게끔, 그 물을 못 먹어서 갈증 나는 사람들에게 갈증을 면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의 도리, 창조력이 있건만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를 막론해 놓고 '타의에서 구한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떡이나 해 놓고 밥이나 해 놓고 빌고 목탁이나 치는 것이 중의 노릇이 아닙니다. 중이라는 것은 희지도 않고 검지도 않고, 그 가운데 바로 중입니다. 순색입니다. 불교라는 단어가 어느 한군데 국한돼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불이요, 정신계와 물질계가 서로 이 사생, 일체 우주 전체가 서로 교환하고 돌아가는 것이 바로 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따로 있고 불교 따로 있고 가톨릭교 따로 있고 통일교 따로 있고 원불교 따로 있고 티베트 불교 따로 있고, 죄 따로따로 여러분이 마음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렇게 정해 놓은 거지 지구가 반쪽쪽쪽이 쪽쪽이 났습니까? 여러분은 한 치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이 지구가 버스라면 버스 안에 들어서 어디로 끌고 돌아다니는지 내다보질 못하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도 어떻게 종교인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쯤은 알아야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깥으로 끄달리고 신을 찾고 내 신은 팽개치고, 자기 자성신은 팽개치고 딴 신을, 이름 신(神), 그거를 찾느라고 온통 야단입니다.

내가 이 찾는 법을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얘기하죠. 여러분이 수박이라면 수박씨를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작년 수박씨를 올봄에 심었는데 심은 것이 싹으로 화했습니다, 씨가. 인젠 씨가 아닙니다. 싹으로 화했습니다. 여러분입니다. 그 싹에서 수박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익었습니다. 익었는데도 아, 이 씨가 싹으로 화했는데도 불구해 놓고 내가 나오기 이전 싹, 씨를 찾느라고 바깥으로 온통 야단들입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나의 안에, 수박 안에 씨가 들어 있는 거를 탁 잘라서 그 수박 맛을 봐야, 수박 맛을 볼 줄 알아야 그 씨도 거기서 나오죠. 그럼 그 씨를 되심어서 이 일체 중생들을 다 먹이고도 또 그 씨는 되남습니다. 영원토록 말입니다. 이게 공덕입니다.

이게 천체가 내 손 아님이 하나도 없으며 내 도량 아님이 하나도 없고 내 아픔 아님이 하나도 없고 내 몸 아님이 하나도 없고, 모두가 나 아님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응해 달라고 염원하면, 그냥 이 마음의 주인공을 염원하고 모든 걸 거기다 맡겨 놓으면 아버지 노릇 하고 남편 노릇 하듯이 자동적으로 찰나찰나 들고 나면서 바로 한마음으로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용광로에다가 쇠나 뭐, 이런 거 넣으면 자동적으로 새 쇠로다가 생산이 돼서 나가듯이 말입니다.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 이 세상 팔만대장경을. 바로 이 세상 돌아가는 게 팔만대장경입니다. 그리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끼리끼리 모여 있습니다. 시장 바닥을 가 봐도 끼리끼리 상점에 놓여 있고 금방에 가 보면 금이 모여 있고 또는 무쇠전에 가 보면 무쇠만이 모여 있고 넝마전에 가 보면 넝마만 모여 있고 빈 병전에 가 보면 빈 병만 모여 있고, 허허허….

사람들도 모두 끼리끼리 모여서, 상인은 상인들대로 모이고, 안 그렇습니까?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모이고, 차원의 그릇대로요. 친구들을 이렇게 사귀어도 자기 알맞는 그릇대로 사귑니다. 이게 끼리끼리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끼리끼리 돌아가고 있지만 모든 거를 본다면 둘이 아니게 또 돌아가고 있으니 둘이 아닌 까닭에 바로 너가 있고 내가 뚜렷하게 있구나 하듯이 말입니다.

이 세상만사가 다 그러한 것이니까 똑똑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종교라는 이름, 이 자체가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바로 여러분부터 알아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도 그러한 말을 해서 그만, 그때는 미거한 어리석은 시절이 돼서 약사발을 안겼지마는, 달마 대사도 그러했고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복으로 돌아가는 이 법은 조선 시대 초기 때부터 중간으로 들어서면서 탄압을 너무 세게 받은 터라 스님네들이 공양미만으로는 턱없이 모자라니까 여기 놓고 빌고 저기 놓고 빌게끔 해 놨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관습으로 돼서 오늘날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교뿐만 아니라 이것은 기독교도 그렇고 가톨릭교도 그렇고 모든 게….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가 잘못해 놓고도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 성사를 합니다. 이것이 모두 가식입니다. 자기가 뿌려 놓은 거 자기가 거둬야지 어디 가서 하소연한다고 그 뿌린 것이 해결이 됩니까?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흑인이 흑인을 낳지 백인을 낳는 건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어저께, 그렇게 알면서도 '참 철두철미하구나! 어쩌면 이렇게 철두철미할까.' 흑인이 어린애를 낳아서 까만 사람이 까만 아이를 끌고 가면서 까만 초콜릿을 먹이면서 가는데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속으로. '허허, 세상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어쩌면 저렇게 한 치의 에누리도 없을까.' 하고 말입니다.

이 세상만사가 다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 인식을 하면서도 다른 거는 또 생각지 못합니다. 하나하나 내가 마음먹고 행하고 하는 것이 입력이 된다는 것을요.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자동적으로 요다음 생에 다시 진화돼서 바뀌 나올 때 바로 모습을 어떤 걸로 가져 나와야 될까도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죠. 물론 우리 같은 사람은 지렁이가 되든지 구더기가 되든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말입니다. 삶은 다 똑같으니까. 차원이 다르고 모습이 달라서 그렇지.

다음 호에 계속

> 정신계 50%와 물질계 50%를 같이 상응하면서
> 같이 작용하는 그런 자유스러운 삶이 돼야만이
> 불자라고 하며 사람으로서 산다 할 것입니다.

※위 법문은 1992년 7월 26일 국외 지원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품구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품구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품구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현불논단

‘장애 제로’ 초전도체형 불자

백도수
능인대학원대학 교수
한국불교학회장



‘상온 초전도체’ 진위여부 떠나
수행자의 장애 없음 되새겨봐야
‘장애 극복’ 강조한 부처님 말씀
가르침 인식 · 활용은 각자의 몫

욕심 줄여 공덕 널리 회향하고
장애 멀리하며 담마 가까이해야
부처님 제자인 참된 불자로서
다른 이 방해 않는지 돌아보자

과학세계는 고정된 사고틀(패러다임)을 깨는 도전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은 ‘이것만이 옳고 다른 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고정관념, 결론이나 주장에 ‘아니다’ 라고 답한다. 또한 과학은 변화하며 변할 수 있다는 조건을 찾아내는 과정을 보여준다. 최근 아카이브에 상온 초전도체 ‘LK-99’에 관한 논문이 소개되었다. 주장의 진위여부를 제쳐두고라도 상온 초전도체는 세상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마이너스(반자성) 효과 이외에 초전도체의 특징 중 하나는 특정 환경에서 모든 전기저항이 제로라는 점이다.

2500여 년 전 부처님의 담마(法, Dhamma)는 ‘일체가 신의 결정, 무인과(無因果)나 물질소생’ 이라는 결정적 사고에 새로운 인식전환을 가져왔다. 즉, 일체는 인연 조건에 의해서 생기고 소멸한다는 가르침[담마]이 소개된 것이다. 부처님은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고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했고, 제자들은 법담을 나누고 수행을 실천했다. 담마의 길은 바로 공덕을 실천하고 악덕을 버리고, 마음의 장애를 맑히는 것이다. 공덕을 실천하면 행복을 경험하고 악덕을 실천하면 고통을 경험한다. 공덕의 결과는 행복이며 악덕의 결과는 고통이다. 내가 공덕을 지어 장애 없이, 악덕을 지어 장애 받고 살 것인지는 지금 여기 행하고 있는 행위에 달려 있다.

초전도체의 저항 제로를 불교에서는 수행자의 장애 없음에 빗댈 수 있다. 육신통을 지닌 부처님은 두려움과 장애나 걸림이 없었다. 눈과 형상[색]이 상호조건이 되어 열 가지의 족쇄(탐욕, 분노, 교만, 사견, 의심, 잘못된 계와 명세에 집착, 시기, 인색, 존재에 대한 탐욕, 무명)가 생긴다고 한다. 특히 부처님은 수행자에게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얻기 위해서 탐욕, 성냄(악한 의도), 게으름(나태), 들뜸(우울)과 의심이란 다섯 가지 장애를 극복해야 함을 강조했다.

불자로서는 승가에 장애가 되지 말아야 하고, 또한 승가 내에서는 출가와 출가생활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아울러 승가의 일원으로 사회와 재가자의 삶에 장애가 되지 말아야 한다. 불자는 담마를 배우거나 가르치는 일과 개인과 단체의 선행 공덕을 장애하지 말아야 한다. 경전을 배우고 수행하고 전법을 실천하는데 장애되는 요소를 지금 여기서 줄이고 버려야 한다.

진리는 사실이지 정답이 아니다. 계단을 보자. 계단을 오르는 이는 오르는 계단, 내려오는 이는 내려오는 계단, 서 있는 이는 서 있는 계단, 바라보는 이는 바라보는 계단이라고 각기 주장한다. 계단은 하나이지만 조건에 따라 계단의 작용이 다른 것이다. 그것은 옳고 그른 종류의 것이 아니다. 진리는 있는 그대로의 계단과 같다. 계단을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오르고 내려오고 서 있고 보는 이가 각각에 맞게 활용하면 되는 일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담마를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할 것인가는 지금 여기 우리의 몫인 것이다. 담마를 역경하고, 배우고, 이해하고, 실천수행하고, 설법하고 전법하는 일은 우리의 처지와 분량에 맞게 하면 되는 일이다. 담마를 배우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전하는 행복보다 더 나은 것이 있겠는가? 이를 체감한 불자는 되고 장애하는 일을 멀리하고 담마를 가까이 하는데 전념할 필요가 있다.

부처님 제자답게 개인, 단체에 장애 없고 걸림 없는 초전도체 같은 불교인이 되어야 한다. 내가 지금 남의 기도, 수행, 배움을 방해하지 않는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나와 내가 속한 단체의 사고틀이나 행동틀로 삼보나 불교에 대한 믿음을 쇠퇴시키지 않는가를 점검해 봐야 할 것이다.



인현 스님의
제주 山房日記

제주의 관문, 추자도

후풍도(候風島), 제주의 첫 관문인 추자도의 옛 이름이다. 바람의 길 위의 섬이다. 조선 최고 표해록 중의 하나인 최부의 〈금남표해록〉도 추자도에서 태풍을 만나면서 시작된다.

추자도는 사람이 최초로 거주한 연대가 알려지지 않았으나 제주도와 한반도를 잇는 뱃길의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한다. 〈고려사〉에 삼별초를 진압하기 위한 여몽연합군과 목호의 난을 진압하기 위한 최영의 병력도 이곳에서 전열을 가다듬었다. 이후로 주민들은 최영의 사당을 세워 마을 수호신으로 모시고 있다.

바람의 섬은 격변의 역사를 겪었다. 고려말에는 왜구의 침입이 극심하여 충정왕 때 주민들을 제주의 도근천 주변으로 이주시켰으며, 조선에서는 공도정책으로 주민들에게 섬을 비우게 했다가, 다시 임진왜란 직후부터 추자도를 방어할 목적으로 주민들을 거주시켰다.

추자도에 불법과의 인연은 언제부터일까. 〈고려사〉에 보면, 송나라로 불법을 배우러 가던 일본의 관선대사 일행 230여명이 추자도로 표류하였다고 한다. 물론 불법의 전래는 이보다 앞서 탐라와 맥을 같이 하고 있을 것이다.

현재의 중심지는 상추자의 대서리항구 주변인데 일제 강점기 이전에는 영흥리 일대였다. 〈마을지〉을 보면, 이 영흥리의 옛 지명은 절골이다. 영흥 마을은 절이 있어 절골 또는 사곡(寺谷) 마을이라 불리다가 일제 이후 개칭되었다. 추자도에서 가장 높은 산인 큰산을 병풍 삼아 산 19번지 일대에 자리한 절은 섬마을의 안녕을 지켜주었다. 지금까지도 절기미라고 불리는 산신당에 ‘산신령신위’ 라고 쓴 비석이 모셔져 있다. 이 산신제는 대서리에 있는 최영장군의 당제 그리고 해신제와 연계되어 음력 2월 15일 해질 무렵 같은 제관이 제를 지내는 풍어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편 사람이 죽어서 운상을 하고 장지에 봉분할 때까지 장례 전 과정에서 부르는 추자도 ‘상부소리’ 가 있다. ‘가난보살’로 시작한 노래는 동네를 떠날 때, 매장을 마무리할 때 이르기까지 “가난보살 가난보살 …”하고 송을 한다. 이 노래는 전체적으로 사설적 흐름보다는 음악적 흐름을 중시하여 본사(本辭)보다는 여음구와 후렴을 많이 활용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장례 의식과정에서 인생무상을 노래하여 상주와 공감을 형성하고 ‘가난보살’을 염송해서 위안을 주고 있다.

‘가난보살’은 어떤 보살일까? 제주의 영등신화의 ‘개남보살’과 같은 인물일 것으로 생각한다. 이증의 〈남사일록(南槎日錄)〉을 보면, “4월 4일에 제주에서 출항하게 됐다.… 대소화탈섬을 12시에 지나는데 물결이 높고 배가 흔들려 멀미를 했다. 뱃사람들은 합장을 하여 관세음보살을 외우기 시작했다. 해가 저물어 갈 때쯤 추자도를 지났다”고 한다.

이처럼 바다와 바람을 의지해 사는 사람들에게 고해를 건내주는 관음보살은 큰 의지처이었던 것이다. 〈관음경〉에 “혹 큰물에 떠내려가더라도 그 이름을 부르면 즉시 얕은 곳에 이를 것이며, 혹 …보배를 구하기 위해 큰 바다에 들어갔을 때, 설사 큰 폭풍이 불어와서 그 배가 뒤집혀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그 가운데 누구든지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이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 죽음의 난을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추자도 아니 후풍도는 관음의 보타낙가산이다.

〈제주 선래왓 주지〉

社 說

불교계 저력 보여준 잼버리 지원

‘호국불교를 넘어 구국불교.’ 파행적인 운영으로 제25회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이하 잼버리 대회)에 불교계가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는 기사에 달린 댓글 중 하나다. 총체적 운영 미숙이 드러난 잼버리 대회의 구원투수는 단연 불교계였다.

김제 금산사, 고창 선운사, 부안 내소사 등 호남 지역 사찰들에서 진행된 템플스테이는 `카우트 대원들에게 단비로 다가왔다. 사찰들은 기록적인 폭염에 당초 예정된 프로그램을 변경해 경내 계곡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대원들의 지친 심신을 치유했다.

조계종은 8월 5일 긴급 지원 지침을 시달하고 전국 24개 교구본사와 147개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 조계종 직영 한국문화연수원 등에서 참가국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영지나 또는 숙박을 제공키로 했다. 8월 7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직접 새만금 잼버리 법당 등을 찾아 대회 원만회향을 위한 지원을 약속하고 대원들을 격려했다.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조기 철수된 후에도 불교계의 지원은 이어졌다.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에는 일본 스카우트 단원 1600명이 입소했고, 천태종 분당 대광사에는 국내 청소년 대원 80명이 입소해 치유명상 · 고구려북명상 · 탁본 · 스님과의 차담 등을 체험했다. 조계종은 서울 시내 12개 사찰에서 한국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정부와 대회 주최 측의 오락가락한 행정과 운영에도 불교계는 한국을 찾은 손님들을 잘 대접하기 위해 성심을 다했다. 이번 잼버리 대회 지원은 국가가 어려울 때 분연히 일어나 민중과 함께 고난을 이긴 한국불교의 저력을 다시 확인시켰다.

‘국보’ 지광국사탑 환지본처에 부쳐

‘승탑의 백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국보)가 반출 112년 만에 본래 자리로 돌아갔다.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 2016년부터 5년여에 걸쳐 보존처리를 마친 국보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하 지광국사탑)’ 부재들이 8월 1일 원래의 위치인 강원도 원주시로 이송됐다.

지광국사탑은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사지에 세워졌던 고려 시대 국사 해린(海麟, 984~1070)의 승탑으로 독특한 구조와 화려한 조각, 뛰어난 장엄장식으로 역대 가장 개성 있고 화려한 승탑으로 손꼽힌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에 의해 팔려나가 일본과 한국을 오갔고,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에서는 경복궁의 장식재로 활용됐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에는 폭탄에 맞아 상륜부와 옥개석이 파손됐다. 당시 피폭으로 탑의 상륜부와 옥개석은 1만 2000여 조각으로 쪼개졌다. 전쟁 이후 1957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복원기술자 故임천 선생이 탑을 복원 · 수리했고, 후에도 해체와 이전을 반복하다 1990년에 이르러서야 국립고궁박물관 뒤뜰로 자리를 잡았다. 2015년 9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면 해체 · 보존처리가 결정됐고, 2016년부터 5년 동안 보수가 진행됐다.

지광국사탑은 보존처리 및 이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 지원 등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일제에 의해 자리를 떠난 성보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간 것은 환영할 일이다. 또한 숙제도 남겼다. 현재 본래 자리를 떠나 박물관 소장물로 활용되는 성보문화재들이 산적해 있어서다. 대표적인 것이 흥천사 동종, 천흥사명 동종, 서산 보원사지 철불, 하사창동 철조여래좌상 등이다. 지광국사탑 환지본처를 계기로 이들 성보의 환지본처도 탄력을 받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솔 스님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 行禪 전문 신발 -
수 행 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그레이블랙

그레이화이트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 (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Hit 어싱 슈즈 특판가 : 65,000원 (무료배송)
어싱전용 양말 증정 (재고 여부에 따라 무압박 양말 증정)
New

■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 효과
■ 일반인도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기능성 신발
· 소 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적용 캔버스화
· 사이즈 : 225~293mm
· 특 징 : 발바닥으로 땅의 굴곡을 느낄 수 있는 접지기능
일반신발 대비 1/10 수준의 3mm 밑창 두께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최초 최고 명문 불자 교육기관]

빛나는승려의길

부산불교교육대학 승려 명상지도사







| 개강일 | 2023년 9월 7일(목) 오후 3시 (정원 30명) | 강의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5시까지 (6개월)

| 메디테라피스트 | 김경숙 (사)싱잉볼 치유의 소리 대표 | 자격증 | 붓다볼 명상지도사 (민간자격 등록 2022-001823)

증명 : 서해 흥교 대종사 교육원장 : 심산스님 운영위원장 : 자인스님 후원회장 : 선보공업(주) 최금식 회장

부산불교교육대학 하반기 신입생 모집

| 합동입학식 | 2023년 9월 13일(수) 오후 7시

행복선 명상 (목, 6개월, 정원60명)

- 일상 스트레스의 해소와 대처법 습득을 통해 삶을 윤택하게 하는 힐링 치유프로그램

기초교리학과 (수, 6개월)

- 학장 평천 범혜스님 (한국불교 대강백 월운스님 전강제자)
  불교 기초 핵심교리를 알기쉽고 체계적으로 설명

불교문화학과 (6개월)

- 불교문화 포교사(금)
- 불교문화 전문지도사(월)

부동산융합풍수학과 (화, 6개월)

- 여해스님 (한국풍수최고봉 이산 장태상 선생 수제자)

※ 각 학과별 매주 1회 오후7시~9시 강의

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평천 범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49-1 신동아빌딩 5층
(서면 롯데백화점 맞은편) Tel. 051-711-0700

